

통계청 연구용역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및 지표선정 연구 보고서

국가주요지표 연구 I: 지표체계

2013. 12.

한국 사회 과학 자료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부문책임자	
경제	우천식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환경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영역책임자	
국민계정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재정과 금융	김태중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과 생산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고용과 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소득과 소비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인구	김두섭 (한양대학교 교수)
가구와 가족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건강	조병희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문화와 여가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거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교통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안전	민수홍 (경기대학교 교수)
사회통합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
생활환경과 오염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코디네이터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간사	고지영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DB시스템 설계	신영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DB 편집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통계청 연구지원	최성욱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청 통계정책과장)
	이희정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
	정유현 (통계청 통계정책과 주무관)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일반 국민과 국가 정책 수립자들에게 국민의 웰빙과 국가 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주요지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시행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이다.

최근 여러 선진국들에서 ‘국민의 웰빙’ 또는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이라는 명칭의 국가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용어를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개인의 삶의 질 차원의 지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사회의 발전(progress) 차원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국가지표’를 이 두 종류 지표의 복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념 구도를 가지고 「국가주요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였다.

「국가주요지표」의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존의 지표 연구와 지표체계들을 검토하고 국가지표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정립된 개념에 따라 지표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지표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마련된 지표선정 기준에 따라 주요지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요지표들의 DB를 구축하였다. 주요지표 DB에는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를 포함시켰으며, 이렇게 구축된 지표 DB 안은 공동연구자들의 합동 검토워크숍, 의견조사, 전문가 초청 평가세미나, 국회공청회 등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여기에 부가하여 기존의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의 분류 체계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용자들이 이 두 지표 DB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DB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이 지표 DB의 유지와 발전에 어떤 사업조직과 거버넌스 체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존 통계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이 각종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발간한 가장 오래된 지표 보고서이고, 「e-나라지표」는 2006년에 개설된 국정통계 웹사이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축한 「국가주요지표」는 이 두 지표와 중첩되는 점이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 내지 웰빙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통적 사회지표의 보고서로 지표통계만을 제공하나,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지표도 제공하고 주요지표별로 해설과 함께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도 제공한다. 「e-나라지표」는 국정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나,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요지표들만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국회에서 제기되고 통계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통계청은 2012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방안 연구」(2012)를 시행하고 본 연구, 즉 「국가주요지표」의 DB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표 DB의 개발이나 실제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축된 DB를 구현해 줄 DB시스템과 사업조직의 형태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DB시스템은 DB의 형식과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사업조직은 DB 개선과 업데이트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권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제1권에는 「국가주요지표」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이 DB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제2권에는 「e-나라지표」DB시스템에 탑재하여 제공될 「국가주요지표」DB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를 하는 데 많은 분들이 기여하였다. 연구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였으나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던 이 연구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45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조사, 평가세미나 및 공청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이다. 이 일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박형수 통계청장을 비롯하여 최성욱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정책과장, 「e-나라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사무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이 연구를 주관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는 한준 원장을 비롯하여 신영란 기획관리실장, 김대훈 자료개발실장, 그리고 이상운 통계DB팀장이 뒷받침을 해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연구책임자 석 현 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배경	1
가. 연구 목적	1
나. 연구 배경	2
2. 연구 내용과 방법	3
가. 연구 내용	3
나. 연구 방법	5
II. 국가지표 연구와 주요 국가지표체계의 검토	8
1. 지표 연구의 검토	8
가. 삶의 질과 사회의 질 연구	9
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발전지표 연구	17
2. 주요 국가지표체계의 검토	23
가.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표	24
나. 한국의 주요 지표	51
III. 「국가주요지표」 체계와 지표 DB 구축 방법	57
1. 개념 틀과 지표분류체계	57
가. 개념 틀	57
나. 지표체계의 구성	60
2. 지표선정 기준과 지표 DB 구축 방법	62
가. 지표선정 기준	62
나. 지표 DB 구축 방법	64
IV. 「국가주요지표」 DB의 구축	70
1. 경제지표	70
가. 경제지표의 개념 틀	70
나. 경제지표 분류체계	72
다. 영역별 지표 구성	73
2. 사회지표	82
가. 사회지표의 개념 틀	82
나. 사회지표 분류체계	85
다. 영역별 지표 구성	86

3. 환경지표	97
가. 환경지표의 개념 틀	97
나. 환경지표 분류체계	100
다. 영역별 지표 구성	101
V. DB시스템 설계와 「e-나라지표」의 재분류	106
1. DB시스템의 설계	106
가. 「e-나라지표」 시스템의 운영 현황	106
나. 「국가주요지표」 DB시스템의 설계	109
2. 「e-나라지표」의 재분류	118
VI. 「국가주요지표」 DB의 운영과 관리 방안	122
1. DB 개선 연구와 업데이트	122
가. 개선 연구	122
나. 신규지표 개발	123
다.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지표의 개발과 활용	128
라. 정책지표의 개발과 활용	130
마. 지표 DB의 업데이트	132
2. 운영조직과 거버넌스	133
가. 업무조직	133
나. 거버넌스	135
다. 법제화	137
참고문헌	139
부록	
1. 「국가주요지표」 체계	143
2. 「e-나라지표」의 재분류	149
3. OECD의 <i>How's Life Index</i>	164
4. EU의 <i>Quality of Life Indicators</i>	165
5. UN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69
6.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	171
7. 캐나다의 <i>Canadian Index of Wellbeing</i>	172
8. 영국의 <i>Measuring National Well-being</i>	175
9. 뉴질랜드의 <i>Quality of Life Project</i>	176
10. Wang의 <i>Social Quality Indicators of Europe and Asia</i>	177
11. 독일의 <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i>	183

12. 미국의 <i>Sustainable America</i>	185
13. 영국의 <i>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i>	186
14. 캐나다의 <i>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i>	189
15. 뉴질랜드의 <i>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i>	190
16. 스위스의 <i>MONET Indicator System</i>	193
17. 호주의 <i>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i>	195

표 목 차

<표 II-1> Diener의 주관적 웰빙 구성요소	12
<표 II-2> OECD의 주관적 웰빙 척도	13
<표 II-3> OECD의 <i>How's Life Index</i> 지표체계	25
<표 II-4> EU의 <i>Quality of Life Indicators</i> 지표체계	26
<표 II-5> 주요 국가의 삶의 질 지표체계	28
<표 II-6> van der Maesen과 Walker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38
<표 II-7> 이재열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39
<표 II-8>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41
<표 II-9> 주요 국가의 국가발전지표	44
<표 II-10> 주요 국가의 지표작성 기관	48
<표 II-11> 주요 국가의 지표작성 방식과 참여자	50
<표 II-12>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지표선정 기준	51
<표 II-13> 「한국의 사회지표」의 영역과 하위영역	52
<표 II-14> 「e-나라지표」의 분류체계	55
<표 III-1>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	61
<표 III-2> 「국가주요지표」 DB의 항목 구성	65
<표 III-3> 「국가주요지표」 DB의 영역별 지표수	69
<표 IV-1> 경제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73
<표 IV-2> 국민계정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74
<표 IV-3> 재정과 금융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76
<표 IV-4> 산업과 생산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78
<표 IV-5> 고용과 노동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80
<표 IV-6> 소득과 소비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81
<표 IV-7> 사회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86
<표 IV-8> 인구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87
<표 IV-9> 가구와 가족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88
<표 IV-10> 건강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89
<표 IV-11> 교육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0
<표 IV-12> 문화와 여가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1
<표 IV-13> 주거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2
<표 IV-14> 교통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4
<표 IV-15> 안전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5
<표 IV-16>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96
<표 IV-17> 환경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101
<표 IV-18>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102
<표 IV-19>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105

<표 V-1>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의 지표 관리 기능	107
<표 V-2>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에서 수정되는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사항 ...	111
<표 V-3> 「국가주요지표」의 대시보드 지표	113
<표 V-4> 기존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의 일치비율과 「e-나라지표」의 재분류 가능비율	118
<표 V-5>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한 「e-나라지표」의 분류(영역)별 재분류 가능비율	121
<표 VI-1> 「국가주요지표」 DB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추가 지표	125
<표 VI-2> 「국가주요지표」의 주관적 웰빙 관련 신규지표(안)	127
<표 VI-3> 「국가주요지표」의 크로스커팅 지표(안)	129
<표 VI-4> 「국가주요지표」의 크로스커팅 주요정책지표(안)	132

그 립 목 차

[그림 I-1]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구축 방법	5
[그림 II-1] EU European Foundation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 틀	16
[그림 II-2] OECD의 <i>How's Life Index</i> 개념 틀	25
[그림 II-3] 캐나다의 <i>Canadian Index of Wellbeing</i> 개념 틀: 웰빙 만다라	30
[그림 II-4] 영국의 <i>Measuring National Well-being</i> 개념 틀	31
[그림 II-5] 뉴질랜드의 <i>Quality of Life Project</i> 진행 과정	33
[그림 II-6] 네덜란드의 <i>Life Situation Index</i> 개념 틀	34
[그림 II-7] 부탄의 <i>Gross National Happiness</i> 지표체계	36
[그림 II-8] 일본의 <i>Measuring National Well-being</i> 개념 틀	37
[그림 III-1] 「국가주요지표」의 개념 틀	60
[그림 IV-1] 경제지표의 개념 틀	72
[그림 IV-2] 사회지표의 개념 틀	83
[그림 IV-3] 환경지표의 개념 틀	99
[그림 V-1] 「e-나라지표」의 메인화면	108
[그림 V-2] 「e-나라지표」의 상세화면	109
[그림 V-3] 「국가주요지표」의 메인 UI(1)	112
[그림 V-4] 「국가주요지표」의 메인 UI(2)	114
[그림 V-5] 「국가주요지표」의 지표 UI(1)	115
[그림 V-6] 「국가주요지표」의 지표 UI(2)	116
[그림 VI-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131

I. 서 론

1. 연구 목적과 배경

가.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반이 되는 「국가주요지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여기서 국민의 웰빙이란 삶의 질 차원에서의 웰빙을 말하고 국가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의 보존이 전제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progress)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국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국가지표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구축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는 통계지표는 1960년대 말에 일어난 이른바 ‘사회지표 운동’ 이래 부단히 발전해 왔다. ‘사회지표’는 사회변동을 모니터할 필요성에서 개발된 개념이나 곧바로 삶의 질 내지 웰빙의 측정으로 보편화 되고 최근에 지속가능발전 내지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의 측정으로 발전하였다. 이 두 지표, 즉 웰빙지표와 국가발전지표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한 것이다. 실제로 국가발전지표는 웰빙지표에 기반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두 지표에는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의 작성 목적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지표 구성도 다소 다르다. 웰빙지표는 주로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의 삶의 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영역(life domain)별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이의 측정을 중시한다. 반면에, 국가발전지표의 작성 목적은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기 때문에 발전의 주요 국면별 변화 추세의 측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에서 이 두 범주의 지표는 별도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두 지표는 통합하여 단일의 지표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웰빙을 배제한 국가발전이란 있을 수 없고 국가발전이 없이 국민의 웰빙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 두 지표체계의 통합은 연관된 현상들의 동시적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지표를 통합한 형태의 지표 DB이다.

나. 연구 배경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계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각종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1978년부터 발간해 온 가장 오래된 지표 보고서이고, 「e-나라지표」는 정부의 38개 중앙 부처들이 작성하여 통합 제공하는 국정통계 웹사이트로 2006년에 개설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주요지표」는 이 두 지표와 중첩되는 점이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 내지 웰빙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통적 사회지표의 보고서로 지표통계만을 제공하나 「국가주요지표」는 발전지표도 제공하고 주요 지표별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와 함께 해설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고, 「e-나라지표」는 국정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나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요지표들만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사업은 2011년 3월 국회에서 이한구 의원에 의한 국가주요지표 구축의 필요성 제기와 같은 해 9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시 국회의원)에 의한 「e-나라지표」의 문제점과 민·관협의체를 통한 국가주요지표의 선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지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e-나라지표」의 문제점으로 자료의 단편성, 지표선정 기준의 부재, 공급자 중심성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한 국가주요지표 구축과 시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통계청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방안 연구」(이민호 외, 2012)¹⁾를 시행하고 본 연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상기 연구에서 국가지표체계의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보화 시스템 및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운영체계와 지표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동 연구의 후속 사업으로 지표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지표 DB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수행된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는 사회지표들은 오랫동안 삶의 질 내지 웰빙 상황을 측정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부터 주요 국제기구들과 여러 선진국들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내지 국가발전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발전지표를 포함하는 국가지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표작성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웰빙지표와

1) 이 연구에서는 지표명에 ‘정책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개념적으로 부적절한 명칭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용역과제 수행계획서부터는 당초 국회에서 제안된 지표명인 ‘국가주요지표’로 바꾸었다.

국가발전지표를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서 작성하는 지표들보다 진일보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어떤 종류의 지표이든 지표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성하고자 하는 지표의 개념 틀을 정립하고 정립된 개념 틀에 기반하여 지표체계를 정립하는 일이다. 개념 틀이 없으면 어떤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여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즉 지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표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일은 지표의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일이다. 분류체계를 제대로 만들어야 주요 지표들을 빠트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표분류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할 일은 구성된 분류체계에 따라 지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DB를 구축한 후 이 DB를 필요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DB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수행되었다. 즉 먼저 ‘국가지표’의 개념 틀을 정립하고 정립된 개념 틀에 적실하게 지표분류체계를 구축하여 지표들을 선정함과 아울러 지표 DB를 구축하였다(부록 1 참조). 이 절에서는 연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보기로 하겠다.

(1) 국가지표 개념 틀의 정립과 지표체계의 구축

‘국가주요지표’(Key National Indicators)라는 용어는 최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표 구축 사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다. 이 사업은 시작한지 10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 시론적 단계에 있으며 ‘국가지표’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지 않다. 여기서 ‘국가지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 국가들에서 오래 전부터 작성하고 있는 웰빙지표와 199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국가발전지표를 포용하는 지표의 명칭으로 이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지표작성의 출발점은 작성하고자 하는 지표의 개념 틀이지 지표명 선정의 적절성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지표 개념은 Stiglitz와 Sen이 주축이 되고 22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통칭 *Stiglitz Report* 라고 알려진 이 위원회의 보고서(*Report by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9)는 어느

국가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와 사회 및 환경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표의 개념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틀은 *Stiglitz Report*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부터 영국을 위시한 몇몇 국가들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지표들도 거의 모두 경제, 사회 및 환경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연장선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국가발전지표도 이 세 부분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Stiglitz Report*가 국가지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지표체계의 이론적 뒷받침이다.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지표도 여러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발전지표의 모형처럼 경제, 사회 및 환경 부문들로 구성하고 각 부문의 영역과 하위영역은 과학적 분류의 원칙인 포괄성(inclusiveness)과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하여 분류하였다. 즉 영역 구성의 완결성과 개별 영역들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2) 지표선정과 지표 DB의 구축

어떤 지표를 작성하든 그 출발점은 지표선정 기준과 지표 DB의 구성 항목 설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표작성 목적에 부합하고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에 적실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즉 지표작성 목적인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파악에 도움이 되고 투입(input)보다는 성과(output)의 측정,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지표, 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 등의 일반적 기준에 부합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DB로 구축하였다. 주요지표의 DB는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막대 또는 선 그래프, 지표의 구성 요소, 인구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로 구성하였다. 지표선정 기준과 지표 DB 구성 방식은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것이다.

(3) 「e-나라지표」의 재분류, 「국가주요지표」 DB시스템 기본 설계와 운영 방법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를 「e-나라지표」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주요지표」의 DB를 구축한 후에 기존의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와 동일하게 재분류하고 DB시스템을 이 두 지표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여기에 부가하여 「국가주요지표」의 유지, 발전에 필수적인 후속 연구과제와 운영조직의 모형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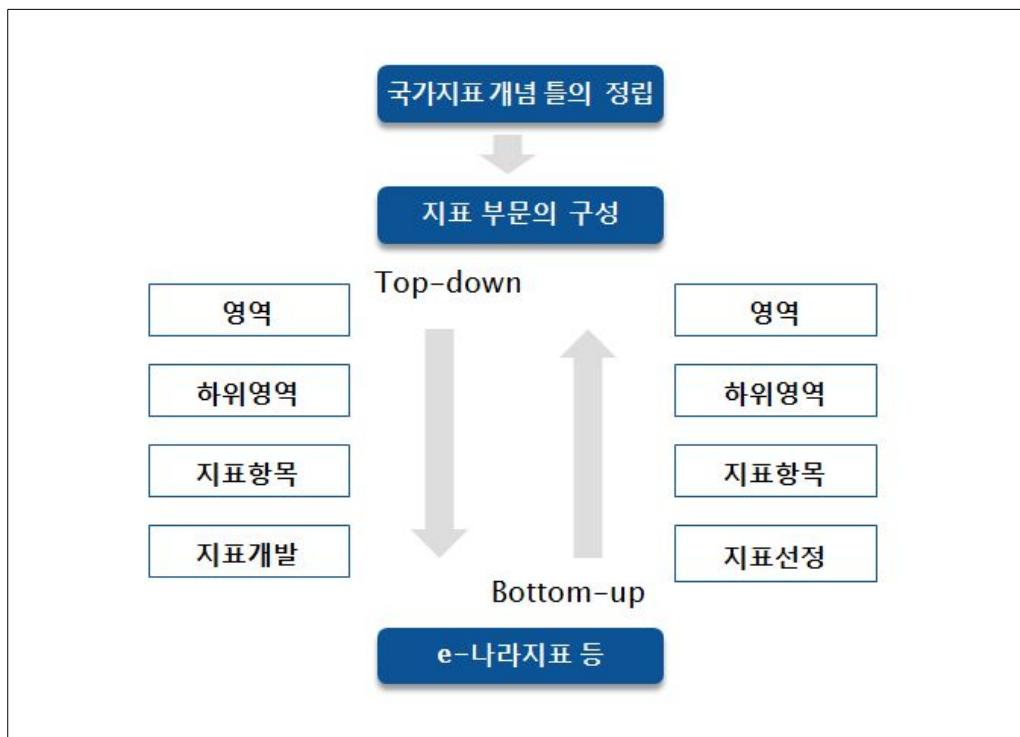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수행되었다. 먼저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기존 연구와 주요 지표체계들의 검토를 통해 정립한 개념 틀로부터 연역적 방법으로 구축하고 기존의 지표 자료로부터 귀납적 방법으로 보완하였다. 그 다음에 주요지표들을 사전에 마련한 지표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들의 DB는 가장 체계적으로 작성된 국가지표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된 지표 DB는 검토워크숍과 의견조사 및 평가세미나를 거쳐 수정, 보완되었다.

(1) 지표체계 구축 방법

이 연구에서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그림 I-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지표 개념 틀로부터 연역적으로 구성하고 기존 지표들로부터 귀납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그림 I-1]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구축 방법



‘국가지표’는 국가 수준에서 작성되는 삶의 질과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발전과 국가 발전(national progress) 차원의 지표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지표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주요 지표연구들을 참고하고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표들의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정립된 것이다. 우리는 이 개념 틀로부터 먼저 연역적 방식으로 부문, 영역, 하위영역 및 지표항목을 포함하는 지표분류 체계를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체계를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주요 지표들로부터 귀납적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지표개념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구축된 지표체계는 불완전 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지표들, 특별히 「e-나라지표」와 다른 주요 지표보고서들인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동향」, 그리고 「사회조사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지표들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표체계에 포함시키려면 top-down 방식으로 구성된 영역, 특히 세부(하위)영역의 구성이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top-down 방식에 의해 구축된 지표체계를 「e-나라지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지표들로부터 bottom-up 방식으로 보완하여 최종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지표선정 기준

지표 DB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표작성 목적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정하는 일이다. 지표작성의 목적은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국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제공이다. 따라서 선정되는 모든 지표들은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3) 지표 DB의 구성

사회 내지 국가 지표를 보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독일의 *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나 「한국의 사회지표」처럼 영역별로 지표 통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구성하여 보고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Social Trends*, 호주의 *Australian Social Trends*, 「한국의 사회동향」처럼 영역별로 세부 영역들을 주제로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주제별로 관련 지표통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여러 선진국들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내지 국가발전 지표들의 보고 방식으로 영역별로 선정된 주요 지표들을 간결한 그래프로 작성하고 각각의 지표들을 해설을 포함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영국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MAP)* 등이 이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e-나라지표」도 이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성 항목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설명에 중복이 많다. 여러 국가지표들 가운데 DB 구성 방식이 가장 잘 짜여져 있는 것은 호주의 *MAP* 이다. 우리는 *MAP*을 표본으로 해서 주요지표의 DB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지표 DB의 수정·보완 방법

지표 DB 초안은 두 차례에 걸친 연구자 검토워크숍과 의견조사 및 평가세미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검토워크숍은 부문 내지 인접영역별로 가졌고, DB 초안에 대한 의견조사는 영역별로 10여 명의 전공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평가세미나는 인접영역별로 국민 대변 및 정책 수립 관련 기관의 전문가 4-6명을 초빙하여 부문별로 개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된 최종 연구 안은 마지막으로 국회공청회를 통해 점검되었다.

II. 국가지표 연구와 주요 국가지표체계의 검토

1. 지표 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progress)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계량적 측정 도구로서의 지표체계이다. 이러한 국가지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살기 좋은 나라, 또는 발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한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인지, 그리고 살기 좋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지표연구가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말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종류의 지표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어 왔지만 ‘국가지표’라는 명칭으로 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를 전후해서부터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 북미와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자국의 웰빙(well-being) 또는 발전(progress)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국가웰빙지표’ 또는 ‘국가발전지표’ 등의 이름으로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국가지표 연구는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다양한 지표연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지표 연구의 토대가 된 주요 지표연구들로는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및 웰빙 연구, 삶의 질 연구의 보완 연구로서 2000년대 EU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강조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태동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국가지표 연구들은 이처럼 다양한 지표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나라 개념을 사회 내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국가지표란 삶의 질, 웰빙,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국가발전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국가 지표체계의 개념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 지표연구들에서 나타난 핵심 개념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삶의 질과 사회의 질 연구

(1) 삶의 질 연구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는 영국의 후생경제학자인 피구(Pigou, 1929)에 의해 정부의 복지제공이나 근로환경이 노동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논의에서 처음 언급되었다(한준 외, 2011). 경제학적 관점에서 복지와 부(wealth)의 배분에 관한 논의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Noll, 2002a; Beham et al., 2006).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미국에서 1960년대 사회지표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를 넘어 진정한 좋은 사회(good society)가 무엇인지에 대한 당시의 정치사회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태동하였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행복 추구의 기회를 제공할 환경, 역량, 그리고 사회 구조를 만들어 주는 데 있다. 따라서 위대한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의 문제에 더 고민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Schuessler and Fisher, 1985). 이후 미국에서 사회지표 연구는 삶의 질 연구와 거의 대등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1974년 Alex Michalos에 의해 창간되어 현재까지 사회지표 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저널로 자리잡은 *Social Indicators Research*의 부제가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Quality-of-Life Measurement*라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사회지표 운동이 ‘삶의 질’ 연구의 초석이 된 만큼, 삶의 질 연구를 이해하려면 그에 앞서 사회지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사회지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서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의 우주정책 프로그램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미국인문과학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Raymond A. Bauer가 책임자였던 연구팀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부재로 연구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Social Indicators*(1966)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출판하기에 이르렀다(Sharpe, 1999). Bauer의 *Social Indicators*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지표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와 모든 종류의 증거들”이다(Noll, 2002a). 이 개념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사회 여건 측정치가 아닌 일정한 가치 지향과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합적인 국가 지표 개념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Bauer의 사회지표 연구는 이후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및 국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표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1970년대 말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지표 보고서들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1970년대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사회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지표 보고서를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들에서도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1970년대 초반에는 OECD가 사회지표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UN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지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회지표 작업들은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경제적인 요소 외에 보다 종합적인 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OECD의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1973)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공통 지향가치로서 단순한 도구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근본적인 인간의 가치지향으로서의 웰빙 개념을 담고 있다. UN의 경우에도, 1989년에 출간된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에서 “개발 이슈를 비롯하여 생활수준 및 이와 관련된 사회·경제·환경 조건들, 보다 높은 생활수준의 촉진, 완전 고용,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조건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로서의 사회지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사회지표 운동은 단순히 사회변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통계표 산출의 목적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지표 개발 연구로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삶의 질 논의가 유럽에서는 복지와 자원 배분의 문제에 뿌리를 두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초기 삶의 질 연구 방향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 즉, 삶의 질에 대한 연구의 이중 행보를 말하는데, 스웨덴, 독일 등 유럽에서의 삶의 질 연구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의 분배와 국민의 객관적인 생활수준에 관심을 둔 반면, 미국의 삶의 질 연구는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Noll, 2002b; Beham et al., 2006). 미국의 삶의 질 연구에서 웰빙, 특히 주관적 웰빙 개념이 발전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연구 분야로 자리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개인적, 객관적·주관적 수준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Noll, 2002a). 그간의 연구에서 나타난 삶의 질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객관적 생활수준(Objective Level of Living)

삶의 질의 관건적 요소로서의 생활수준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권의 후생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삶의 질은 돈, 재산, 지식, 정신적·신체적 에너지, 사회적 관계와 안전 등 주요 자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및 기회로 정의되었다(Erickson, 1974; Noll, 2002a). 객관적인 생활수준에 초점을 둔 이러한

관점은 자원의 배분에 대한 측정 방법이 모호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요소 및 생활양식(life style)이나 개인의 성격 차이 등 주관적 변인들이 배제되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 역량(Capability)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복지의 문제로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인도 출신의 미국 경제학자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Sen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Sen(1993)은 인간의 복지(삶의 질 혹은 웰빙)를 측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GDP에 근거한 경제성장 중심의 측정 방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역량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삶의 질이란 개인들이 ‘가치 있는 기능’(valuable functioning)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보유에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량은 건강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역량을 비롯하여, 자아존중감이나 사회통합, 정치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역량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자유’(substantive freedom)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처럼 자유의 문제는 Sen의 역량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된다(Sen, 1993; 이재열, 2009). Sen이 제기한 삶의 질 개념은 UNDP에 의해 경제성장에 대한 대안적 발전 지표의 토대적 이론으로 채택되어 1990년대부터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로 공표되었다(이재열, 2009; Noll, 2002a).

- 소유, 사랑, 존재(Having, Loving, Being)

핀란드 사회학자인 Allardt(1993)는 삶의 질이 소유(having), 사랑(loving), 존재(being)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소유는 경제적 자원, 주택, 고용, 근로조건, 건강, 교육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수준과 관련되는 반면, 사랑은 이웃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접촉, 가족과 친척에 대한 애착, 친구와의 적극적 우애, 사회구성원 및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있고, 존재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 여가, 정치적 활동 및 자연을 즐길 기회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삶의 질의 객관적인 요인이라면, 각각에는 주관적 요소도 포함된다. 즉 소유의 요소에 있어서 주관적 만족도, 사랑의 요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그리고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소외 또는 성장 등의 주관적 요소들이다. Allardt는 삶의 질의 영역을 객관적 수준에 의해서 구분하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개인들의 만족도 등의 주관적 평가를 포함시킴으로써 스웨덴의 삶의 질 또는 복지 모델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

미국에서의 삶의 질 연구는 주로 주관적 지표의 개발에 치중되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기 미국의 삶의 질 연구자인 심리학자 Campbell은 “삶의 질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Campbell, 1972; Beham et al., 2006에서 재인용). Campbell을 비롯하여 삶의 질을 주관적 웰빙의 관점에서 접근한 미국의 연구자들에 의하면,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중요하며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주관적 웰빙 개념에 입각한 삶의 질 개념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Diener에 의해서 가장 정교하게 연구되었다(Diener, 2000). 그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 연구는 정서적(affective) 측면과 인지적(cognitive)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정서적 측면은 다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되며, 인지적 측면에는 생활만족도와 종합적인 판단 외에 직장, 가족과 같은 삶의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된다. 주관적 웰빙의 이론적 관점에서는 삶의 질 개념에서 건강, 소득, 부와 같은 객관적 요인들이 배제된다(Diener, 1984).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들이 배제되는 대신,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삶의 질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I-1> Diener의 주관적 웰빙 구성요소

Pleasant affect	Unpleasant affect	Life Satisfaction	Domain Satisfaction
Joy	Guilt & shame	Desire to change life	Work
Elation	Sadness	Satisfaction with current life	Family
Contentment	Anxiety & worry	Satisfaction with past	Leisure
Pride	Anger	Satisfaction with future	Health
Affection	Stress	Significant other's views of one's life	Finances
Happiness	Depression		Self
Ecstasy	Envy		One's Group

출처: Beham et al., 2006에서 인용.

주관적 웰빙의 개념은 Diener의 연구에서처럼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고려된 측정도구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주관적 웰빙 연구가 발전하면서 그동안 웰빙 척도에서 간과되었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주연 외, 2012). 대표적으로,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경험만으로 측정하는 주관적 웰빙은 과거와 현재의 만족도는 포함하지만 미래에 대한 만족이나 기대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미래에 자신의 삶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희망이나 기대도 개인의

주관적 웰빙이나 행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Ryff와 Keyes(1995)는 이러한 심리적 웰빙 측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의사결정권, 타인과의 관계, 삶의 목적 등의 측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박주언 외, 2012에서 재인용). Diener 역시 최근 연구(Diener et al., 2010)에서는 주관적 웰빙 척도에 심리적 번영(flourishing)의 개념을 추가하여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Diener 등의 심리적 번영은 Ryff와 Keyes(1995)의 심리적 웰빙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웰빙이라는 개념이 포괄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Diener 등은 ‘번영’의 개념을 선호하였다. Diener 등이 제시한 심리적 번영 척도에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사회생활,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흥미,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 능력과 성취감, 미래에 대한 낙관,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삶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ECD 역시 최근에는 주관적 웰빙 지표에 심리적 번영(eudaimonia)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OECD는 신뢰성 있는 주관적 웰빙 척도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구체적인 척도들을 제안하고 있다(OECD, 2013). OECD가 제안하는 척도는 크게 핵심항목, 삶에 대한 평가, 정서, 심리적 번영, 영역별 평가, 경험된 웰빙 등 6개의 척도들이다. OECD는 이 척도들을 각 나라마다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항목은 모든 국가들이 동일하게 조사할 것을 권장한다. <표 II-2>는 OECD 주관적 웰빙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다.

<표 II-2> OECD의 주관적 웰빙 척도

영역	측정 항목
핵심항목 (Core measures)	전반적 삶의 만족도(0-10점) 전반적 자신의 삶의 가치 평가(0-10점) 어제 하루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0-10점): 행복, 걱정, 우울
삶에 대한 평가 (Life evaluation)	전반적 행복감(0-10점) 5년 전 삶에 대한 만족감(0-10점) 5년 후 삶의 만족도 예상(0-10점) 삶의 만족도(1-7점) -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나의 이상과 가깝다 - 내 생활의 조건들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 왔다 -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정서 (Affect)	어제 하루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0-10점) - 즐거움, 평온, 걱정, 슬픔, 행복, 우울, 화, 스트레스, 피곤, 웃음

(표 계속)

<표 II-2> 계속

영역	측정 항목
심리적 번영 (Eudaimonic well-being)	다음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1-7점) - 나 자신은 긍정적이다 - 나는 내 미래에 대해 늘 낙관적이다 - 나는 내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 나는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 대부분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성취감을 느낀다 - 내 인생에서 일이 잘못될 때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경험(0-10점): 에너지, 평온, 외로움
영역별 평가 (Domain evaluation)	삶의 영역별 만족도(0-10점) - 생활수준, 건강, 삶의 성취, 개인적 관계, 안전, 공동체, 미래안보, 시간사용, 지역 환경의 질, 직업만족도
경험된 웰빙 (Experienced well-being)	하루 일상재구성방법(daily reconstruction method)에 의한 경험(0-10점) - 정서: 행복, 평온, 분노, 슬픔, 고통, 피곤을 느낀 정도 - 상호작용: 특정 시간에 누군가와 상호작용 하였는지 여부, 누구와 상호작용 하였는지

출처: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삶의 질 연구는 다양한 개념을 만들면서 매우 방대한 연구 분야로 성장하여 왔다. 또한 삶의 질 연구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응용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회학, 심리학, 보건학 및 의학, 경제학, 마케팅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응용학문으로 확산되었다(Land, et al., 2012). 이론적으로 볼 때 삶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나누어 보는 이분법적 접근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삶의 질 개념을 도출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과거에 객관적 삶의 조건을 중시하던 독일의 대표적인 삶의 질 연구자인 Wolfgang Zapf를 비롯하여 네덜란드의 행복 연구자인 Veenhoven 등이 그 예이다(Beham, et al., 2006; Noll, 2002a; 한준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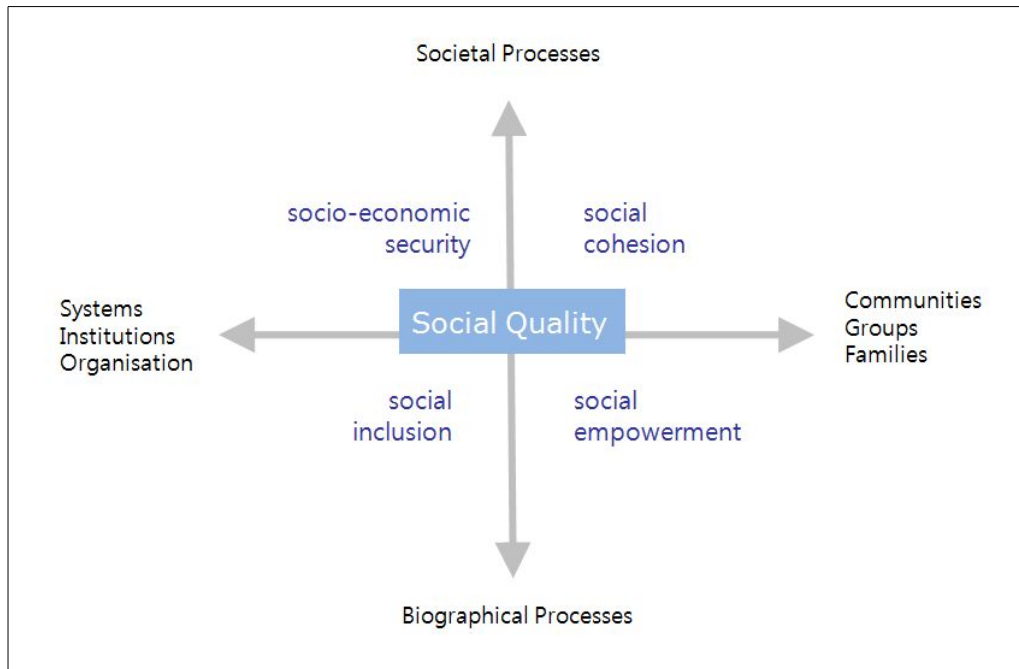
접근 방식이 객관적이던 주관적이던 간에, 삶의 질 연구는 분석 단위가 대체로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는 일관된 공통점이 있고, 사회적 수준의 관계성이나 국가수준의 거시적 측면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지표 연구자인 Noll은 최근의 삶의 질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개념을 활용한 사회적 수준의 삶의 질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삶의 질 연구의 하위 동향으로 보기도 한다(Noll, 2002a). 그러나 후자의 연구들을 삶의 질 연구에 모두 포함시키는 데에는 분석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후자의 연구들의 출발 배경이 기존의 삶의 질 개념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을 넘어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 대안적 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2) 사회의 질 연구

기존의 삶의 질 개념에 기반한 사회지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을 단위로 하는 접근으로서 사회적 관계나 구조적 요인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즉, 기존의 삶의 질 연구는 사회적 관계나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전제하고 개인들에게 미치는 객관적인 효과나 주관적 경험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이재열, 2009; 이희길·신지성, 2010).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 삶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와 인종으로 혼합된 유럽 여러 국가들의 삶의 질 문제에 중요한 요소로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연구가 등장하였다.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논의는 공공 정책 영역에서 사회정책(social policy)이 경제정책(economic policy)에 예속되어 온 전통에 대한 대응으로 촉발되었으며, 사회발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의 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원하는 유럽재단(European Foundation)이 추진하여 유럽 14개 국가의 대학들과 2개의 NGO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여기서 사회의 질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사회, 경제, 문화적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European Foundation 웹사이트). 이러한 잠재력의 실현은 사회 구성원 및 조직 간에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 그리고 비공식적 관계 및 공동체들과 공식적인 조직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 구조 속에서 사회의 질은 네 가지 기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데, 사회적 인정 또는 존중, 제도적 차원의 법질서·인권·정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의 개방성 정도, 그리고 개인의 참여역량이 그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들에 따라 사회의 질 향상의 기회가 결정된다. 첫째는 사회구조가 얼마나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지하는 구조인지, 즉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의 수준이다. 둘째는 제도나 집단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의 수준이다. 셋째는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지, 다시 말하면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의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가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의 수준이다(그림 II-1 참조).

[그림 II-1] EU European Foundation의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 틀



출처: European Foundation 웹사이트(<http://www.socialquality.org>).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네 요소 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공동체와 공식적 조직 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집단 간 조화와 균형이 부족할 때, 사회의 질의 네 요소 간에도 부조화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특정 집단이 배제된다면 사회적 포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응집성은 높지만 그것이 일차집단에 국한된 파당적이고 연고에 의한 응집성일 경우, 시민적 창의성과 같은 개인 역량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이재열, 2009).

사회의 질 연구는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이론적으로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지표나 삶의 질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사회적 관계를 지표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지표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석현호 외, 2012)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영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나.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발전지표 연구

(1)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는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인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에서 발간한 종합보고서 *Our Common Future*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동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UN, 1987).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의 정책의제(의제 21)로 채택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어떤 학자는 브룬트란트위원회와 리우선언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을 산업혁명이나 정보혁명과 같은 큰 변화의 물결이라고 보면서 ‘지속가능성 혁명’이라 부르기까지 한다(Edwards, 2005; Starik and Kanashiro, 2013).

그 후에 브룬트란트위원회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미래 세대’라고 할 때 그 미래는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미래인지,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며 필요로 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Drexhage와 Murphy(2010)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는 다음의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빈곤과 자원 문제에 있어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예방, 그리고 경제·사회·환경 요소 간 상호의존성과 통합이 그것이다(석현호 외, 2012). Starik와 Rands(1995) 역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대체 불가능성(irreplaceability),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수용력(carrying capacity) 등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 체제와 생태 체제의 탄력성(resilience), 미래상(futurity)의 개념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경제, 사회, 환경, 개인, 조직 등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균형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지속가능성의 범주가 이처럼 다차원적인 체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누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개념으로 느슨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은 “자연 자원의 서비스와 질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순 이익을 가져오는 것”, “자연 자원의 투입과 산출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 등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Bell and Morse, 2008).

이상의 정의들만을 보더라도 지속가능성 개념은 경제발전, 생태보존, 그리고 삶의

질 문제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제 또는 사회의 발전, 혹은 생태 보존 중 어디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속가능성은 강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 또는 약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의 두 개념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강 지속가능성이란,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떠한 비용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환경 보존의 문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반면에 약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의 보존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이득 계산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지속가능성은 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이 있고, 자원의 분배, 소비수준 등이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Bell and Morse, 2008).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의 다양성에서도 나타난다.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강 지속가능성 접근은 캐나다의 경제학자 Mathis Wackernagel과 William Rees가 개발한 환경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수(1996)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환경발자국은 개인이나 도시, 국가 등이 생태계가 재생해낼 수 있는 속도에 견주어 얼마나 빠르게 가용한 환경 자산을 소진시키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 GDP 등 경제적 지표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환경발자국이란 현재 인구가 현재 상태의 소비, 기술 발전, 자원 효율성을 유지할 때 필요로 하는 전 지구적인 평균 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 생태영향력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작물과 수목, 바이오 연료 등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 어업을 위한 해양 자원, 그리고 화석 연료로부터 분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분해시킬 만한 식물 자원을 위한 토지 등을 포함한다(이재열, 2009).

한편, 경제, 사회, 환경 요인의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 지수로는 신경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이 개발한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를 들 수 있다. 지구행복지수는 기대수명, 생활만족도, 환경발자국의 세 변수로 구성되고, 지수의 계산은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에 평균 기대수명을 곱한 값을 궁극적인 결과물로 하고, 1인당 탄소배출량을 생태영향력이라는 투입 요소로 측정한다(이재열, 2009).

서구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 사회, 환경 요소를 통합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정확히 경제, 환경, 사회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스위스의 지속가능지표(*MONET Indicators System*)도 크게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 환경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의 세 목표로 구성되고, 각각에 경제, 사회, 환경 지표들이 포함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크게 세대 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회응집력(social cohesion), 국제적 책임(international responsibility)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고 각각의 영역 안에 경제, 사회, 환경 지표들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스위스의 경우,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경제적 지표

에 GDP 대신 소득(income)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고, 해외공적원조(ODA)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써 독일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과 연대를 강조한다는 특색이 있다.

이전까지의 삶의 질 연구가 사람과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측면보다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에 치중하였다면,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연구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 지표 연구에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겠다.

(2) 국가발전지표 연구

1990년대 이후 여러 국가들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삶의 질, 웰빙,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수준의 지표 개발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1999), 뉴질랜드의 국가발전 측정지표(*Measuring Progress*)(2002), 호주의 국가발전측정지표(*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2002), 아일랜드 국가발전측정지표(*Measuring Ireland's Progress*)(2003), 영국의 국가웰빙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2010), 일본의 국가웰빙측정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2010) 등이 그 사례이다. 국가지표명의 다양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가지표들은 웰빙, 발전 등 그 지표가 지향하는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지표체계를 개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등장한 국가지표 개발에서 중요한 변화는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의 재조명이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와 같이 국가지표명에 발전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국가지표들도 있고, 미국의 국가주요지표(*Key National Indicators*)와 같이 지표명에 표기는 되지 않더라도 국가발전을 주요 개념으로 담고 있는 국가지표들도 있다.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발전(development) 개념을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발전 개념이 주로 경제적 발전에 초점이 있었던 것에 비해 2000년대 국가지표 차원에서 논의되는 발전(progress)은 국민 삶의 질 내지 웰빙, 경제성장,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 개념으로서의 국가발전을 의미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발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은 이른바 *Stiglitz Report* 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에 Stiglitz와 Sen을 각각 위원장과 고문으로 하고 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Arrow, Heckman, Kahneman), 프랑스의 경제학자 Jean-Paul Fitoussi, 그리고 미국, 프랑스, 영국의 저명한 사회과학자들과 OECD 통계 관련자들이 참여

하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구성하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GDP를 넘어서 진정한 국가의 발전을 나타낼 수 종합적인 지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대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적용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박명호 외, 2009). 이 요청에 따라 동 위원회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보고서」(2009)를 제출하였다. *Stiglitz Report* 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국가 발전의 종합지표를 경제적 성취,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통계 생산을 권고하고 있다(Stiglitz, et al., 2009).

먼저, 경제적 성취 개념을 재조명한 첫 번째 장에서는 현재의 복잡한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경제적 성취(economic performance)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요구한다고 전제한다. 첫째, 과거 시장 중심의 생산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웰빙 중심의 경제적 성취 개념의 정립이다. 이는 현재 시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예: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등)의 질(quality) 측정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빠른 변화를 동반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IT 기술, 연구 및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는 경제적 성취를 측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생산 개념에서 웰빙 개념으로서의 경제적 성취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또 다른 큰 변화는 투입(input) 요인에서 결과(output) 요인의 중요성으로 특히 정부의 공공서비스 결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강조한다. 오늘날의 정부는 의료, 교육, 주택, 스포츠와 여가, 등 국민의 웰빙 증진과 관련한 공공서비스를 생산한다. 예컨대 의료서비스의 경우, 과거 경제적 성취 개념인 ‘생산’ 위주의 투입 지표 측면에서 의사의 수를 강조하였다면, 사람들의 웰빙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보면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횟수가 더욱 중요하다.

Stiglitz Report 는 생산 중심에서 웰빙 중심,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의 지표 개발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성취 측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물질적 웰빙을 평가함에 있어서 생산보다는 소득과 지출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성취 측정에 있어서 가구 관점의 강조이다. 가구 관점은 가구와 정부 간에 오가는 세금과 사회보장, 가구와 금융기관 간에 오가는 부채와 이자 등 가구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경제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지표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셋째, 국민과 국가의 생활수준 측정에서 부(wealth)의 측정과 함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가구 수준에서는 가계, 국가 수준에서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측정으로 이는 지속가능성과 연동된 주제이다. 넷째, 소득, 지출, 부의 측정에 있어서 분배에 대한 지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평균값인데, 평균

소득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소득이 국민들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컨대, 평균 이상의 자산을 가진 하위소득 가구와 아무 자산이 없지만 상위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가구 간의 경제적 수준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가구경제 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과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 측정 지표를 비시장(non-market)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한다. 가사노동, 보육, 가족돌봄 등 가구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들은 생산과 국민계정에서 배제되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구매되는 경우에만 생산으로 포함되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간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생산 중심에서 웰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성취 지표는 전통적인 시장 영역뿐만 아니라 비시장 영역에서 행해지는 서비스와 생산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이 보고서는 강조한다.

Stiglitz Report 가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삶의 질에 대한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지표 개발 논의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삶의 질의 다차원성이다. 이 보고서는 기존의 삶의 질 관련 연구를 토대로 국가의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영역으로 8개의 주제를 제시하는데, 물질적 생활수준(소득, 지출, 부 등), 건강, 교육, 노동을 포함하는 개인의 활동, 정치적 목소리와 거버넌스, 사회적 유대와 관계, 환경, 경제적·신체적 안정성(불안정성) 등이 그것이다. *Stiglitz Report* 는 이러한 삶의 질 영역의 구성과 더불어 개념 및 방법론적 차원에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삶의 질 지표에서 객관적인 여건과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 교육, 개인 활동, 그리고 환경에 대한 지표들을 강조한다. 둘째, 모든 삶의 질 지표는 집단 간의 불평등 상황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서로 다른 삶의 질 영역들 간의 조화(예컨대, 한 영역에서의 발전이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을 수반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서베이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하며, 국민의 평가에 근거한 정책 개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넷째, 단일 지표를 넘어 영역 내지 전체 삶의 질 종합지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하고 지속적인 통계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지표 개발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관적 웰빙의 주요 개념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 평가(life evaluation), 즐거움(hedonic experience), 우선하는 가치(priorities) 등이다.

Stiglitz Report 의 마지막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중요 권고사항으로는 실용적(pragmatic) 접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정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가정과 규범적인 선택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표의 선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지표 개발에 있어서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하는데, 첫째는 개념적으로 잘 정의된 대쉬보드(dashboard) 접근 방식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현재의 주행 스피드와 연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하나의 미터기로는 표기할 수 없듯이 현재의 경제적 성취와 지속가능성을 한 지표에 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그 자체로 잘 정의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일종의 스톡 접근이 유용한데, 미래의 웰빙을 위해서 보존해야 할 스톡이 무엇인지, 모든 스톡의 보존을 요하는지, 아니면 일부 중요한 스톡의 증가가 더 필요한지 등에 대한 논의와 지표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에서 환경(environment) 지표, 특히 기후변화, 자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의 훼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Stiglitz Report*는 경제적 성취와 삶의 질, 그리고 이들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사회발전 개념을 이론적으로 상세히 논의하고, 이런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 개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지표 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예컨대, 영국의 국가 웰빙지표 연구에서 경제적 성취 개념이 주요하게 활용되었고, OECD가 웰빙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2011년에 개발한 *How's Life* 지표가 최근에 ‘웰빙과 발전’(Well-Being and Progress)이라는 개념으로 재조명되면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발전(progress)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OECD 웹사이트).

한국에서도 *Stiglitz Report*를 비롯하여 OECD 등에서 새롭게 조명되는 발전 패러다임을 포용한 국가발전지표 개발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박명호 외, 2009)가 그 최초의 시도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는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이라는 제목 하에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나라의 발전 정도는 경제, 사회, 환경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고, 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목표를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제 영역에서는 성장동력의 확충, 사회 영역에서는 사회통합을 영역 명칭으로 사용하고, 환경은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은 영역을 구성하는 주요 자본 및 기본 원리에 있어서 차별화되는데, 예컨대 성장동력 영역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 중심으로 구성되고, 안정적 성장과 산업경쟁력이 기본 원리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통합 영역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중심 자본으로 구성되며 역능성, 포용성, 투명성이 주요 작동 원리이다. 환경 영역은 자연자원이 중심 자본이며, 지속가능성이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개념 틀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발전지표는 3개 대분류, 5개 중분류, 34개 소분류, 49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동 연구에서는 지표에 대한 기초 DB를 구축하기보다는 각 영역별(소분류 수준에까지) 지수 및 종합지수를 산출하여 국제비교에 활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지표로서 지표수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비교를 위한 지수 개발에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의 「국가주요지표」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지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표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사회지표 연구에서부터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발전지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연구들은 한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국가지표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하고, 개인 수준, 사회적 관계, 거시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 스톡 자원 등 다층적 수준의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들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개발의 개념 틀을 정립한 후 지표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지표선정과 함께 지표 DB를 구축하였다. 「국가주요지표」의 체계와 지표 DB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 주요 국가지표체계의 검토

국가적 수준에서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및 국가발전 지표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과 UN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지표는 일찍부터 작성되었으나 다양한 유형의 지표들의 종합적이고 핵심적 요약 체제라 할 수 있는 국가지표의 작성은 이제야 본 연구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다. 이 연구의 과제인 「국가주요지표」의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지표의 핵심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발전, 국가발전 지표체계들의 선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영역과 하위영역의 구성 및 지표선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들의 지표체계들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 국정운영과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국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 국가들의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 및 하위영역, 지표체계 구축 과정, 지표체계 작성 및 추진 주체, 지표의 선정과 관리 방식, 결과물 제시방식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형식과 내용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표

(1) 삶의 질 지표

삶의 질 지표는 GDP가 갖는 한계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OECD와 EU와 같은 국제기구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구미의 선진국들에서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GDP는 국민생활요소 중 물질적 조건의 일부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 건강, 일, 여가와 문화, 사회연결망이나 지속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GDP와 같은 경제 지표를 넘어선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지표의 작성을 국내 및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들에서 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게 되었다. 특히, 2009년 스티글리츠위원회의 보고서(Stiglitz et al., 2009)가 나온 후 OECD가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였고, EU의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European Commission, 2009)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OECD의 *Better Life Index*는 OECD 가입국의 삶의 질 현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EU의 보고서는 GDP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의 질 지표에 대한 5개의 주요활동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국가들, 그리고 일본, 부탄,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삶의 질 지표체계가 구축되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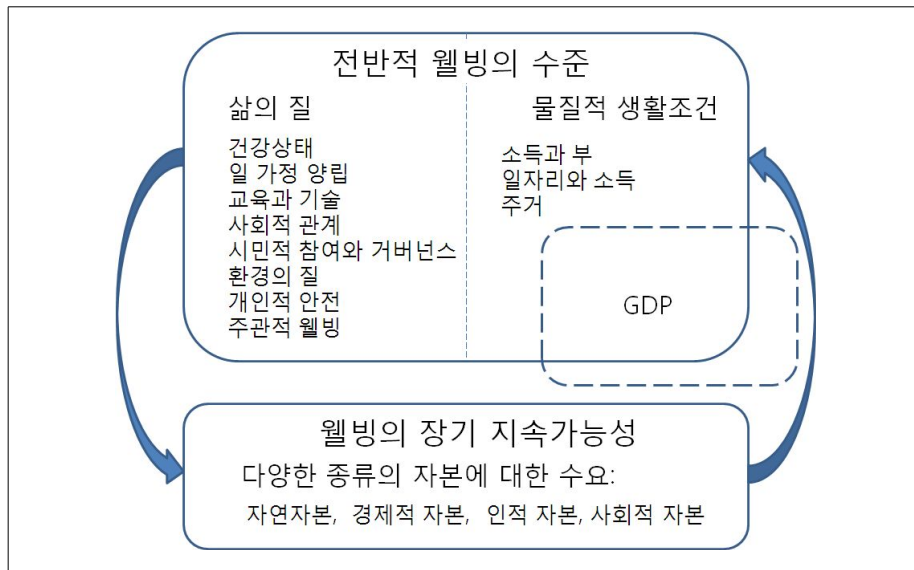
삶의 질 지표체계는 「국가주요지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 후속하여 이루어진 지표구축 사업들이 대부분 삶의 질 지표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주요지표」 체계도 이 지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OECD와 EU의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지표체계를 작성한 바 있는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부탄,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 OECD와 EU의 삶의 질 지표

OECD는 1995년부터 여러 국가들의 시계열적 변화와 국제비교를 가능케 하는 *How's Life Index* 라는 국제비교지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림 II-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물질적 생활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OECD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1년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웹기반의 *How's Life Index* 인 *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지표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망라한 11개 분야에 걸쳐 OECD 회원국들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한다. 특징적인 것은 웹사이트 방문

자가 스스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영역별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림 II-2] OECD의 *How's Life Index* 개념 틀



출처: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표 II-3>은 물질적 생활조건과 삶의 질로 구성된 OECD의 *How's Life Index* 지표 체계를 보여준다. 물질적 생활조건은 소득과 부, 일자리와 소득, 주거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각 영역 당 2-3개의 지표들이 포함된다. 삶의 질은 건강상태, 일가정 양립,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정, 주관적 웰빙 등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총 15개의 지표들이 있다.

<표 II-3> OECD의 *How's Life Index* 지표체계

부문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과 부	가구가처분소득, 가구 금융자산
	일자리와 소득	고용률, 장기실업률, 1인당 연평균 소득
	주거	1인당 방수, 기초설비를 결여한 가구
삶의 질	건강상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일가정 양립	장시간 노동자, 여가 및 개인 시간, 유자녀 여성근로자수
	교육과 기술	교육성취, 학생 인지능력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법제정 시 자문
	환경의 질	대기오염
	개인적 안정	살인율, 강도피해
	주관적 웰빙	생활만족도, 정서적 균형

출처: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표 II-4>는 EU의 European Statistical System Committee(ESSC)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표 DB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icators*)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9개의 영역과 2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지표에 포함된 영역은 물질적 생활조건, 생산 활동, 건강, 교육, 여가와 사회적 상호작용, 경제적 및 신체적 안전, 거버넌스와 기본 권리, 자연 및 생활 환경,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 등이다. 각 영역은 다시 2-3개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물질적 생활조건에는 소득, 소비, 물질적 조건 등 3개의 하위영역이 있고, 각 하위영역은 다수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4> EU의 *Quality of Life Indicators* 지표체계

영역	하위영역		
Material living conditions	Income	Consumption	Material conditions
Productive or main activity	Quantity of employment	Quality of employment	Other main activity
Health	Outcomes	Drivers: healthy and unhealthy behaviors	Access to healthcare
Education	Competences and skills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Leisure	Social interactions	
Economic and physical safety	Economic security and vulnerability	Physical and personal security	
Governance and basic rights	Institutions and public services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Active citizenship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Pollution (including noise)	Access to green and recreational spaces	Landscape and built environment
Overall	Life satisfaction	Affects	Meaning and purpose experience of life

출처: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quality_life/data).

EU의 삶의 질 지표체계는 스티글리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삶의 만족에 기여하는 생활여건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세 가지 지표군, 즉 종합지표(synthetic indicators), 일차지표(primary indicators) 및 보완지표(complementary indicators)로 구성해 놓았다. 종합지표는 삶의 질의 각 차원(또는 토픽)에 적합한 것들로서, 기본 지표들의 상관 정도가 아주 높을 때, 기본지표들의 합계를 통해 계산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기본지표라 함은 직접 측정된 원변수(raw variables)를 뜻한다. 따라서

기본변수들이 잠재적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가정이 종합지표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손실 없이 각 차원(토픽)에 적합한 제한된 수의 동질적인 종합지표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한 결과를 산출하면 ‘종합지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종합지표와 달리 일차지표는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특정 토픽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성을 가진 지표군이다. 일차지표는 서베이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직접 수집된 자료로부터 만들어진다. 일차지표들은 각각 특정 현상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합이나 합계로 산출되는 것이 없다. 동일한 토픽 내에서 여러 변수들 간 일관성이 낮을 때 각 변수의 측정자료가 일차지표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보완지표는 맥락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지표군은 개인이 아닌 집합적 수준에서만 이용 가능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국가 간 비교에 유용한 맥락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표 II-5>는 주요 국가들 삶의 질 지표체계를 개괄하여 정리한 것이다. 먼저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부터 살펴보자. *CIW*는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진보의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한 범국가적 지표사업으로 1999년 캐나다의 지도자, 전문가, 대중 등 각계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것이다. 현재 이 사업은 워터루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심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에 의해 수행되고, 여기에는 *CIW* 고문위원회(*CIW Advisory Board*), 국외전문가그룹(*International Advisory Network*), 연구자문위원회(*Canadian Research Advisory Group*), 학내그룹(*Waterloo Development, Communication*) 등이 외부네트워크로 참여하고 있다.

*CIW*는 2009년에 처음으로 생활수준(*Level of Living*), 건강한 인구(*Healthy Population*), 공동체 활력(*Community Vitality*) 등 세 영역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10년에는 다른 세 영역인 민주적 참여(*Democratic Engagement*), 시간 사용(*Time Use*), 여가와 문화(*Leisure and Culture*), 교육(*Education*) 영역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 *CIW* 사업이 워터루대학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영역 보고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영역별 삶의 질 지수와 종합지수를 발표하였다.

<표 II-5> 주요 국가의 삶의 질 지표체계

국가	영역	하위영역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생활수준	
	건강인구	· 기대수명/사망 · 정신 건강 · 건강관리서비스 · 생활양식 및 행위 · 개인적 웰빙 · 기능적 건강 · 육체적 건강 조건 · 공공보건
	공동체 활력	· 사회참여 · 사회적 지원 · 지역사회 안전
	민주적 참여	· 개인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 정부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 국제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레저 및 문화	· 시간이용 · 활동/참여 · 지출
	시간이용	· 근로연령기 성인 · 아동/청소년 · 은퇴 고령층
	교육	
	환경	· 공기 · 생물자원 · 비재생물질 · 담수 · 에너지
호주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Personal Wellbeing Index	· Health · Safety · Currently achieving in life · Future security · Environment · Personal relationship · Standard of living · Community connection · Spirituality/Religion ·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National Wellbeing Index	· Social conditions · Environment · Business · Economic situations · Government · National Security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ersonal well-being	
	Our relationships	
	Health	
	What we do	
	Where we live	
	Personal finance	
	The economy	
	Education and skills	
	Governance	
	The natural environment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People	· Population growth · Disability · Families and households · Age · Ethnicity · Maori wellbeing
	Economic Standard	· Living · Cost of living · Work life balance · Income · Net worth (assets and liabilities) · Social deprivation
	Economic Development	· Economic growth · Local business · Employment · Research and development · Residential and non residential building consents · Skilled migrants · Retail sales · Tourism
	Knowledge and Skills	·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Qualification levels · School participation · Career training · Skills and job match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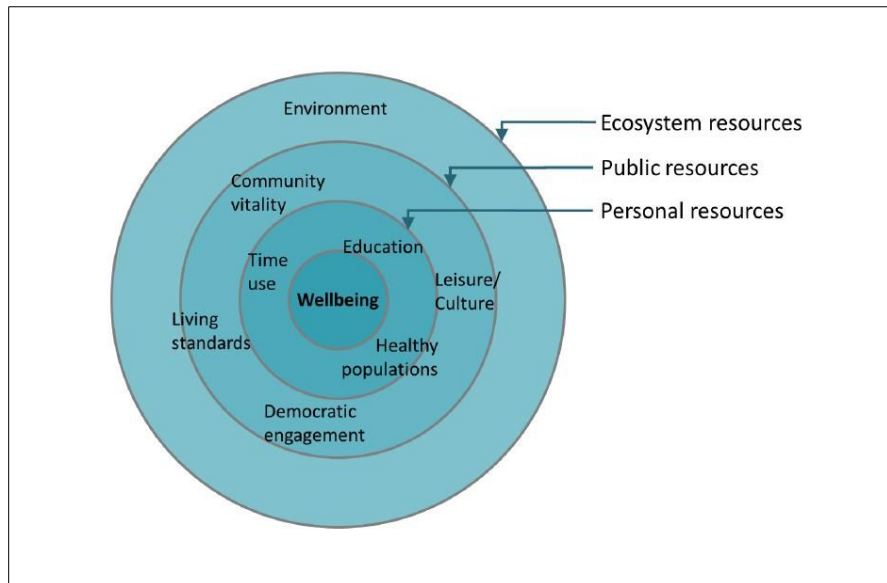
<표 II-5> 계속

국가	영역	하위영역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Housing	· type of home · owner-occupied or rented · number of rooms · surface area of the living room
	Health	· hindered in carrying out household activities · hindered in carrying out leisure-time activities
	Ownership of durable consumer goods	· number of household articles · amount of hobby equipment
	Socio-cultural leisure activities	· number of socio-cultural activities · number of hobbies · diversity of membership of societies
	Mobility	· possession of a car · possession of public transport season ticket
	Social participation	· voluntary work · social isolation
	Sports	· number of times doing sports per week · number of different sports
	Holidays	· been on holiday in past twelve months · been on foreign holiday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생활수준	
	교육	
	건강	
	문화	
	지역사회활력	
	생태 다양성 및 회복도	
	좋은 거버넌스	
	시간활용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Socio-economic conditions	· Basic needs · Parenting and Education · Social systems · Housing · Employment
	Health	· Physical health · Psychological health
	Relatedness	· Life style · Family ties · Bonding with community · Closeness to nature
	Sustainability	· Global warming issues · Air environment · Water environment · Biodiversity · Environmental risks from chemical substances · Material cycle

[그림 II-3]은 ‘웰빙 만다라’로 불리는 CIW의 개념틀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웰빙을 둘러싼 세 개의 원은 인간이 웰빙을 위해 사용하는 자원들을 의미한다. 웰빙의 만다라 중심에 가장 근접해 있는 원은 개인적 자원으로 시간사용, 교육, 건강 영역이 들어있다. 두 번째 원은 공적자원으로 공동체 활력, 생활수준, 여가 및 문화 및 민주적 참여를 포함하는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이고 가장 외부에 있는 세 번째

원은 생태체계인 환경으로 다른 원의 영역들에 기반이 되는 자원이다.

[그림 II-3]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개념 틀: 웰빙 만다라



출처: *Canadian Index of Wellbeing*(<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CIW*의 지표선정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내·외부 네트워크의 전문가 단체가 웰빙 모형을 설계하고 일반시민 및 이해당사자와의 공동회의를 열어 이 설계에 대한 조언을 받는다. 전문가 단체는 이들의 조언을 수용하여 모형을 수정한 뒤 일반시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피드백하여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보고서와 웹사이트(<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를 통해 공개되는데, 여기에는 이 프로젝트의 개념과 측정 틀에 대한 설명, 종합지수 및 영역별 종합점수(시계열), 각 지표의 개선과 퇴보의 표시인 대시보드(dashboard) 등이 포함되고 인구집단과 지역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CIW*의 결과들은 정부의 여러 부서 및 기타 기관에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다.

-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

*Australian Unity Wellbeing Index*는 Deakin 대학교의 호주 삶의 질 센터가 2000년부터 주관하여 작성하고 있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호주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들을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국민적 관심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지표는 호주 국민이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주고, 지역단체, 정부, 기업가, 정책결정자에게 신빙성 있는 삶의 질 수준을 알려주고자 고안된 것이다.

이 지표는 크게 개인 웰빙지수와 국가 웰빙지수로 구분되는데, 개인 웰빙지수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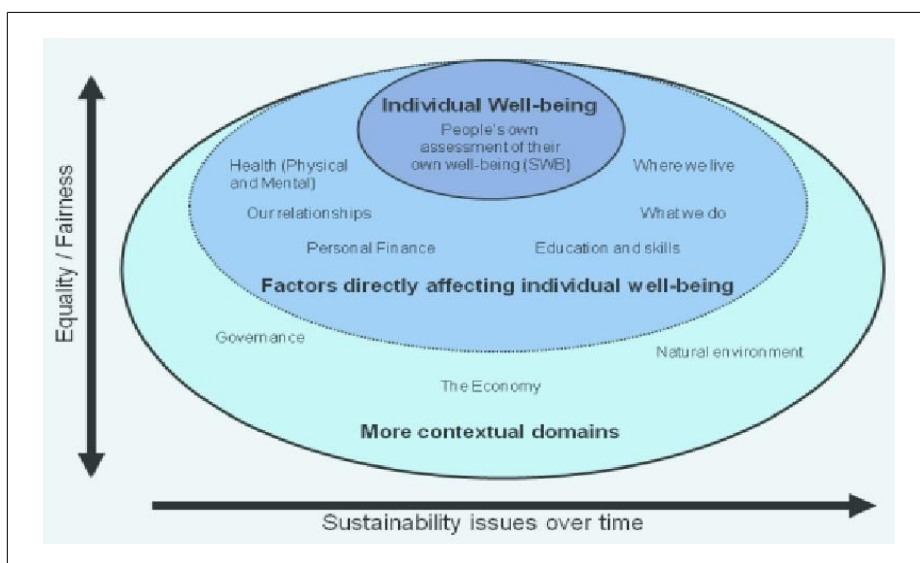
생활수준, 건강, 성취도, 관계, 안전,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미래의 안전, 정신적 만족 등이 있으며, 국가 웰빙지수에는 경제현황, 환경, 사회환경, 정부, 기업, 국가안보 등이 있다. 매년 2-3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각 영역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점수(Strength of Satisfaction)가 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보고서(*What makes us happy*, 2010)와 웹사이트(<http://www.australianunity.com.au/about-us/Wellbeing>)를 통해 공표된다. 지표값은 영역별로 시계열적 추이와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 등 하위집단별 삶의 질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제시된다. 특이한 점은 웹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가 개인의 웰빙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영국의 국민웰빙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MNW*)는 삶의 질의 실태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전문가, 시민, 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아 작성해오고 있다. *MNW*는 10개의 영역과 40개의 주요지표들로 구성된다. [그림 II-4]는 *MNW*의 개념 틀인데, 이는 국가적 웰빙과 개인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관련이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원은 개인적 웰빙, 즉 주관적 웰빙에 해당한다. 그 원을 감싸는 중간 원은 개인적 웰빙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인 건강, 관계, 교육 등의 영역이다. 가장 큰 원은 맥락적 영역으로 경제, 거버넌스 및 환경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II-4]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개념 틀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

MNW의 지표선정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되는 사항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통계여야 한다는 것, 정책관련성과 국제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 시계열적 비교와 하위 집단별로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지표의 구축 과정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현장공청회가 수시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장공청회는 전국적으로 175번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총 7,2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MNW의 결과물은 보고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Life in the UK, 2012*)와 웹사이트(<http://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를 통해 공개된다. 웹사이트에서는 각 지표 값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대화형 휠과 인구 하위집단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대화형 그래프, 그리고 지표의 값을 다양한 채도로 표현해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대화형 지도(map)가 제공된다.

-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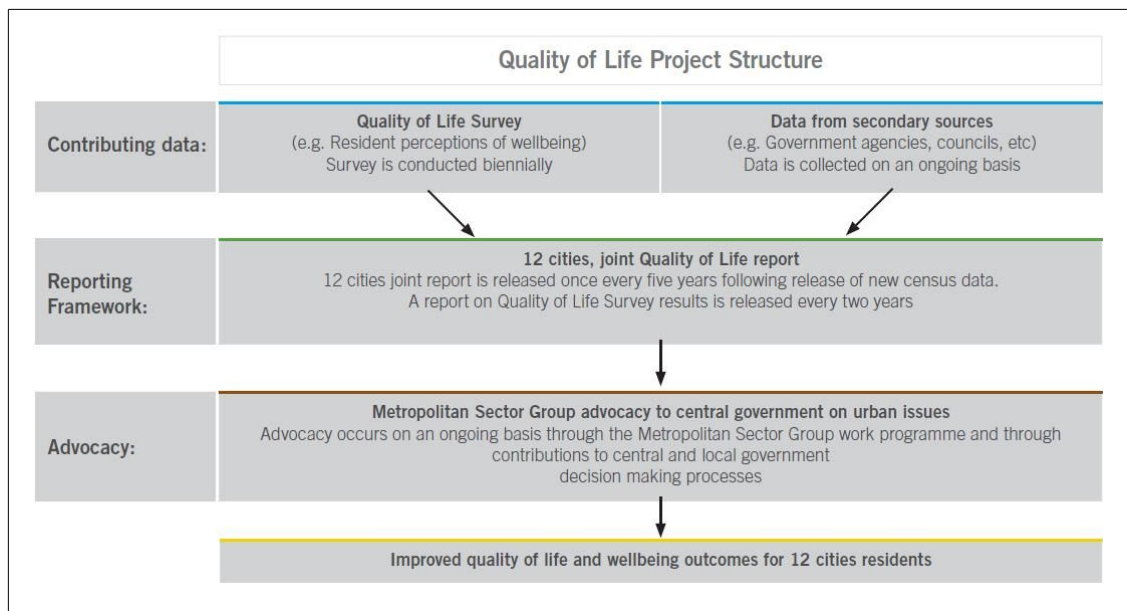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도 1999년에 웰링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의 시의회(City Council)가 협력해 삶의 질 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는 전국을 4개 행정지역 집단(metropolitan group, provincial group, rural group, regional group)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2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대도시 집단(metropolitan group) 중 웰링턴,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의 시의회가 삶의 질 연구팀(Quality of Life Research Team)을 만들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뉴질랜드의 삶의 질 지표는 4개 영역, 25개 하위영역, 68개 핵심지표, 168개 개별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은 국민, 경제적 수준, 경제발전 및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 국민 영역에는 인구성장, 연령, 장애, 민족, 가족과 가구, 마오리족 웰빙 등 6개의 하위영역이 있으며, 경제적 수준 영역에는 생활, 소득, 생활비, 자산과 부채, 일-생활 균형, 사회적 박탈 등 6개의 하위영역이 있다. 경제발전 영역은 경제성장, 연구개발, 지역경제, 기술이민자, 고용, 거주, 관광, 소매업 등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과 기술 영역은 유아교육 참여, 교육수준, 경력훈련, 교육참여, 기술과 직업매칭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표는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도시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삶의 질과 도시 문제에 관한 대도시 간 협력을 추구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삶의 질 지표체계가 도시 중심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5]는 뉴질랜드 삶의 질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정량화하고 관찰할 수 있는 지표와 영역별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DB를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2차 정보들이 활용된다. 이러한 지표 구축 과정에는 삶의 질 연구팀, 통계청, 영역별 전문가, 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표선정의 기준은 모두 10개인데, 이를 열거하면, 적실성(뉴질랜드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부분과의 관련성), 측정가능성(존재하는 자료로 정량화할 수 있는 가능성), 비용효과성(시간적,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성), 타당성(문제를 실질적으로 반영, 측정함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거나 논리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유효성 내지 타당성), 비교가능성(표준화할 수 있거나 비슷한 지표로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 이해용이성(단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구조로 표현 가능한 명료성 및 용이성), 대응가능성(변화하는 조건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 시의성(반복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흐름이 있는 시의성), 인구집단별 관찰 가능성(인구 속성 등에 의해 쉽게 분해, 분리되는 가능성), 선견 및 효과 가능성(이른 지표로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경고하거나 지난 시점의 지표로 효과 및 결과를 보이는 가능성) 등이다.

[그림 II-5]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 진행 과정



출처: *Quality of Life in Twelve of New Zealand Cities*(<http://www.qualityoflifeproject.govt.nz/report.htm>).

이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지표가 선정된 후 12개 도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12개 도시들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를 도모한다. 2003년 보고서가 발간되고, 실제로 대도시에서 교통, 경제발전, 안전, 공동체 웰빙, 쓰레기 처리가 중요 현안으로 규정된 바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보고서(*Quality of Life in Twelve of New Zealand Cities*)와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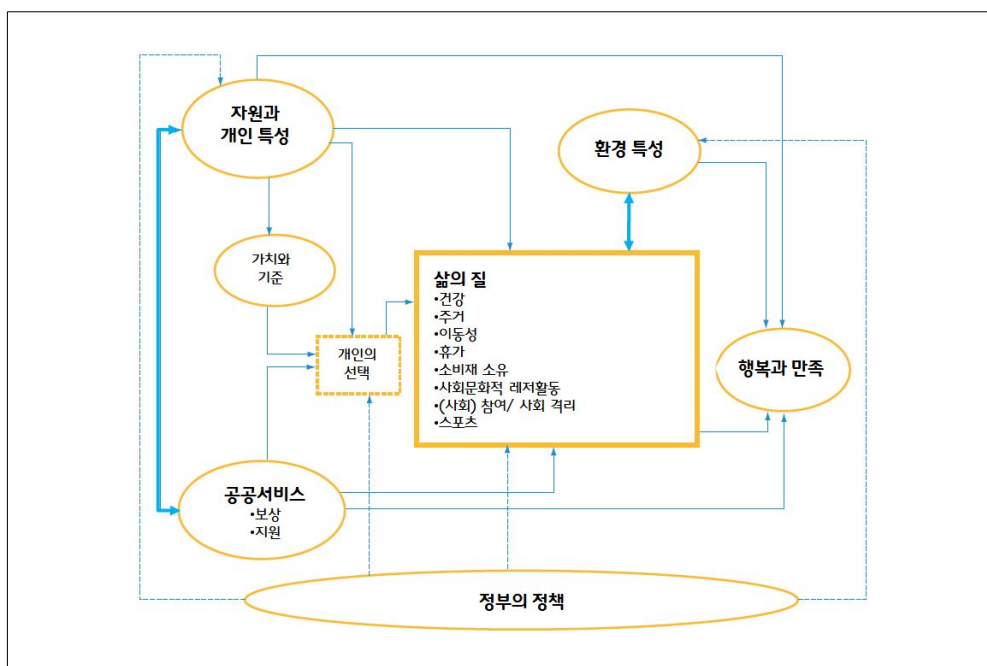
(http://quality_oflifeproject.govt.nz)에서 확인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는 관련 보고서들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표에 대한 대화형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 네덜란드의 *Life Situation Index*

네덜란드의 삶의 상황 지표(*Life Situation Index: LSI*)는 경제 발전, 소득 증가,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잘 지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계획된 것이다. *LSI*의 최우선 목표는 사회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의 원인을 알아내는 데 있다. *LSI*는 1974년 네덜란드의 연구소인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에서 개발되었으며, 국민들이 삶 속에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황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판단과 만족의 정도는 의도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제외되어도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SI*는 [그림 II-6]과 같은 개념 틀을 가지고 객관적인 상황의 설명을 시도한다. 이 개념 틀에는 삶의 질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 환경, 공공서비스, 주관적 행복 등과 같은 부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8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건강, 주거, 이동성, 휴가, 내구성 소비재 소유, 사회문화적 레저 활동, 사회 참여, 스포츠가 포함된다.

[그림 II-6] 네덜란드의 *Life Situation Index* 개념 틀



출처: *Wellbeing in the Netherlands*(http://www.scp.nl/english/Publications/Publications_by_year/Publications_2010/Wellbeing_in_the_Nether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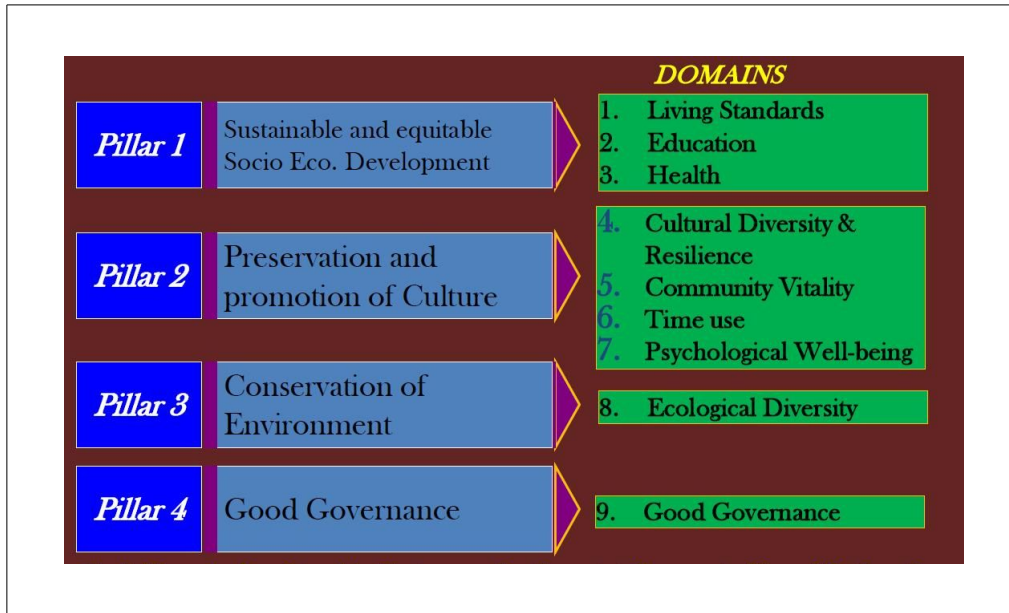
*LSI*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지표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 CBS)은 SCP와 협력하여 1974년 삶의 질 조사(*Life Situation Survey*)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1989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되었고, 그 후 1993년까지는 매년 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CBS에서 생활 여건에 대한 상시조사(*Permanent Survey on Living Conditions*)를 2년마다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2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사는 SCP가 수행하였다. 이렇듯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혼란이 있어서 시계열 분석을 하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LSI*는 몇몇 주목할 만한 삶의 질 변화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다. 네덜란드 *LSI*의 결과는 보고서(*Wellbeing in the Netherlands-The SCP life situation index since 1974-2010*)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웹사이트에서는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의 주거,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네덜란드인과 비교한 웰빙 수준도 측정 가능하다.

•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의 국민총행복지표(*Gross National Happiness: GNH*)는 부탄연구센터(The Center for Bhutan Studies)가 중심이 되어 작성된다. *GNH*는 문화적 전통과 환경 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부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1998년 Sigme Singye Wangchuck 부탄 국왕이 도입한 개념이다. 물질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정신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표를 통해 지역별, 계층별, 성별로 부탄 국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궁극적으로 각종 정부 정책이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GNH*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설문항목들로 구성된다. 각 항목들의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부분이 적으면 행복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GNH*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경제 발전, 문화 보존 및 촉진, 환경보존, 그리고 올바른 통치구조를 포함하는 4대 축과 9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영역들은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며, 그 안에 속하는 33개의 지표는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 가중치가 부여된다. 특히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함께 한 영역을 구성하는 경우 객관적 지표의 가중치가 주관적 지표보다 높다. 부가지표는 총 124개가 있다.

[그림 11-7] 부탄의 *Gross National Happiness* 지표체계



출처: *Gross National Happiness*(<http://www.grossnationalhappiness.com>).

GNH는 종합지수를 산출한다. 이는 각 항목별로 기준선을 정하고 기준선에 미달하는 비율, 즉 기준선 대비 현재 상황의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거리제곱(거리제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부분에 대하여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합산된 값을 1에서 빼주면 총행복지수가 만들어지는데, 세부지표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각 지표의 값은 대부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설문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상태, 기도 횟수, 명상시간, 이기심을 느끼는 횟수, 질투를 느끼는 횟수, 마을전통에 대한 이해 등 매우 주관적인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9년에 최초의 국민총행복지수가 산출되었다.

이 지표의 작성 목적은 단지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부탄 정부는 국민총행복지수의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부탄연구센터는 GNH의 작성에 집중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는 정부의 기획부서로서 국민총행복지수에 기초하여 GNH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이며, 재무성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10명의 장관과 국립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그 구성원들이다. GNH의 결과는 보고서(*An Extensive Analysis of GNH Index*)와 웹사이트(<http://grossnationalhappiness.com>)를 통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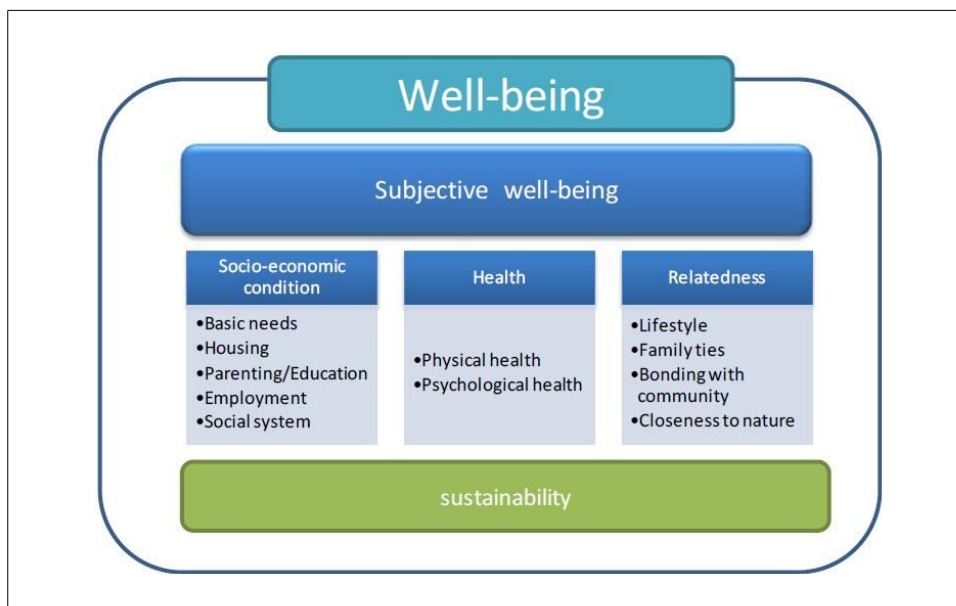
•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일본의 국민웰빙지표(*Measuring National Well-being: MNW*)는 내각부 웰빙측정위원회가 2010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 지표이다. 이 지표는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선되는 것은 무엇이고 악화되는 것은 무엇인지 관찰하고, 국민들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축된다.

이 지표의 구축을 위하여 웰빙측정위원회는 2010년부터 3차례의 웰빙연구회를 개최하여 2011년 12월 임시웰빙지표를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평가나 감정 및 지지 요인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생활의 질에 관한 패널조사」를 15세 이상 국민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그림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웰빙 지표체계는 주관적 웰빙,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관계성, 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 관계성은 주관적 웰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핵심 영역들이다. 사회경제적 조건은 기본적 욕구, 주거, 육아와 교육, 고용, 사회체계 등 5개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며,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등 2개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계성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은 모두 4개인데 라이프스타일, 가족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자연친화도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영역인 지속가능성은 조금 더 개념적인 영역인데, 여기서 기본 가정은 지속가능성이 현재의 웰빙에는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지만 미래의 웰빙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II-8] 일본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개념 틀



출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http://www5.cao.go.jp/keizai2/koufukudo/pdf/koufukudosian_english.pdf).

(2)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지표

사회의 질 지표는 삶의 질 논의에서 약화되거나 상실된 ‘사회’(the social)의 의미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국가적 수준에서 지표로 개발되어 공표된 경우는 드물고 아직은 연구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연구는 2001년 European Foundation on Social Quality의 주도 하에 유럽 14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사회의 질을 측정하는 자국의 지표를 구축해 보고한 것이 효시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존의 지표 체계와 구별되는, 그러나 이론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대안적 지표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지표체계를 구성하고자 했다고보다는 사회경제 정책이 사회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탐색적 목적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박주언 외, 2012).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van der Maesen과 Walker의 사회의 질 지표

van der Maesen과 Walker(2005)는 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95개로 제안한 바 있다. 그 네 가지 영역은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응집성, 그리고 사회적 역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리기 위한 객관적인 조건으로서의 금융자원, 주택과 환경, 건강, 일자리, 교육 등을 들고 있다. 사회적 응집성의 척도로는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연결망, 그리고 정체성을 들고 있다. 사회적 포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이고 사적인 서비스의 혜택, 그리고 사회연결망을 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역능성을 위한 조건으로 지적인 토대, 노동시장 참여,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접근권한, 그리고 개인적 관계 등을 들고 있다.

<표 II-6> van der Maesen과 Walker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영역	하위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	금융자원, 주택과 환경, 건강, 일자리, 교육
사회적 응집성	신뢰, 통합적 규범과 가치, 사회연결망, 정체성
사회적 포용성	시민권, 노동시장 참여, 공적 및 사적 서비스, 사회연결망
사회적 역능성	지적 토대, 노동시장 참여, 제도에 대한 접근, 개인적 관계

출처: van der Maesen and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ISSUE 1/2): 8-24.

• Wang의 사회의 질 지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사회의 질 지표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대만의 Wang(2009)과 한국의 이재열(2009)이 대표적인 예이다. Wang은 유럽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가 가진 영역과 하위영역을 그대로 따르면서 개별지표 수준에서의 아시아가 가진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부록 10 참조). 예를 들면, ‘부패’가 아시아의 맥락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사회적 응집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는 것, 유럽에서 중요시되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가 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 유럽에서는 투자나 공장 폐쇄, 기업의 이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참여하는 일이 빈번하고 노동자 평의회를 가진 기업이나 조직이 상당히 많은 반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두 대륙의 사회적 역능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이재열의 사회의 질 지표

이재열(2007)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의 한국 사회 변화를 일련의 사회의 질 지표를 구축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은 빈곤에서의 안전, 고용 및 산업안전, 주거환경과 안전성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응집성은 일반적 신뢰, 부패, 제도신뢰, 다원주의와 관용, 공동체적 가치 등으로,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통합성과 노동시장 통합성,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 등으로, 그리고 사회적 역능성은 사회문화적 역능성, 정치적 역능성, 경제적 역능성, 사회심리적 역능성 등으로 구분하여 총 30개 내외 지표로 그 변화를 측정했다(표 II-7 참조). 이 연구로 발견한 사실은 사회적 응집성의 차원에서는 부정적 변화가 압도적이거나 나머지에 분면 모두에서 긍정과 부정의 변화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박주언 외, 2012). 이재열은 이를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와 소속감은 급속히 소멸된 대신 일반적 행위와 공통의 규범을 뒷받침할 규칙에 대한 신뢰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전환기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표 II-7> 이재열의 사회의 질 지표체계

영역	하위영역
사회경제적 안전성	빈곤에서의 안전, 고용 및 산업안전, 주거환경과 안전성
사회적 응집성	신뢰, 부패, 다원주의와 관용,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통합성, 노동시장의 통합성, 사회적 관계의 연결성
사회적 역능성	사회문화적 역능성, 정치적 역능성, 경제적 역능성, 사회심리적 역능성

출처: 이재열, 2009. “사회 발전과 측정.” 『OECD 세계 포럼의 이해』.

이재열이 주도하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의 한 연구팀은 2011년에 한국의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의 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지역 사회 사회의 질은 제도역량, 시민역량, 건전성으로 구분되었다. 제도역량에는 복지, 교육, 문화, 의료 영역이 포함되고, 시민역량은 사회참여와 정치참여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 지표체계는 사회의 질을 국가 또는 전체 사회가 아닌 지역 수준의 문제로 그 지평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발전회의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부터 UN을 비롯한 World Bank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주도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내지 지속가능한발전을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어서 여러 국가들에서 지속가능환경지표 내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환경 문제에 한정되어 구축되는 지표이나 후자는 환경을 포함한 더 넓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속성을 개념 틀로 작성되는 지표이다.

과거의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주로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에 한정하여 산출되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의 차원까지 확대하여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 발전은 UN을 비롯한 World Bank,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주도되어 왔다.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1996년에 총 134개에 달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안한 바 있으며, World Bank는 1997년에 자연 자본, 생산된 자본, 인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복수자본모형(Multiple Capital Model)을 제안한 바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여러 국가들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표 II-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경지표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몇몇 국가들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거의 동일한 체계로 국가발전지표(National Progress Indicators) 내지 국가주요지표(Key National Indicators)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명칭의 국가지표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국가발전지표는 부문의 구성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표 항목의 구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는 환경지표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삶의 질 내지 웰빙 지표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먼저, 대표적 지속가능발전지표들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8>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	영역	하위영역
독일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tergenerational Equity	· Resource Conservation · Renewable energy sources · Species diversity · Innovation · Provision for future economic stability · Climate protection · Land use · Government debt · Education and training
	Quality of Life	· Economic output · Mobility · Farming · Air quality · Health and nutrition · Crime
미국 (Sustainable America)	경제	· 경제적 번영 · 재정상책임 · 과학적·기술적 진보 · 고용 · 주택 · 소비 · 형평성
	환경	· 천연자원상태 · 대기 및 수진 · 오염 및 유해물질 · 지구 기후변화 · 성층권 오존파괴 · 생태계 보전
	사회	· 인구 · 가족구조 · 지역사회발전 · 교육 · 공공안전 · 인류건강 · 평등 · 예술 및 레크레이션
영국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경제	· Economic prosperity · Long term unemployment · Poverty · Knowledge and Skills
	사회	· Healthy life expectancy · Social capital · Social mobility in adulthood · Housing provision
	환경	· Greenhouse gas emissions · Natural resource use · Wildlife: bird population indices · Water use
캐나다 (Canadia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conomy	· GDP · Consumer Price Index · Unemployment rate
	Social	· Average household spending · Personal expenditure on consumer goods and services · Distance driven by light vehicles · Asthma · Residential waste
	Population	· Population
	Energy	· Primary energy availability · Primary and secondary energy · Established reserve · Recoverable reserves · Electricity generati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Average farm pesticide expenditures · Greenhouse gas · GHG emissions per capita · GHG emissions by final demand · Value of selected natural resources · Air quality · Annual temperature departures

(표 계속)

<표 II-8> 계속

국가	영역	하위영역
뉴질랜드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 Population · Biodiversity · Air and atmosphere · Water · Land use · Energy · Transport · Waste · Innovation · Work, knowledge, and skills · Economic resilience · Living conditions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 Living conditions · Health · Social cohesion · International cooperation · Education and Culture · Research and Technology · Working · Economic system · Production and consumption · Mobility and Transport · Energy and Climate · Natural Resources

• 독일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세대 간 형평(Inter generational Equity)과 삶의 질 등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세대 간 형평은 자원보존, 기후보호, 재생가능한 에너지, 토지 이용, 종 다양성, 정부부채, 미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혁신, 교육과 훈련 등의 하위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삶의 질은 경제적 성과, 계층이동, 농업, 대기의 질, 건강과 영양, 범죄 등의 하위 영역들을 담고 있다.

• 미국의 *Sustainable America*

미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부문은 다시 경제적 번영, 재정상 책임, 고용, 과학적·기술적 진보, 주택, 소비, 형평성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된다. 환경 부문은 천연자원상태, 대기 및 수질, 오염 및 유해물질, 생태계 보전, 지구 기후변화, 성층권 오존파괴 등의 하위영역들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부문은 인구, 가족구조, 지역사회발전, 교육, 공공안전, 인류건강,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하위영역들을 담고 있다. 미국의 지속가능발전 체계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면서 세 부문 간 균형과 구분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어 국가정책지표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구성이다.

• 영국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구성되며, 68개의 지표들과 126개의 세부지표들을 담고 있다. 68개의 지표들 중에는 12개의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s)와 23개의 보조지표(supplementary indicators)가 있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는 각각 25개와 41개의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주요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 부문에는 경제적 번영, 장기실업, 빈곤, 지식과 기술 등이 있고, 사회 부문은 건강수명, 사회자본, 사회이동, 주택공급 등을 담고 있으며, 환경 부문은 온실가스배출, 자연자원사용, 야생동물(조류 개체수), 수자원 이용 등을 포함한다. 주요지표를 따로 지정한 이유는 사용자와 정부에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다.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목표에 영국 사회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 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이 지표들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그들이 삶의 각 측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측정 또한 포함된다.

- 캐나다의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캐나다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경제, 사회, 인구, 에너지, 환경과 자연자원 등 5개 부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부문은 다시 GDP, 소비물가지수, 실업률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 부문은 평균가구지출, 개인소비와 지출, 거주지 쓰레기, 경차이동거리, 천식 등의 항목들을 담고 있으며, 인구 부문은 인가지표만을 포함한다. 에너지 부문은 일차에너지 가용성, 일차 및 이차에너지, 기저장된 수자원, 회복가능한 수자원, 전력 생산 등을 담고 있다. 환경과 자연자원 부문은 온실가스, GHG 배출량, 연도별 온도 변화, 자원자원의 가치, 해충제 사용, 대기의 질 등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뉴질랜드의 국가발전지표(*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지표로 분류하였다. 이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의 필요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발전”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최저 수준 위에서 웰빙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공평성과 현재와 미래 간 균형의 원칙이 환경, 경제, 사회 자원들을 이용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국가발전지표는 인구, 교통, 생물다양성, 폐기물, 대기와 기후, 혁신, 물, 직업·지식·기술, 토지이용, 경제적 유연성, 에너지, 생활여건 등의 영역들로 구성된다. 각 영역은 5-6개의 핵심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핵심지표의 수는 총 84개이다.

- 스위스의 *MONET Indicator System*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2000년대 초반에 스위스 통계청(SFSO), 스위스 주거개발연방사무소(ARE), 스위스 연방환경국(FOEN)의 협력과제로 만든 *MONET Indicator System* 이다. MONET는 독일어로 ‘지속가능발전을 관찰함’의

뜻을 가진 단어들의 머리글자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다. 스위스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MONET의 목표이며, 그 목적은 현재의 정책을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MONET Indicator System*에는 17개의 주요지표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여건, 교육과 문화, 생산과 소비, 건강, 연구와 기술, 사회통합, 노동, 이동과 교통, 국제협력, 경제체계, 에너지와 기후, 자연자원 등이다.

(4)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지표

국가지표의 마지막 검토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에 가장 많은 참고가 된 호주(*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아일랜드(*Measuring Ireland's Progress*), 스코틀랜드(*National Indicators*), 미국(*Comprehensive Key Indicator System of USA*)의 국가발전지표를 개관해 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경제, 사회, 환경의 삼각편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 영역들도 국가 간 유사성의 정도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표 II-9>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발전지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표 II-9> 주요 국가의 국가발전지표

국가	영역	하위영역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Economy	· Opportunities · Jobs · A sustainable economy · International economic engagement · Prosperity · A resilient economy · Fair outcomes
	Society	· Health · Home · Close relationship · Community connections and diversity · Learning and Knowledge · Safety
	Environment	· Health natural environment · Protecting the environment · Healthy built environment · Appreciating the environment · Sustaining the environment
	Governance	· Trust · Participation · People's rights responsibilities · Effective governance · Informed public debate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 Economy · Innovation and technology ·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Social cohesion · Education · Health · Population · Housing · Crime · Environment

(표 계속)

<표 II-9> 계속

국가	영역	하위영역	
스코틀랜드 (National Indicators)		· Economic Growth · Participation · Solidarity · Sustainability	· Productivity · Population · Cohesion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s)	경제	· 경제적 번영 · 재정상 책임 · 고용 · 과학적·기술적 진보	· 주택 · 소비 · 형평성
	환경	· 천연자원상태 · 대기 및 수질 · 오염 및 유해물질	· 생태계 보전 · 지구 기후변화 · 성층권 오존파괴
	사회	· 인구 · 가족구조 · 지역사회발전 · 교육	· 공공안전 · 인류건강 ·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호주의 국가발전지표(*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MAP*)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주관 하에 2002년에 시작되었다. MAP은 호주 국민의 삶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progress), 그리고 삶의 수준의 발전이 미래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에서 호주 통계청이 시행한 2000년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에 첫 보고서가 출간되고, 뒤이어 2004년과 2006년에 주요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매년 호주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 MAP은 4개의 영역과 26개 주제, 120개의 요소로 재구성되었다. MAP 구축을 위해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2011년까지 여러 번의 자문회의 및 지역 워크숍을 실행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호주 국민이 열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과정은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다시 연방정부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워크숍을 통해 자문하였고 시민과의 대화는 블로그, 라디오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여기에 각 영역 전문가 등이 의견이 포함되었다. 호주의 국가발전지표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재정립되었다.

발전(progress)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둔다는 점이 호주 MAP의 특징이며, 궁극적으로 MAP은 정부와 지역공동체에서 입안된 정책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증거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장려하며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의 국가발전지표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

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영역 간의 상호 영향력(transaction)을 강조한다. 경제 부문은 기회, 일자리, 지속가능한 경제, 국제경제, 번영, 역동적 경제, 공정한 결과 등의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부문은 건강, 가정, 배움과 지식, 관계, 안전, 공동체 연결과 다양성 등의 영역을 담고 있다. 환경 부문은 건강한 자연환경, 환경에 대한 이해, 환경보전,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환경, 함께 일하기 등의 영역들로 구성되며, 거버넌스 부문은 신뢰, 효과적인 거버넌스, 참여, 공론, 권리와 책임의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다.

MAP은 국가사회가 나아가는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의 양상을 교통신호처럼 대시보드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의 변화가 집적된 데이터와 지표의 변화로부터 긍정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노란 색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변화로 해석될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 있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 아일랜드의 *Measuring Ireland's Progress*

아일랜드의 국가발전지표(*Measuring Ireland's Progress: MIP*)는 국가통계위원회(National Statistics Board)가 통계청에 '정책적 필요에 맞는 아일랜드의 사회 및 평등 통계 개발'(*Developing Irish Social and Equality Statistics to meet Policy Needs*) 보고서에 포함될 국가지표의 예비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국가통계위원회가 '2003-2008 통계전략'(*Strategy for Statistics*)에서 주요지표가 필요하다고 다시 통계청에 요청하면서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통계청이 *Measuring Ireland's Progress*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MIP은 10개 영역, 49개 하위영역, 10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MIP의 영역은 경제, 건강, 혁신과 기술, 인구, 고용과 실업, 주거, 사회통합, 범죄, 교육, 환경 등을 포함한다. 전체 지표들 중 반 이상이 사회 영역(건강, 인구, 고용과 실업, 주거, 사회통합, 범죄, 교육)에 속해 있으며, 이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적 결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지표들은 전국적 수준에서 측정되며, 국제비교의 맥락 또한 고려된다. 국내적으로는 시계열 분석과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는 다른 EU 국가들, EFTA 국가들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위스, 그리고 EU에 가입을 원하는 세 나라인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및 터키와의 비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 스코틀랜드의 *National Indicators*

스코틀랜드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s*)는 국가 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가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된 것이다. 따라서 포함된 지표들은 모두 성과와 목표의 성취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다. 궁극적으로 스코틀랜드 국가지표는 보다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스코틀랜드의 달성을 향해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스코틀랜드 국가지표는 7개의 영역과 17개 국가적 성과, 그리고 50개의 주요지표들로 구성된다. 지표 영역은 경제성장, 생산성, 참여, 인구, 사회적 연대, 통합 및 지속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적 성과는 정부가 향후 10년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나타내며, 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우선 고려해 만들어진다. 국가적 성과에는 기업, 고용, 연구와 혁신, 청소년, 어린이, 보다 건강한 삶, 불평등, 어린이·청소년·가족, 범죄,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공동체, 환경, 국가정체성, 환경적 영향,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 미국의 *Key National Indicators*

미국의 국가주요지표(*Key National Indicators: KN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KNI는 미국 의회가 국가주요지표위원회(Commission on Key National Indicators)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이 사업에는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The State of America(SUSA) 및 미국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03년에는 미국회계감사원이 미국과학아카데미와 함께 회계, 사업, 교육, NGO, 정치, 노동, 미디어 등과 같은 분야의 전국 지역공동체 대표들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2010년 3월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of 2010)의 의회 통과와 더불어 미국과학아카데미가 국가주요지표체계를 작성토록 하고, 의회에서 지정한 8명의 멤버가 국가주요지표위원회를 이끄는 형태의 법안이 제정되었다. 또한, 이 위원회가 국가주요지표체계를 지휘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해 권고를 제시하며 좋은 품질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학아카데미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회에 국가주요지표체계 보고서를 매년 제공토록 하였다.

KNI는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부문은 다시 경제적 번영, 재정상 책임, 고용, 과학적·기술적 진보, 주택, 소비, 형평성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된다. 환경 부문은 천연자원상태, 대기 및 수질, 오염 및 유해물질, 생태계 보전, 지구 기후변화, 성층권 오존파괴 등의 하위영역들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부문은 인구, 가족구조, 지역사회발전, 교육, 공공안전, 인류건강,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등의 하위영역들을 담고 있다. 미국의 국가주요지표체계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면서 세 부문 간 균형과 구분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어 국가정책지표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구성이다.

(5) 주요 국가의 지표작성 기관과 지표선정 기준

지금까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국가발전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여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도 관련 지표들이 작성된다(김석호, 2013). 영국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소개한 MNW 외에 민간기관에서 작성하는 삶의 질 지수도 있다. 이들을 포함하여 각각의 지표작성 추진주체를 살펴보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주요 국가의 지표작성 기관

기관 유형	국가별 지표과제	지표작성 기관
통계청	영국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영국 통계청
	호주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호주 통계청
	아일랜드 Measuring Ireland's Progress	아일랜드 통계청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오스트리아 통계청
위원회	일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내각부 웰빙측정 위원회
	독일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	의회 조사위원회
	미국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	의회 KNIS 위원회
기타 정부기관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	부탄연구센터
	뉴질랜드 Quality of Life Project	참여 시 의회의 통합 삶의 질 연구팀
	벨기에 WellBeBe	연방과학정책국
통계청 및 정부기관	핀란드 Findicator	통계청, 총리실
	이탈리아 BES	이탈리아 통계청, 경제와 노동 위원회
	스위스 MONET	스위스 연방통계청, 연방환경국, 연방 주거개발국
국책기관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네덜란드 사회연구원
민간기관	영국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	The NEF
	호주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	Australian Unity, Deakin 대학 Quality of Life 센터
	캐나다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워터루대학 내 CIW 네트워크
	홍콩 Quality of Life Index	홍콩중문대학 삶의 질 센터

해외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종 지표체계들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국가주요 지표」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첫째, 지표작성 주체의 문제 또는 통계청의 역할 문제이다. 삶의 질 지수체계 작성의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부 주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통계청, 위원회, 나머지 정부기관, 통계청과 정부기관의 협력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이 단독으로 삶의 질 연구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가 있다. 반면,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 통계청과 다른 정부기관(총리실, 위원회, 환경국 등)이 협력하여 지표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정부에서 위원회를 설립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독일의 경우 2010년 정부에서 2년의 단기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민간기관의 연구는 연구소, 대학, NGO 또는 이들의 협동으로 진행된다. 캐나다의 CIW는 워터루대학의 응용보건학부를 중점으로 한 CIW 네트워크 그룹에 의해 삶의 질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홍콩의 *Quality of Life Index* 역시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의 *Australian Unity Well Being Index*는 Deakin 대학 내 호주 삶의 질 센터와 Australian Unity로 불리는 보험서비스단체의 협력과제로 운영된다. 영국의 *National Accounts of Well-Being*은 비정부기구인 The New Economics Foundation (NEF)가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별로 다양한 추진주체가 삶의 질 연구를 수행한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통계청의 역할이다. 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스티글리츠위원회에서는 “통계청은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종합 측정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Stiglitz et al., 2009). 가령 캐나다의 CIW와 네덜란드의 LSI는 각 국가의 통계청이 수집한 자료로 지표가 정리된다. 통계청과 정부소속위원회의 협력과제인 이탈리아의 BES에서 통계청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지표를 평가 및 분석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지표를 선정하며 지수를 작성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에서 통계청은 삶의 질 연구팀과 같이 일하면서 척도와 지표의 핵심 틀을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 문제는 지표작성 주체와 관련된 운영 거버넌스와 지표선정 절차의 문제이다. 이러한 지표작성 주체의 문제는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작성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표 II-1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에서 지표작성은 통계청, 정부 부처 및 기구, 민간 연구소,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사업도 이들처럼 정부와 민간기구 내지 전문가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표를 선정하는 절차는 Top-down approach, Bottom-up approach, Hybrid approach로 구분될 수 있다(김석호, 2013). Top-down 접근은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작성한다. 많은 국가에서 Top-down 접근을 택하고 있는데(부탄, 뉴질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주로 정부기관과 전문가 또는 통계청과 전문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Bottom-up 접근은 시민, 지역사회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전문적 배경이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에 지표의 논리적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된다는 단점과 미래에 야기될 큰 이슈들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지표선정 방법은 Hybrid 접근과정으로 Top-down 방식을 통해 설정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표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Hybrid 접근과정을 이용하여 지표를 선정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호주의 MAP은 2009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하여 2011년까지 여러 번의 자문회의 및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호주 국민이 열망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는 블로그, SNS 등을 통하여 진행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얻어진 의견은 다시 연방정부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다듬어지고 정리되었다.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구축도 전문가 기반의 Top-down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시민, NGO 등을 참여시킨다면 국내 상황을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전문가 심포지엄, 공청회(public forum), 워크숍, 여론조사, SNS, FGI, 블로그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1> 주요 국가의 지표작성 방식과 참여자

국가	지표과제	지표작성 방식	지표 결정자 및 참여자			
			통계청	정부기관	학자/전문가	NGO/시민
영국	MNW	Hybrid	◎	○	○	○
호주	MAP	Hybrid	◎	○	○	○
아일랜드	MIP	Top-down	◎			
오스트리아	How's Austria	Top-down	○		◎	
일본	MNW	Hybrid		◎	○	○
독일	W3	Top-down		◎	◎	
미국	KNIs	Hybrid		◎	○	○
부탄	GHN	Top-down		◎		
뉴질랜드	QoL Project	Top-down	○	◎	○	
핀란드	Findicator	Hybird	◎	○	○	○
이탈리아	BES	Hybrid	◎	○	◎	○
스위스	MONET	Top-down	○	○	◎	
네덜란드	LSI	Top-down		◎	◎	
캐나다	CIW	Hybrid	○	○	◎	○

주: 결정자는 ◎, 참여자는 ○로 표시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지표선정 기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기준이 공표된 국가 및 기구의 기준을 모아 중복되는 항목을 검토한 결과, <표 II-12>와 같이 3

개의 기준(자료의 질, 타당성, 중립성)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료의 질에는 신뢰성, 인구집단별 분석가능성, 시계열 축적여부 등 지표를 구축하는 자료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로 자료의 타당성에서는 지표의 타당도, 이해용이성, 일관성 및 포괄성 등 사용 지표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중립성은 지표가 정치적으로 편견이 없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국가주요지표」의 영역 구성과 지표선정에 훌륭한 판단 기준이 될 만하다.

<표 II-12>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지표선정 기준

지표선정 기준		OECD BLI	EU Common Indicator	호주 MAP	캐나다 CIW	영국 MNW	뉴질랜드 QoL Project
자료의 질	신뢰성		○		○	○	○
	인구집단별 분해가능성			○		○	○
	시계열 축적	○		○	○	○	○
	국제비교	○	○			○	
	시의성		○	○	○		○
	이용가능성		○		○	○	○
자료의 타당성	타당도	○	○	○	○	○	○
	이해용이성		○	○	○		○
	방향의 명확성	○		○	○		
	일관성 및 포괄성	○			○		
	사회/정책 민감성	○	○	○	○	○	○
	산출에 초점	○		○	○	○	
중립성	정치적 편견이 없음		○		○		

나. 한국의 주요 지표

(1)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변화와 삶의 질을 파악하여 각종의 사회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국가지표 보고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는 변화하는 사회 상황과 국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7-9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개편되었다. 2012년에 이루어진 가장 최근의 개편작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작성해 오던 삶의 질

지표에 부가하여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 지표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II-13>은 2012년 개편된 「한국의 사회지표」의 영역과 하위영역을 보여준다. 2012년 개편 작업에서는 「한국의 사회지표」를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 4-7개의 하위영역을 두었다. 각 하위영역은 다시 세분화된 지표들로 채워졌다. 개편 시 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의 선정에는 각각이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차원과의 관련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고려되었다.

<표 II-13> 「한국의 사회지표」의 영역과 하위영역

영역	하위영역
인구	총인구, 인구구성, 출생, 사망, 인구 분포와 이동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시스템
가구와 가족	가족 및 가구 구성, 가족형성, 가족생활, 가족규범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노동	인적자원, 취약계층, 취업현황, 임금, 근로자의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득과 소비	소득,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및 투자, 조세와 재정
주거와 교통(주거)	주택공급·관리, 주택시장, 주거상황, 주거의 질
주거와 교통(교통)	교통시설, 교통체계, 교통비용, 교통복지, 교통환경
환경	오염물질배출, 자연자원이용, 생활환경, 생태환경, 환경관리
안전	자연재해, 안전사고, 안전의식과 평가, 범죄, 형사사법활동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생활의 기반, 문화예술활동, 여가체육활동, 미디어활동
사회통합	정치참여, 사회참여, 역능성, 사회적소통, 신뢰, 관용성, 사회보장

출처: 석현호 외,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기본체계의 개편』.

「한국의 사회지표」는 영역들과 그 하위영역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조건(condition), 투입(input), 결과(output)라는 논리적 완결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하위영역의 선정은 해당 상위영역의 현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일반 국민이 사회지표의 간결한 통계 수치를 보고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수준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교육 영역에서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등으로 하위영역이 구성된 것은 완결적 논리구조의 좋은 예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과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 영역에서 정책적 투입과 결과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하위영역이나 지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족 영역의 지표들 가운데 현재의 중요한 국정과 관련된 지표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사회통합 영역의 정치참여, 사회

참여, 역능성, 사회적 소통, 신뢰, 관용성 지표들도 그렇다. 따라서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라는 국가정책지표 구축 원칙의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지표」를 평가한다면 한국 국민의 생활 전반과 사회발전의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이들 지표들이 직접적으로 국정운영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사회동향」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민의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각 부문별 변화 양상을 통계로 보여주기 위해 통계청에서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서술형 보고서이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국민의 삶의 질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을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영역의 주요 변화와 보고서 발간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영역별로 2-3개씩 선정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2008년 창간 당시 인구,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의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가 2009년부터는 복지와 환경 영역을 다른 인접 영역으로 편입시켜 2년간 10개 영역 체제로 출간되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는 10개 영역 모두를 포함시키지 않고 절반의 영역들로만 구성하여 출간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환경 영역을 포함한 전체 11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출간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한국 국민의 삶의 변화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사회동향」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표와 이슈들은 사회정책의 결과(output)에 해당한다. 국가정책지표는 각 영역의 정책적 토대 즉 투입, 운용과정, 그 결과로서 산출을 두루 포괄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동향」과 같은 지표체계는 국정운영 및 정책 지표로는 불완전하다.

(3)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정 전반에 걸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시작한 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와 「한국의 사회동향」이 삶의 질 배분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e-나라지표」는 국정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구축한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e-나라지표」는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등의 대분류들로 구성되며, 총량지표는 4개, 경제는 18개, 사회는 11개, 문화는 4개, 정부

는 5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중분류는 다시 1-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며, 각 소분류는 복수의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표 II-14 참조).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및 정부 분야별로 단위지표에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표체계의 최종단계인 각 세부지표마다 지표를 관리하는 책임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즉 「e-나라지표」는 국정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총량지표는 국토/인구, 행정일반, 자치행정, 공동체 등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경제는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산업동향, 공정거래, 중소기업, 건설, 부동산, 교통, 해양, 농업, 임업, 어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조달, 특허, 기상 등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사회는 복지, 보건, 환경, 노동, 교육, 보훈, 여성/가족, 청소년, 경찰, 해양경찰, 재난안전 등의 중분류들을 담고 있다. 문화는 문화/예술/산업, 관광, 체육, 문화재 등을 포함하여, 정부는 외교, 통일(남북), 국방, 병무, 법무 등을 포함한다.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발전, 사회진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두었을 때 「e-나라지표」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e-나라지표」를 구성하는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부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각 대분류의 중분류, 소분류, 지표들을 살펴보면, 문화와 정부에 속하는 대부분의 중분류, 소분류, 지표들은 경제나 사회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가령, 정부는 외교, 통일(남북), 국방, 병무, 법무 등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다시 외교는 외교일반, 통상협력, 재외국민/영사, 국제협력, 국제교류, 통일(남북)은 통일일반, 남북교류, 국방은 국방일반, 방산/군수, 군인복지, 국제협력, 병무는 병무일반, 입영, 법무는 송무/공판, 법조인력, 보호/관찰/교정, 범죄, 출입국 등의 소분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법무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사회로 이동해야 하며, 외교의 통상협력은 경제 부문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정운영 및 정책의 수립과 평가와의 관련성이 낮은 지표들은 삭제해야 한다. 외교, 통일, 국방, 병무에 포함된 대부분의 지표들은 남북회담 건수처럼 지표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중요 국방통계의 대부분은 국가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지표로 작성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셋째, 총량지표로 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대부분이 지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총량지표에 수록된 중분류는 국토/인구, 행정일반, 자치행정, 공동체 등인데, 이들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은 현재 정부조직의 구조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 어떤 지표적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국가지표는 그 증가와 감소에 따른 정책적 함의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황 중심의 지표들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국정운영과 정책의 효과성을 따지기에는 부적합하다.

넷째, 국가지표가 국가발전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지향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경제발전, 사회진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기존 대분류를 경제, 사회, 환경으로 단순화하고 국정운영 및 정책적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실 「e-나라지표」에서 경제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상 관련 지표들은 경제지표가 아니라 환경지표이다. 대분류 경제 및 사회와 더불어 환경이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와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 지표들이 누락되거나 새로 생산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신규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표 II-14> 「e-나라지표」의 분류체계

대분류 (5)	중분류 (42)	소분류 (167)	지표수 (717)
총량지표	국토/인구	국토현황/이용, 수도권현황, 지역현황, 인구구조, 인구변동	11
	행정일반	정부조직, 공직채용/지원, 전자정부, 고충민원, 청렴/부패, 정보공개	21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지방재정	15
	공동체	사회참여	1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경기동향, 물가동향, 고용동향, 대외거래, 외환, 대외신인도	23
	금융	금융일반, 대출시장, 자본시장, 보험시장, 금융건전성	33
	재정	재정일반, 분야별재정규모, 기금/공적연금, 민간투자, 국세, 관세	49
	산업동향	무역투자일반, 산업일반동향, 개별산업동향, 에너지/자원	30
	공정거래	경쟁정책, 대기업시책, 중소기업보호시책, 소비자보호시책	7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혁신형 중소기업현황, 창업벤처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소상공인/재래시장	12
	건설	도시, 도로, 수자원, 건설경제/기술	25
	부동산	건축, 주택, 토지	20
	교통	교통/물류, 철도, 항공, 육상교통	15
	해양	해운일반, 해운물류, 항만시설, 해양환경안전	14
	농업	농업일반, 농산물생산소비, 농업생산기반, 농산물위생/안전성, 농촌생활/지원	18
	임업	산림일반, 산림조성, 산림관리·이용, 산림재해	12
	어업	수산물생산/소비, 어업인지원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성과	14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IT산업, 정보보호, 우정사업	18
	조달	조달사업, 원자재비축, 시설사업	8
	특허	출원/등록, 심사, 심판	6
	기상	예보/관측, 지구대기, 기후	9

(표 계속)

<표 II-14> 계속

대분류 (5)	중분류 (42)	소분류 (167)	지표수 (717)
사회	복지	복지일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연금/건강보험, 저출산고령화	29
	보건	보건일반, 식품, 질병, 건강증진, 보건산업	18
	환경	환경일반,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상하수도, 토지오염	25
	노동	사업체, 임금, 고용, 노동보험, 노사관계, 산업재해	33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교육경쟁력,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특수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41
	보훈	보훈일반, 보훈복지	16
	여성/가족	여성일반, 가족, 보육, 양성평등, 여성권익	22
	청소년	청소년일반,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8
	경찰	경찰일반/수사, 생활안전/경비, 교통, 외사	14
	해양경찰	해상경비, 해상안전, 해상범죄, 해양환경	6
	재난안전	재난, 소방	11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문화예술인프라, 문화산업, 문화미디어	16
	관광	관광일반, 관광산업	7
	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7
	문화재	문화재일반, 문화재보존	8
정부	외교	외교일반, 통상협력, 재외국민/영사, 국제협력, 국제교류	16
	통일(남북)	통일일반, 남북교류	7
	국방	국방일반, 방산/군수, 군인복지, 국제협력	17
	병무	병무일반, 입영	5
	법무	송무/공판, 법조인력, 보호/관찰/교정, 범죄, 출입국	46

주: ()안의 숫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개별지표 수를 나타냄.

출처: 「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의 사회동향」, 「e-나라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귀납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구축에 적용된 영역 구성과 하위영역 선정, 그리고 세부지표 선별 과정에서의 원칙들을 현재 국가정책지표로 기능하고 있는 「e-나라지표」의 재구성에 적용하여 「e-나라지표」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앞서 검토한 기존 국가지표체계들의 강점과 한계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주요 영역과 하위영역들을 선정하고 세부지표들을 결정하는 데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III. 「국가주요지표」 체계와 지표 DB 구축 방법

1. 개념 틀과 지표분류체계

앞 장에서는 「국가주요지표」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지표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종합적인 지표 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사회지표 연구에서부터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발전지표, 국가발전지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해 준다. 종합적인 국가지표는 무엇보다도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해야 하고 개인 수준, 사회적 관계, 거시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 스톡자원 등 다층적 수준의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국가주요지표」 개발의 개념 틀을 정립하고 지표분류체계를 개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개념 틀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발전(progress)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일련의 선별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게 해 주는 지표라고 정의될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발전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통합적인 발전을 전제한다. 이러한 통합적인 발전은 국민의 웰빙(well-being)의 필요조건이자 다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부터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이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삶의 질도 함께 나아졌는지, 또한 자연자원과 환경이 미래세대까지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사용되고 보존되고 있는지 등 국가발전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UN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경제·사회·환경 요소 간 상호의존성과 통합성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체계에서 사용하는 국가의 발전 역시 다차원적으로 개념화된다. 즉, 경제, 사회, 환경 부문 간의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말한다.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은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한 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 부문의 발전이 전제되며, 각 부문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유지될 때 국가가 통합적으로 발전함을 의미한다. 이 때, 각 부문은 타 부문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원(resource) 요인이면서 동시에 타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environment) 요인이 된다. 여기서 어느 한 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에 비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동일하게 중요한 자원이자 구속력을 갖는 환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합적인 국가발전이란 국가 안의 어느 한 부문이 타 부문의 발전을 가져오는 좋은 원동력과 환경으로 작용하도록 국가 체계가 작동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가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각 부문별 발전이 의미하는 바와 해당 부문 내 지표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경제의 발전

과거 경제발전 개념은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제의 발전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국내총생산, 생산량, 국가재정, 고용, 소득, 소비 등의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그 양적인 증가가 개인의 웰빙에 기여해야 하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배분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경제지표에는 경제의 양적인 발전을 넘어 개인과 가족들의 경제 상태, 경제자원의 집단 간 배분 상황, 그리고 개인들이 개인 자신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 체감하는 주관적 평가 등의 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차원적인 측면의 지표들을 골고루 포함시키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경제 지표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2) 사회의 발전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의 향상이 포함된다.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는 양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삶의 질의 향상까지도 포함된다. 예컨대, 건강, 교육, 소득, 주거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의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생활의 증진, 일과 삶의 균형적인 배분 등 개인들의 삶이 보다 조화롭고 윤택해 질 수 있는 자원과 여건의 확대, 그리고 나아가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도 향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의 발전에는 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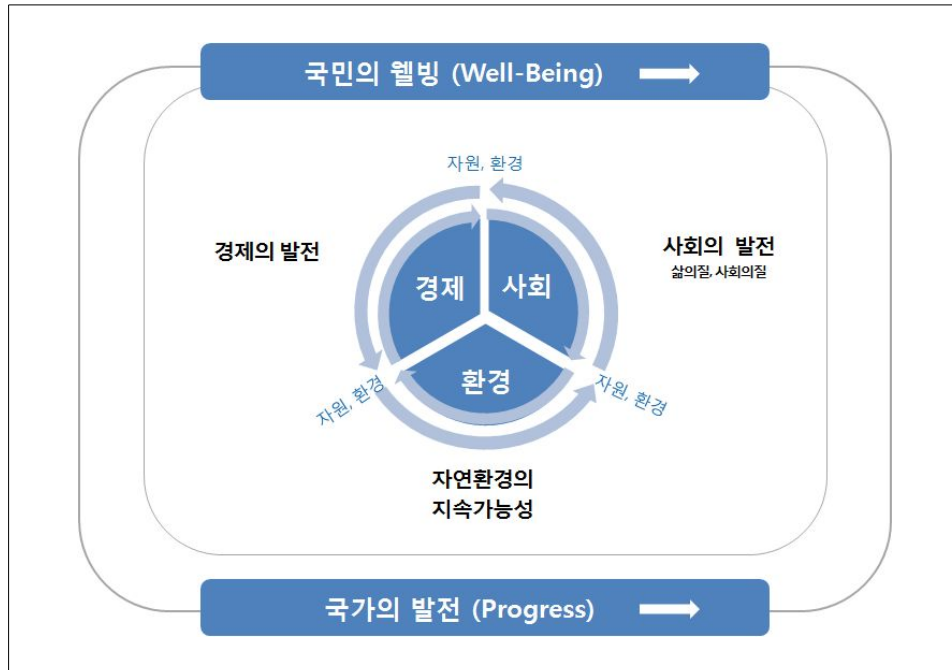
질의 향상도 포함된다. 사회의 질은 개인과 집단들 간의 관계성의 향상, 다양한 집단 간 삶의 질의 균형적인 배분, 그리고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 제도의 정착과 확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을 전제할 때,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국가주요지표」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들이어야 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개인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로 포함한다.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유지, 즉,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이 보존되고 개선되는 정도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은 개인들의 삶의 질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 요인이다. 예컨대,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는 공기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전 지구적으로 빙하 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의 뚜렷한 기후 변화를 가져오고, 한반도에도 잦은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면서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등의 경제 활동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개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 고갈과 자연 환경의 파괴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도 불가능하다. 환경부문 지표들은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들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환경지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주요 자연자원들의 보존 상태, 그리고, 환경의 보존과 개선을 위해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지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개념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국가주요지표」의 개념 틀



나. 지표체계의 구성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지표체계의 구성 방법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체로 큰 틀에서 경제, 사회, 환경의 구분은 국가마다 유사하지만 그 외 부문이나 세부 영역 및 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는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주요 국가적 목표로 삼는 정책들에 차이가 있고 생산되는 통계의 유형 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국가지표체계를 검토한 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주요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체계는 크게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문이 정해진 후에는 각 부문별 영역과 하위영역의 선정이 필요하다. 하위영역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발전(progress)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들을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분석적(analytical) 개념이기도 하면서, 각 부문의 균형적인 발전에 경험적으로(empirically)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기도 하다.

하위영역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기존의 관련 지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주요 영역들을 고려하여 내부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선정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의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

부문(3)	영역(16)	하위영역(62)
경제: 5영역, 20하위영역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소득분배, 투자, 대외거래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재정안정성, 금융시장규모, 금융시장안정성, 금융시장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생산성, 혁신
	고용과 노동	고용,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사회: 9영역, 33하위영역	인구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
	주거	주택공급·관리, 주택시장, 주거상황
	교통	교통공급, 교통수요, 교통환경, 교통비용, 교통사고
	안전	범죄, 치안, 재해,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신뢰와 투명성, 사회적 관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
환경: 2영역, 9하위영역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토지산림, 해양수산, 수자원, 에너지

주: ()안의 숫자는 부문, 영역 및 하위영역 수를 나타냄.

한국의 「국가주요지표」는 영국, 호주, 아일랜드 등 타 국가에 비해서 영역 및 하위영역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지표의 수도 많은 편이다. 대체로 사회가 안정된 선진국일수록 지표체계가 간략하고, 지표의 수도 적은 경향이 있다. 이는 안정된 사회일수록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을 파악하게 하는 주요 국면들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처럼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발생하는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 만큼 파악해야 할 상황도 많다. 또한 경제발전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질,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근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이슈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역사가 짧고, 통합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제, 사회, 환경의 다양한 국면들에 대해 종합적이면서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되고, 이에 타 국가에 비해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이 세분되어 있다.

부문별 지표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

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의 5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들 5개의 개별 영역은 다시 영역 내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경제부문 지표는 총 5개 영역, 20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부문은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의 9영역으로 구성되고, 이들 9개의 영역들은 다시 영역 내 하위영역으로 분류된다. 사회부문 지표는 총 9개 영역, 3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문은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4개와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지면서 총 2개 영역, 9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영역별 분류체계 및 최종 지표선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 지표선정 기준과 지표 DB 구축 방법

가. 지표선정 기준

지표의 분류체계가 정해지면 각 부문과 영역별 지표들을 선정해야 한다. 지표선정은 전체적인 지표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해외 지표 연구들은 지표선정 기준에 대해 국가 및 연구자 커뮤니티 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Hagerty and Land, 2012; OECD, 2008; OECD, 2011; OECD, 2013), 최근 국가지표체계를 수립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지표선정 기준에 근거한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elf and Randall, 201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표 연구 및 국가지표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다음과 같은 지표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 개념적 적실성(relevance)

국가지표로 선정되는 지표들은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측정하는 데에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국가주요지표」는 무엇보다 국민의 웰빙과 국가의 발전을 잘 측정해 주는 지표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지표체계에서 사용되는 개인, 사회, 경제, 국가 발전 개념은 사회집단 간 자원의 균형적인 배분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선정되는 지표들은 국가발전의 추세뿐만 아니라 웰빙 자원의 배분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지표들은 영역과 부문과의 개념적 연관성을 고려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타 영역이나 부문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 성과(outcome) 지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선정 기준은 투입(input) 측면보다 성과(outcome) 측면을 측정해 주는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교의 수, 병원의 수 등 국민의 교육이나 건강 증진에 투입되는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원의 투입이 실제적인 교육 또는 건강 증진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란 자원의 투입 또는 배분의 효과로써 개인, 가족, 사회, 경제, 국가의 발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들을 의미한다.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국가주요지표」는 한국의 국가발전 및 국민의 웰빙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고안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발전 수준은 타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 파악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책적 적합성(policy relevance)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책 수립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들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 지표들은 행정지표들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기초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 변화가능성(comparability)

정책적 함의가 있는 지표들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의 이면에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변화 가능한, 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표들이어야 함을 내포한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선정되어야 한다.

- 자료의 정확성(accuracy)과 접근성(accessibility)

지표로 선정되는 통계들은 그 지표가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수치화한 지표여야 한다. 예컨대, 개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건강 수준을 지표로 선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수치로 명확히 드러내 줄 수 있는 통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지표에 사용된 통계들은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중요한 지표일지라도 통계 산출 및 업데이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산출한 통계에 의존한다면 지속적인 지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지표선정의 다른 기준들에 부합한다면 통계의 접근이 용이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지표이나 가용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계 산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V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나. 지표 DB 구축 방법

위에서 「국가주요지표」의 개념 틀, 분류체계, 그리고 지표선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지표체계 및 지표선정 기준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지표 DB의 항목 구성, 지표의 선정, 그리고 지표 DB의 구축이다.

(1) 지표 DB 항목 구성

지표 DB 구성은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지표 DB를 어떻게 보고(report)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 내지 국가 지표를 보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독일의 *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나 「한국의 사회지표」처럼 영역별로 지표 통계를 보고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Social Trends*, 호주의 *Australian Social Trends*, 「한국의 사회동향」처럼 영역별로 세부 영역들을 주제로 해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주제별로 관련 지표통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여러 선진국들에서 작성하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내지 국가발전 지표들의 보고 방식으로 영역별로 주요 지표(key indicator, 또는 headline indicator)들을 우선 선정하여 이를 간결한 그래프로 작성한 후 그래프에 제시된 추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들 주요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 보조지표들을 선정하여 주요지표에서 나타난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영국의 국가지표라 할 수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그리고 호주의 국가지표인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MAP)* 등이 이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e-나라지표」도 이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성 항목이 과도하게 세분되어 설명에 중복이 많다. 여러 국가지표들 가운데 DB 구성 방식이 가장 잘 짜여 있는 것은 호주의 MAP이다. 호주의 MAP은 크게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 주요지표에 대한 보조지표(supplementary indicator)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 DB의 내용에는 지표의 그래프와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통계표가 포함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우리는 MAP을 표본으로 해서 한국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지표 DB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각 부문-영역-하위영역별로 주요지표를 우선 선정하고, 주요지표를 보완

하는 지표로 보조지표를 제시하고, 주요지표 또는 보조지표에 상응하는 국제비교지표를 선정하였다. 지표 DB의 내용에는 우선적으로 주요지표명이 제시되고, 주요지표의 그래프, 정의와 측정방법, 지표의 의의, 지표의 해설, 상세통계표가 이어 제시되며, 주요지표의 보완 지표로서 보조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비교지표가 포함된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경우에는 그래프와 통계표가 제시되고, 정의와 측정방법은 그래프 및 표의 각주에 간략히 기술되는 방식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 될 때는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용어 해설로 검색가능하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의의 및 해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대신 주요지표의 해설에 이들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표 III-2>는 이상의 지표 DB 구성 내용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표 III-2> 「국가주요지표」 DB의 항목 구성

지표 DB 구성 항목	지표 DB의 내용과 작성 방법
주요지표명	주요지표의 이름을 지표 번호와 함께 DB의 최상단에 기술함.
그래프	주요지표의 시계열 그래프를 선이나 막대그래프로 작성함.
정의와 측정방법	정의: 주요지표의 정의를 개조식으로 기술함. 측정방법: 주요지표의 측정방법을 개조식으로 기술함.
의의	주요지표가 「국가주요지표」로서 갖는 의의를 서술식으로 기술하며, 지표의 정의와는 차별화됨.
해설	주요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 추세를 서술식으로 상세히 설명함.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를 활용하여 주요지표의 해설을 보완함.
상세통계표	주요지표의 인구집단별 내재 구성요소별 상세통계표를 제시함.
보조지표	주요지표를 보조해 주는 지표의 그래프와 통계표를 제시함. 보조지표의 정의, 측정방법, 출처 등은 그래프와 표의 각주로 작성함.
국제비교지표	주요지표 또는 보조지표에 상응하는 국제비교지표의 그래프와 통계표를 제시함. 국제비교지표의 정의, 측정방법, 출처 등은 그래프와 표의 각주로 작성함.

(2)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 방법

①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최종 지표의 선정 및 DB 구축은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 완성되었다. 먼저, 네 차례에 걸친 내부 연구진의 공동 워크숍을 통해 지표

체계와 지표의 선정, 그리고 지표 DB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지표 DB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구진의 내부 워크숍을 통해 수정, 보완된 DB는 다시 영역별 전공연구자 대상 의견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 대변 및 정책 수립 관련 기관들의 전문가를 초빙한 평가세미나를 거쳐 다시 한 번 수정, 보완되었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DB에 대해 내부 연구진 워크숍을 다시 한 번 개최하여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지표 DB가 다시 수정, 보완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된 DB에 대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지표 DB가 수정, 보완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진행한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 외에도 본 연구의 발주 기관인 통계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부부처 공무원 대상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청 웹사이트를 게시판을 이용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진에게 회람하여 DB의 수정·보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의견수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 연구진 1차 워크숍

연구진 1차 워크숍은 연구의 개시 워크숍으로 참여 연구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소개, 「e-나라지표」 분석, 주요국 및 주요기구의 지표 분석 등에 대한 기초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2013년 6월 13일에 개최되었으며, 총 25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워크숍에서는 주요국(호주,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일본 등)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제지표, 삶의 질 지표, 사회지표체계 등과, 세계 주요기구(UN, OECD)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웰빙 지표 등의 검토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방향에 대한 기초 논의를 하였다.

• 연구진 2차 워크숍

연구진 1차 워크숍 후 약 1개월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영역별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1차로 구축된 지표 DB 검토를 위해 연구진 2차 워크숍이 7월 25일~8월 1일 사이에 개최되었다. 연구진 2차 워크숍은 지표 DB 검토가 목적인 만큼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부문별로 개최되었다. 경제부문 워크숍에는 공동연구자와 연구보조원, 그리고 통계청 관계자를 포함하여 17명이 참석하였다. 사회부문은 9개의 방대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 나누어 진행하였고, 총 34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환경부문 워크숍에는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하위영역 및 지표선정의 적절성, 지표명의 적절성, 추가

지표의 필요성, 영역 간 지표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지표 DB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이를 위해 각 영역별로 세부 지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였고, 타 영역 연구자들과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다. 이 워크숍에서는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에 있어서 원론적, 또는 방법론적인 논의들도 진행되었다. 예컨대, 「국가주요지표」의 개념과 지표 선정의 기준, 총량지표보다는 비율 등 시계열 및 집단 간 비교를 위해 용이한 표준화 지표의 사용, 신뢰할 만한 시계열 자료가 있는 지표의 선정, 신규 지표 개발의 필요성, 영역별 주요지표의 수와 범위, 그래프 및 통계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이다. 워크숍의 논의 결과는 지면 관계상 일일이 기술하기는 어렵고,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 내용에 있어 상당히 많은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연구진 3차 워크숍(부문책임자 워크숍)

부문별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은 부문책임자들만의 회의로 구성된 3차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부문책임자 워크숍은 8월 6일 개최되었고, 연구책임자, 연구 코디네이터, 연구 간사, 부문 연구 책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동 워크숍의 목적은 지표체계 및 지표 검토, 부문 및 영역 간 지표 조율, 그리고 지표 DB 원고의 작성 방법을 검토하는 데 있었는데, 부문책임자 회의의 특성 상 특히, 부문 및 영역 간 지표 조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 전문가 의견조사

부문책임자 워크숍까지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영역별 지표 DB의 수정·보완 작업이 약 한 달 남짓 동안 진행되었고, 수정, 보완된 지표 DB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각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문가의 선정은 영역 연구진과 부문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각 영역별로 10명씩, 총 160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3년 9월 9일~17일 사이에 이메일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각 영역별 지표의 적절성 여부, 부적절한 경우 부적절 이유, 적절하더라도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표의 제안 등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에는 총 147명(응답률 92%)이 참여하였고, 지표의 적절성과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들은 각 영역별 연구진에 즉시 회람하여 지표 DB의 수정·보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특히,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기된 추가 지표 제안 내용은 본 연구에서 일부 반영되었고, 현 단계에서 포함하기 어려운 지표들은 V장에서 다루게 될 신규지표 개발 논의에 활용되었다.

• 전문가 초청 평가세미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약 3주간 지표 DB의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였고, 수정, 보완된 지표 DB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초청 평가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영역별 국민 대변 기관 및 정책 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체적으로는 국회, 언론, NGO,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16개 영역별로 6명씩의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나 섭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는 43명이었다. 동 세미나는 10월 8일~11일 사이에 부문별로 2-3개의 영역을 병합하여 총 8세션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문가 평가세미나의 주요 논의 내용은 지표체계 및 지표의 적절성, 지표 DB의 적절성, 추가 지표 제안 등이다. 특히, 본 세미나에서는 영역별 전문성을 가진 전공 학자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 NGO 활동가, 정부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 지표의 체감도, 그리고 정책 활용 차원에서의 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시각에서 지표 DB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연구진 4차 워크숍

전문가 평가세미나 이후에 지표 DB 최종 검토를 위한 연구진 4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연구진 4차 워크숍은 10월 10일~10월 23일 사이에 부문별로 개최되었고, 경제부문 8명, 사회부문 13명, 환경부문 5명이 참석하였다. 동 워크숍에서는 최종 지표의 선정, 영역 간 지표 조율, 지표 DB 검토 등 지표 개발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동 워크숍에서는 그간에 연구진 내·외부에서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몇몇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 내용(통계산출) 수정, 새로운 지표 추가, 지표의 영역 간 이동,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 국회공청회

연구진 4차 워크숍 이후 약 한 달 동안 다시 지표 DB의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수정, 보완된 지표 DB 원고를 바탕으로 11월 13일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의 목적은 「국가주요지표」 시안(즉 연구 개요와 지표 DB 구축 내용) 소개 및 지표 DB 구축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었다. 지정 토론자는 전공 학자, 연구자, 국회 관련자, NGO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경제부문 2명, 사회부문 2명, 환경부문 1명, 총 5명의 토론자를 지정하였다. 공청회에는 내부 연구진을 포함하여, 국회 관련자, 공무원, 일반인 등 약 120명이 참석하였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영역별 연구진에게 전달하여 지표 DB의 보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② 지표 DB 구축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구축한 「국가주요지표」 DB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비교적 철저한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지표 DB는 3개 부문, 16개 영역에 대한 449개의 지표(143개 주요지표, 178개 보조지표, 128개 국제비교지표)로 구축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부문은 5개 영역에 걸쳐 153개 지표(40개 주요지표, 69개 보조지표, 44개 국제비교지표)에 대한 DB가 구축되었다. 사회부문은 9개 영역의 235개 지표(82개 주요지표, 87개 보조지표, 66개 국제비교지표)에 대한 DB가 구축되었다. 환경부문은 2개 영역에 61개 지표(21개 주요지표, 22개 보조지표, 18개 국제비교지표)의 DB가 구축되었다(표 III-3 참조). 각 부문별 지표의 개념 틀, 분류체계 및 지표 DB 구성에 대한 개요는 보고서의 IV장에서 논의되며,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될 구체적인 지표 DB는 본 연구의 보고서 제2권에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표 III-3> 「국가주요지표」 DB의 영역별 지표수

부문	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계
경제	국민계정	5	7	6	18
	재정과 금융	11	14	12	37
	산업과 생산	7	17	5	29
	고용과 노동	10	19	14	43
	소득과 소비	7	12	7	26
	소계	40	69	44	153
사회	인구	8	8	8	24
	가구와 가족	8	11	6	25
	건강	10	11	16	37
	교육	10	15	9	34
	문화와 여가	8	7	2	17
	주거	8	14	6	28
	교통	8	11	6	25
	안전	8	6	3	17
	사회통합	14	4	10	28
	소계	82	87	66	235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9	10	7	26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12	12	11	35
	소계	21	22	18	61
합계		143	178	128	449

IV. 「국가주요지표」 DB의 구축

1. 경제지표

가. 경제지표의 개념 틀

경제지표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후생(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각종 재화의 생산, 분배, 활용에 관한 제반 경제활동, 그리고 이러한 경제활동이 뒷받침하는 국민의 후생, 삶의 질의 ‘수준’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이해와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지표 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활용되는 것이 쿠즈네츠(Kuznets)가 1934년에 개발한 국민총생산(GDP)이다. GDP는 케인즈(Keynes)의 국민소득결정이론의 틀에 입각하여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활동 주체로 구성된 한 국가가 1년에 얼마만큼의 재화와 소득을 시장거래를 통해 생산하고 창출하는가를 측정한다. 국민 후생지표로서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계부문의 최종 소득과 소비 수준을 보다 잘 측정하기 위해 소위 국민계정(National System of Accounts: NSA)이 개발되었으며, 이와 연계된 일군의 지표, 즉 국민계정 지표체계들은 한 국가와 국민의 경제력, 물질적 풍요도, 그 결정과정과 요인, 지속가능성 등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경제지표의 기본 틀이자 시발점은 국민계정 지표체계이다. 그러나 국민계정 지표체계는 20세기 후반 이후 일대 패러다임 전환기(산업자본주의에서 지식경제로의)에 있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현재와 변화 양상, 그 동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한국은 1997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할 정도의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경제 전반의 글로벌화, 산업 및 기업 활동의 다각화·고도화, 금융시장의 급팽창과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유동성·변동성 증대, 이들 모두와 연관된 추세적 현상으로서 기업 및 소득·고용의 양극화, 소득분배 악화와 근로빈곤계층의 증가(자영업자, 비정규근로자·중소기업근로자 등) 등 경제 전 부문과 섹터에 걸쳐 국민 모두에게 심대하고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전통적인 국민계정의 틀에 따라 국민경제를 정부, 가계, 기업의 3대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련 총량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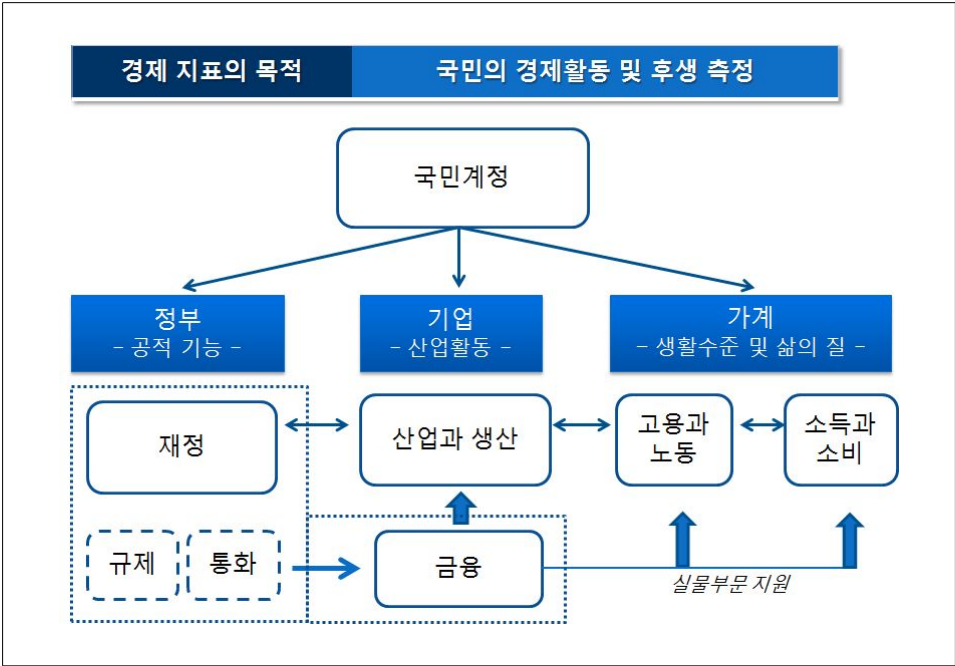
금융, 노동시장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 부문의 다양한 구조 변화의 단면, 그리고 경제의 금융화, 산업·기업·고용·소득의 성과 격차 확대, 이에 따른 복지재정수요의 급증과 재정안정성 위협 등 한국의 경제 현안에 관한 미시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부문을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누고 국민계정의 전통적인 거시총량지표에 총량의 변동성과 경제주체 간 분포(분배의 문제)에 관한 미시적인 지표를 대폭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먼저, 국민계정의 지표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계정 중 국민 후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계부문 지표들을 소득과 소비 영역으로 분리하였다(소득분배 관련 지표들과 통합). 국민계정과 달리 연구개발을 포함한 산업·기업 활동과 그 구조에 관한 미시지표들을 모아 산업과 생산 영역을 5대 영역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에 관한 총량 및 그 형태와 성격에 관한 미시지표들을 모아 고용과 노동 영역을 설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경제적 격차 확대 추세에 유의하여 소득과 소비,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등 3개 영역 모두에 있어 개별지표의 총량(평균) 못지않게 총량의 집단 내 분포(분배, 격차)를 강조하였다. 금융 부문은 산업·기업 활동의 중요한 축이지만, 정부 핵심기능의 하나인 통화정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소득 상의 재정부문과 함께 재정과 금융으로 분리하고 별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가계의 입장에서 해석할 때, 국민 개개인은 특정 업종, 업체(산업과 생산)에 종사하여(고용과 노동),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이를 소비지출하게 되는데(소득과 소비), 대외부문과 기업의 투자(국민계정), 그리고 이들 모두에 대한 정부 재정과 금융시장의 역할(재정과 금융)이 한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후생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하는 일반균형적인 이해가 이러한 5개 영역 설정의 논리적 구도라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히 극적이라 할 정도로 급격하고 심대한 경제 구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건 반세기에 걸친 혁혁한 경제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후발추격의 단계를 넘어 글로벌 선도경쟁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다기적이고 복합적이다. 대내외 제반 여건, 추세적 도전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 소득으로 본 경제적 후생만 보더라도 ‘형평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상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반면, 소위 저성장속의 양극화 추세 속에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경제지표는 이러한 급격한 한국경제 구조 변화의 단면에 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국가는 물론 각 개인의 현재 위치와 향후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여, 이행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각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국민계정에 입각하거나 일반 국민을 수요자로 하는 기존의 지표체계·모형에 비해 다소 복잡한 구조이고 전문성이 높은 개별지표도 포함하고 있으나(재정과 금융, 소득과 소비 등의 영역), 이는 우리 경제의 복잡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의 경제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 즉 경제적 문해도(economic literacy)가 높아졌고 더욱 그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지표는 경제의 복잡성, 그리고 국민의 경제적 문해 역량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계속 그럴 것이다.

[그림 IV-1] 경제지표의 개념 틀



나. 경제지표 분류체계

경제부문 지표는 <표 IV-1>과 같이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등 총 5개의 영역과 이들에 대한 총 20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계정 영역은 다시 국내총생산, 소득분배, 투자, 대외거래 등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재정과 금융은 재정 규모와 구성, 재정안정성, 금융시장규모,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시장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산업과 생산은 산업구조, 생산성, 혁신 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고용과 노동 영역은 고용,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소비는 소득과 자산, 소득 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등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각 영역은 자료로서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갖출 뿐 아니라, 영역들 간에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조 하에 경제부문은 40개의 주요지표, 69개의 보조지표, 그리고 44개의 국제비교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표는 국가 공식통계체제 하에 생산되어 일관된 기준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표준통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는 국내에서는 통용되거나 아직 확고한 국제표준이 부재한 통계, 혹은 특수한 목적의 비정규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연성(soft) 통계에 기초하는 지표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바, 이들은 국내 상황이나 정책목적 상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지표로서 주목할 만하다.

<표 IV-1> 경제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영역	하위영역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소득분배, 투자, 대외거래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재정안정성, 금융시장규모, 금융시장안정성, 금융시장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생산성, 혁신
고용과 노동	고용,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소득분배, 소비와 물가, 저축

다. 영역별 지표 구성

(1) 국민계정

국민계정은 원래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을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하여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성장과 함께 분배와 안정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지표체계의 국민계정 영역에서는 국민계정의 구성요소 가운데 국내총생산, 소득분배, 투자, 대외거래 등 4개의 하위영역을 구성하고,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5개의 주요지표와 7개의 보조지표를 선정하였다.

먼저 국민의 객관적 생활수준은 무엇보다 소득수준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내총생산 영역에서는 1인당 GDP를 주요지표로, GDP의 증가율(경제성장률)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한국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이 어떤 추이를 나타내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민의 후생은 소득의 평균적인 수준과 성장률만이 아니라 소득의 분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득분배 영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주요지표로 사용하여 총생산이 노동과 자본

간에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피고,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가계, 기업, 정부 간에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 간의 소득분배는 소득과 소비 영역에서 따로 다루어 질 것이므로 국민경제 영역에서는 중복하여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국내총생산과 소득분배 외에 투자에 관한 하위영역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투자가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생산성의 증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 영역에서는 총고정투자율을 주요지표로 제시하였고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 유형고정자산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을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외 부문이 국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편이다. 따라서 대외거래 영역에서는 경상수지를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을 주요지표로 제시하여 한국의 대외거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되는 무역거래액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가적인 주요지표로 삼아 국민경제의 개방도 혹은 대외의존도를 살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한국 수출입의 국가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상대국별 수출입 비율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였다.

<표 IV-2> 국민계정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투자율	건설투자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투자율
대외거래	경상수지비율 수출입비율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경상수지비율 수출입비율

(2) 재정과 금융

재정과 금융 부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남유럽의 재정위기, 가깝게는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등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이다.

재정과 금융 부문의 위기는 고용과 생산 등 이른바 실물부문에까지 단기간에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충격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과 금융의 안정성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 국면이 아닌 평상시에도 재정과 금융 부문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의 성장, 소득의 분배와 복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재정과 금융 영역은 5개의 하위영역에 11개의 주요지표와 14개의 보조지표로 구성하였다.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재정의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는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나라의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는 지출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및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분배와 복지를 개선하며, 경기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지만, 주로 조세를 통해 충당되는 정부 수입은 국민의 가치분 소득을 줄이고, 조세회피 행동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재정의 규모 및 구성을 다루는 하위영역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을, 여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세입 및 세출의 구성비율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아울러 재정 수입이 국민의 가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피기 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사회복지기여금을 합친 넓은 의미의 조세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안정성 영역에서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주요지표로 설정하였다. 재정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재정,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재정, 수입과 지출이 비슷할 때에는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해마다 균형재정을 달성할 필요는 없지만 경기순환주기를 통해 균형재정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적자재정이 계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이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재정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의 채무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의 채무가 높아져도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공공부문의 채무비율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지방화 시대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채무비율과 재정수지비율도 보조지표로 설정하였다.

금융 부문은 예컨대 기업이 투자를 위해 자금을 소요로 하듯 자금이 필요한 부문과 저축을 쌓아가는 가계와 같이 여유자금이 있는 부문을 연결하여 주는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시장의 규모,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시장의 변동성 즉 금융 부문 주요 가격의 추이를 각각 다루는 세 하위영역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 부문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금융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는 하위영역에서는 금융자산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배율로

계산하는 금융연관자산비율을 주요지표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비율, 기업공개실적 및 총여신비율을 보조지표로 구성하였다.

금융 부문의 위기는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촉발될 수도 있고, 대외채무가 지나치게 높을 때, 예를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의 여파로 외국 금융기관이 급격한 채무회수에 나서면서 촉발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달러로 표시되는 대외채무의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위기가 가속될 위험도 있다. 외환보유고는 이러한 위기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주요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선정하고 그 보조지표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나타내 주는 무수익여신비율을 설정하였다. 대외부문으로부터 촉발될 수 있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대외채무비율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고, 단기외채비율과 외환보유고를 보조지표로 삼았다.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시장의 주가가격은 투자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채원조달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평가하게 해 주고,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환율은 수출과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주며, 그 수준은 국제금융시장이 국가경제를 평가하는 신인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부문으로부터 촉발될 수도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금융시장의 변동을 다루는 하위영역에서는 금리 분야에서 국고채금리를 주요지표로, 기타 기준금리, 콜금리 및 회사채금리를 보조지표로 하였으며, 주식시장 분야에서는 코스피 주가지수를 주요지표로, 코스닥 주가지수를 보조지표로 두었다. 이외에 환율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표 IV-3> 재정과 금융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재정 규모와 구성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정부세입구성		정부세입구성
	정부지출구성		정부지출구성
재정안정성	국가채무비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공공부문채무비율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비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재정수지비율
금융시장규모	금융자산비율	주식시가총액비율 기업공개실적 총여신비율	금융자산비율

(표 계속)

<표 IV-3> 계속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금융시장안정성	BIS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BIS자기자본비율
	대외채무비율	단기외채비율 외환보유액비율	대외채무비율
금융시장	국고채금리	기준금리 콜금리, 회사채금리	해외주요시장금리 해외주요정책금리
	코스피주가지수	코스닥주가지수	해외주요주가지수
	환율		해외주요통화환율

(3) 산업과 생산

생산성의 향상 및 혁신,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산업 활동이 발전하여야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과 생산 영역에서는 산업구조, 생산성, 혁신의 3개 하위영역을 설정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생산성의 증가와 혁신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7개의 주요지표와 17개의 보조지표를 선정하여 DB로 구축하였다.

우선 산업구조 영역에서는 산업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산업 생산액 중에서 1, 2, 3차 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주요지표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산업부문의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 특히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산업 집중도, 식량자급률, 전력공급예비율, 서비스업 부문의 구성비 등을 보조지표로 제공하여 산업구조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산업구성에 있어 IT산업은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므로 특별히 IT산업 생산을 주요지표로 제시하였다. IT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생산, IT산업 생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조지표로 제시하였고, IT산업과는 다르지만 향후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생산성과를 아울러 보조지표로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주요지표로 추가하였다. 이는 소국개방 경제인 한국의 국민경제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방도의 주요한 측면인 동시에 고용창출과 산업생산, 기술이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조지표로는 국내거주자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제시하였다.

생산성 영역에서는 노동생산성과 중소기업 임금을 주요지표로 제시하였다. 우선 노동생산성은 국내 근로자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생산해 내는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총체적인 효과를 담아내고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1인당 노동생산성

을 제시하였고, 또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소 생소할 수는 있으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추가적인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주요지표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임금비율을 제시하였다. 보조지표로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과 중소기업 신규진입률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부문과 대기업 부문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혁신 영역에서는 연구개발투자비율과 특허출원 증가율을 주요지표로 삼았다. 혁신을 위해서는 각 기업과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로 특허출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구개발지출 대비 특허출원수를 보조지표로 두어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 기술 수준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아보고자 기술혁신 및 기술수용성의 세계 순위를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표 IV-4> 산업과 생산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산업구조	산업구성	산업집중도 식량자급률 전력공급예비율 서비스업 산업구성	산업구성
	IT산업생산비율	반도체생산 디스플레이생산 바이오산업생산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외국인직접투자비율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율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노동생산성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총요소생산성증가율	노동생산성
	중소기업임금비율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출원증가율	연구개발지출대비특허출원수 한국의 세계기술혁신순위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순위	특허출원수

(4) 고용과 노동

고용과 노동은 소득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생활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드러낸다. 고용과 노동 영역은 크게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고 10개의 주요지표와 19개의 보조지표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하위영역인 고용 영역에서는 종사상의 지위와 산업별 노동력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전체 근로연령대 인구 중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다.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비율을 살펴보고 다시 산업별로 그 분포를 살펴 한국 노동시장이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드러내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이 부진한 형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화 과정에서 감소하였으나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하위영역은 임금으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과 관련된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흔히 관심의 초점이 된다. 보조지표로 한시적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임금수준은 그 격차를 10분위배율로 제시하였고, 성별 및 근로형태별 임금차이를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평균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주요지표로 포함하였으며, 보조지표로 최저임금 관련 지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하위영역은 근로조건으로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지표로 제시하고 주관적 지표로서 일자리만족도를 포함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긴 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근로형태별 근로시간과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산재사망률과 산업재해율은 일터에서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므로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일자리만족도는 아직은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고용과 관련된 주관적 지표로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므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영역을 포함시켰는데, 노사관계의 특징은 사회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지표로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은 흔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포함시켰으며, 근로손실일수를 보조지표로 제시하였다.

<표 IV-5> 고용과 노동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고용	고용률	고용률(OECD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비임금근로자비율	고용주비율 자영업자비율 무급가족종사자비율	비임금근로자비율
	취업자의 산업구성	서비스업취업자비율 취업자의 직업구성	제조업취업자비율 도소매·숙박업취업자비율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취업자비율
임금	비정규직근로자비율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한시적근로자비율 시간제근로자비율
	임금격차	성별 임금차이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임금격차 성별 임금차이
	저임금근로자비율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최저임금액	저임금근로자비율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산업재해율	
	일자리만족도	임금만족도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

(5)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영역은 경제주체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물리적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계의 생활수준 및 개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그 중요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소득과 소비 영역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부의 크기를 보여주는 소득과 자산, 개인 간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분배, 소비수준을 반영하는 소비와 물가, 그리고 저축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우선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부의 크기를 보여주는 소득과 자산 영역은 개인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개인소득,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의 금융 상태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가구자산 등 3개의 주요지표를 포함

하고 있다. 보조지표로는 객관적 척도인 주요지표와 비교해 개인 또는 가구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소득만족도, 가구소득 변화에 대한 인식, 가구부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지표를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OECD 주요국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지표를 포함하였다.

소득분배 영역은 가구 간 소득격차 및 가구소득의 분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니계수를 주요지표로 하였다. 그리고 보조지표로는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사용하였고, 국가 간 비교를 위하여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를 수록하였다.

소비와 물가 영역에는 지출 측면에서 생활수준을 볼 수 있는 소비지출액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물가상승률을 주요지표로 하였고, 소비지출액의 보조지표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 소비지출액,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소비생활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보조지표로는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수준에 근접하게 작성된 생활물가상승률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OECD 주요국의 소비지출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축에서는 주요지표로 저축률을 선정하였고, OECD 주요 국가들의 가계저축률을 수록하여 한국의 저축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6> 소득과 소비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과 자산	개인소득	소득만족도	개인소득
	가구소득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가구소득변화인식	가구소득
	가구자산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가구 자산과 부채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소비지출	소득대비소비지출 가구소비지출구성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생활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물가수준
저축	저축률		가계저축률

2. 사회지표

가. 사회지표의 개념 틀

국가지표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지표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단순한 시스템은 고정된 틀, 즉 프레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회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생명현상이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개방체계의 특성을 가진다. 개방체계는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지며, 또한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내부의 역동성과 균형을 유지한다. 사회지표를 개념화할 때 시스템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방체계로서의 특징을 포착해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시스템은 물질적, 경제적인 하부구조 위에서 작동하면서 그 힘에 의해 제약당하지만, 동시에 경제시스템의 발전과 전개에 필요한 물질 투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상호 의존적이다. 경제시스템과 생태적 시스템간의 관계 역시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제약하고 규정당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를 토대로 사회부문 지표를 구성하는 전략이 연역적 방법이다. 연역의 논리는 생태시스템-경제시스템-사회시스템-문화시스템을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한 사회의 발전에 가장 궁극적 토대가 되는 것은 생태시스템으로서 모든 생명활동과 경제활동의 토대가 된다. 생태시스템은 환경이자 자원인데,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고갈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시스템은 다양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으로서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경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결국 사회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어떻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느냐를 결정해 온 것이 사회시스템이며, 그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생태계에 대한 부담 정도도 달라진다.

사회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사람, 즉 인적자원이다. 가장 기초적인 지표는 인구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구현상은 모든 사회지표의 모수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아울러 가족은 인구의 재생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이고, 건강과 안전은 인적자원의 역량과 보존에 핵심적인 변수이다. 따라서 인적자원에서 바람직한 가치는 각각의 개인이 얼마나 역능성을 발휘하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은 문화 혹은 상징의 영역으로서, 교육과 문화 및 여가, 사회통합 등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과 긴밀한 관계에 놓인 이슈들이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간에 맺어지는 관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통합은 그 나라의 발전을 측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된다. 이질적인 집단들이 명시적인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야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징의 영역으로서 그 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종교, 도덕, 문화 등을 포괄한다.

[그림 IV-2]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부문의 영역들은 문화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물적자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스템에 광범하게 걸쳐있다.

교육,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영역은 문화자본 및 사회자본과 연관되어 있다. 교육을 통해 문화적 유산이 재생산된다. 문화와 여가는 한 사회의 문화적 자본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보여준다. 좋은 사회는 창의성을 촉진하고, 사회적 응집성과 포용성이 높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IV-2] 사회지표의 개념 틀

영역	자원	가치
교육, 문화와여가, 사회통합 ▲ 의미 ▼ 해석들	문화자본 사회자본	창의성, 응집성, 포용성
인구, 가족, 건강, 안전 ▲ 기회 ▼ 통제	인적자본	역능성
주택, 교통 고용과노동, 소득, 국민계정, 재정과금융, 산업과생산 ▲ 제약 ▼ 고갈	물적자본	효율성
생태, 환경	자연자본	지속가능성

인구, 가족, 건강, 안전 등은 인적자본과 긴밀하게 관련된 영역들이다. 인구는 인적자원의 모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다. 가족은 인적자원의 형성과 재생산의 단위로서 의미를 가진다. 건강과 안전은 인적자본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영역들이다. 개인의 역량 제고는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역능성은 인적자본 수준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이다.

주택, 교통 등은 물적자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적자본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부문으로 분류되었다. 사회부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물적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영역들은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등이고, 이 영역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안전성이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원)을 구성하는 생태 영역과 환경 영역은 지속가능성을 지고의 가치로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네 수준의 자본들 간에는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자본의 축적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 소득의 분포나 집단 간 관계가 변화하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의식과 이념지형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자연자본으로부터 가장 상위의 문화자본으로 제약과 조건화의 영향이 연쇄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념과 문화는 행위의 준거가 되며, 사회관계의 성격을 요약해 주는 사회자본은 경제적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성장의 방식과 결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양방향의 변화는 Giddens가 제시한 구조화(structuration)나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종합적인 사회발전지표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을 가능한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양적으로 지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수월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국이 발표한 다양한 지표들을 일별해 보면, 이러한 종합적 측면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각 수준의 지표화를 위해서는 어떤 고려를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측정문제인데, 경제발전을 GDP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GDP를 무시한 발전의 측정도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이 된 결과 국부가 증대되는 것을 측정하여야,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웰빙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토대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대부분 경제부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념적으로 좋은 사회는 다양성이 용인되고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며, 그 토대가 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본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역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은 객관적인 측면 뿐 아니라 주관적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여러 측면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사회적 응집력을 결정하는 신뢰와 투명성, 관용성과 포용성 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넷째, 환경과 맺는 관련성이다. 우리는 전지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지역 공동체나 개인 모두 환경과 맺는 관련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각하는 생태적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환경이 제공하는 생태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는 환경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부문의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적절하게 결합해야 한다. 연역적 방법은 국가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시스템적 이해를 토대로 부문과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별 하위영역별 지표체계에 대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위로부터 연역하여 만들어낸 지표체계는 이상적인 개념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인 활용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선택적인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1) 측정되지 않은 지표들은 활용할 수 없고, 2) 설사 측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사의 비밀관성이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적 추세를 추적하기 어려우며, 3) 활용하는 지표들이 사회발전의 방향성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4) 정책적 노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하며, 정책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으려면 때로는 평균개념보다는 분산, 혹은 사회적 최소요건(social minimum)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단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회지표 분류체계

사회부문 지표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영역, 3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등이다. 인구 영역은 다시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가구와 가족은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건강 영역은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 영역은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등으로 나뉜다. 문화와 여가 영역은 문화자원과 문화여가활동, 그리고 미디어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 영역은 주택공급·관리, 주택시장, 주거상황 등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교통은 다시 교통공급, 교통수요, 교통환경, 교통비용 및 교통사고로 구성된다. 안전 영역은 범죄, 치안, 재해, 안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은 정치 및 사회 참여, 신뢰와 투명성, 사회적 관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들은 자료로서의 완결성과 독립성을 갖출 뿐 아니라, 영역들 간에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표 IV-7> 사회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영역	하위영역
인구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구과 가족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건강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
주거	주택공급·관리, 주택시장, 주거상황
교통	교통공급, 교통수요, 교통환경, 교통비용, 교통사고
안전	범죄, 치안, 재해,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신뢰와 투명성, 사회적 관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

다. 영역별 지표 구성

(1) 인구

인구 영역은 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수(parameter)로서 의미를 가진다. 동시에 인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구규모와 규모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그래서 인구 영역은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구조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인구규모는 총인구를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보조지표로는 지역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광역시와 도 인구를 사용하였고, 국제비교지표로는 주요국의 인구와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를 대비하도록 하였다.

인구변화는 출산과 사망, 그리고 국제적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체류외국인을 그 주요지표로 하였다. 그리고 보조지표로는 조출생률과 출생아수, 영아사망률, 국적취득자수로 하였고, 국제비교지표로는 주요국의 합계출산율과 주요국의 조사망률로 정하였다.

인구구조는 주로 연령이나 성에 따른 분포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우선 중위연령과 성비, 그리고 부양인구비를 주요지표로 하였다. 부양인구비는 특히 인구구조가 경제활동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잘 드러내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조지표로는 인구피라미드와 출생성비, 고령화지수를 사용하였으며, 국제비교지표로는 주요국과 대비한 중위연령, 성비, 부양인구비를 취하였다.

<표 IV-8> 인구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인구규모	총인구	시도별 인구	총인구 도시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조사망률
	체류외국인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중위연령	인구피라미드	중위연령
	성비	출생성비	성비
	부양인구비	고령화지수	부양인구비

(2) 가구와 가족

가구와 가족은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할 뿐 아니라, 시장 및 정부와 더불어 국민 웰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아울러 사회적 응집과 귀속감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구와 가족의 변화는 사회변화의 양상을 잘 드러낼 뿐 아니라, 복지의 정책적 대상의 변화를 드러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가구와 가족의 하위영역은 가구구성, 가족형성, 가족관계, 가족돌봄으로 나뉜다. 가구구성은 평균가구원수와 한부모가구비율을 주요지표로 하여 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을 구체화한다.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을 보조지표로 하여 사회복지의 대상집단을 추적할 수 있게 하였고,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평균가구원수와 한부모가구비율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가족은 혼인을 통해 형성되고, 사별이 아니라면 이혼을 통해 해체된다는 점에서 혼인율과 이혼율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리고 혼인율을 보완하는 지표로는 평균 초혼연령과 결혼선호율 및 국제결혼비율을 활용하여 형성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평균이혼연령이나 이혼반대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이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OECD의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혼인과 이혼의 양상을 국제적으로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V-9> 가구와 가족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가구구성	평균가구원수		평균가구원수
	한부모가구비율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혼인율	평균초혼연령 결혼선호율 국제결혼비율	혼인율
	이혼율	평균이혼연령 이혼반대율	이혼율
가족관계	가족관계만족도	배우자만족도 자녀만족도	
	가사노동시간	가족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어린이집이용률	육아휴직자수	어린이집이용률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부모부양의무수용률	

(3) 건강

건강은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필수조건이자 인적자원의 신체적인 건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의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건강 영역은 건강상태,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건강상태는 기대수명과 건강상태에 대한 인지를 주요지표로 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국민이 얼마나 장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수명을 보조지표로 하여 실제 질병 없이 누리는 수명을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과 비교하였고, OECD 주요국과는 건강인지율을 비교하여 주관적 건강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결정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 등을 주요지표로 삼아 건강에 위협을 주는 요인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파악코자 했다. 그리고 직접흡연율 외에 간접흡연율과 청소년흡연율을 보조지표로 하였고, 알코올 소비량을 보조지표로 삼아 음주율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걷기실천율을 신체활동실천율의 보조지표로 삼았다. 흡연율과 알코올소비량, 비만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하였고, 신체활동실천율은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수(1,000명당)와 국민의료비, 암생존율, DPT예방접종률을 주요지표로 삼았다. 각각 의료서비스의 용량, 의료비용, 의료서비스의 수준, 예방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용량을 보조하는 지표로는 1,000명당 병상수와 간호사수를, 의료비의 보조지표로는 공공의료비를 택했고,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조지표로 남녀의 대표적 질병인 대장암과 유방암 생존율을 사용했고, 노인독감 예방접종률을 예방의 보조지표로 삼았다. 또한 건강에 관한 주요지표들은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IV-10> 건강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건강상태	기대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건강수명
	건강인지율		건강인지율
건강결정요인	흡연율	간접흡연율 청소년흡연율	흡연율
	음주율	1인당 알코올소비량	1인당 알코올소비량
	신체활동실천율	걷기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율		비만율
보건의료서비스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암생존율	대장암생존율 유방암생존율	대장암생존율 유방암생존율
	DPT예방접종률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DPT예방접종률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4) 교육

교육 영역은 한편으로는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한 사회의 규범과 국민적 통합성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능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기능도 수행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 영역은 크게는 교육기회,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육효과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교육기회는 공교육과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취학을, 그리고 평생교육 참여율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학교교육을 보조하는 지표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고등교육기관진학률, 그리고 학업중단을 등이며, 사교육비에 대한 보조지표로는 사교육참여율과 가구의 교육비지출률을 선정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참여율의 보조지표로는 평생교육참여시간을 선정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OECD의 주요국들과 공교육비, 취학을, 평생교육참여율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의 조건과 과정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그리고 학습시간을 주요지표로 삼았다. 보조지표는 학급당 학생수, 교육내용만족도와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그리고 학습종류별 학습시간과 사교육시간을 택했다. 교육조건과 과정에 대한 지표들도 OECD 주요국들과 교원 1인당 학생수,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 학습시간 등의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케 했다.

교육효과는 교육년수, 기초학력미달률, 대학졸업자취업률 등을 주요지표로 삼았다. 이들 각각은 다시 고등교육이수율,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및 니트(NEET)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했다. 국제적으로는 교육년수와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및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표 IV-11> 교육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교육기회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교육비	
	취학을	고등교육기관진학률 학업중단을	취학을
	평생교육참여율	평생교육참여시간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교육내용만족도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학습시간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사교육시간	학습시간
교육효과	교육년수	고등교육이수율	교육년수
	기초학력미달률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대학졸업자취업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니트(NEET)비율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5)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영역은 국민의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과 문화여가활동, 그리고 미디어 활용의 측면을 다루고 있다. 문화자원에 대한 주요지표는 거시적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문화재정비율을, 그리고 미시적인 개인수준에서는 문화여가비를 주요지표로 활용하고 있고,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를 보조지표로 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여가활동은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의 활동과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지표로 문화예술행사관람률, 독서인구비율,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보조적 지표로서 종류별 문화행사관람률, 종류별 독서율, 스포츠경기 관람률, 유형별 여가시간, 휴가활용률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비교지표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여가시간만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였다.

미디어 하위영역의 주요지표는 인터넷이용률로 정하였고, 그 보조지표로 인터넷 서비스이용률을 포함하였다. 인터넷이용률은 국제비교가 가능하여 OECD 주요국과 비교하였다.

<표 IV-12> 문화와 여가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여가비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문화여가활동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독서율	서적종류별 독서율	
	생활체육참여율	스포츠경기관람률	
	여가시간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휴가활용률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미디어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인터넷이용률

(6) 주거

주거 영역은 공급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산업적 성격을 가지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부문의 지표로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공급·관리 측면에서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와 주택건설수를 주요지표로 삼았다. 주택보급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수는 다시 유형별로 살피고, 주택보급률, 임대주택수, 멸실주택

수를 파악하여 보조지표로 삼았고, 향후 주택사정을 예견케 하는 주택건설수는 이를 다시 주택유형별로 보고, 또한 임대주택건설수를 첨가하여 보조지표로 삼았다. 또한 주택수와 주택건설수를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국제비교지표로 삼았다.

주택시장은 주거상황을 예견케 하는 거시경제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 변동률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다시 주택유형별로 나누어 보아 보조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주택가격변동률과 비교하여 국제비교지표로 삼았다.

주거상황은 국민의 주거의 질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서 소득대비임대료(RIR), 자가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등을 주요지표로 하여 주거에 따르는 비용과 소유권 외에 면적과 주관적 만족도를 모두 포괄토록 했다. 소득대비임대료는 소득계층별 구입능력과 임대료부담으로 나누어 보조지표로 선정하였고, 자가점유율은 주거점유형태와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을 보조지표로 하였으며, 주택만족도를 주관적 만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소득대비주택가격(PIR), 자가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은 국제비교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IV-13> 주거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주택공급·관리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임대주택수 멸실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수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건설수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소득대비임대료(RIR)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임대료(RIR)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주택가격(PIR)	소득대비주택가격(PIR)
	자가점유율	주거점유형태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자가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주택만족도	

(7) 교통

교통 영역 역시 산업적 측면도 있고,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교통일반을 모두 고려하기 보다는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하여 지표화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교통공급, 교통수요, 교통환경, 교통비용 및 교통사고 등의 5개 하위영역을 구성하였다.

교통공급 영역에서는 자동차등록대수를 주요지표로 하고, 도로 및 철도 연장을 보조지표로 하여 교통수단과 인프라가 얼마나 널리 보급되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지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주요지표인 자동차등록대수는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교통수요 영역에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 통근시간을 주요지표로 구성하였다. 다만,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와 자동차의 평균주행속도를 보조지표로 하여 수요에 따른 만족도를 반영하였고, 통학시간과 1시간 이상 통근 및 통학 하는 인구의 비율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교통복지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 통근시간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국제비교지표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환경은 교통수요가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삶의 질과도 연관되지만 지속가능한 환경과의 연관성이 높은 하위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량과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을 주요지표로 이용했고, 차종별 및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은 국제비교에 이용되도록 국제비교지표로 구성하였다.

교통비용 영역에서는 GDP 대비 가구의 교통비와 교통부문 사회적비용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교통비는 다시 가구의 소비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보조지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는 안전과 밀접히 연관된 하위영역이어서 도로교통사고의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각각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 두 지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V-14> 교통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교통공급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철도연장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교통수요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대중교통만족도 자동차평균주행속도 통학시간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교통환경	자동차에너지소비량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차종별 평균연비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친환경자동차보급률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교통비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소비수준별 교통비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8) 안전

안전은 다른 영역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인 영역이다. 즉, 질병과 관련해서는 건강, 가족해체와 관련해서는 가족,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육,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교통 영역과 각각 관련을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범죄 및 치안, 재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국한하였다.

범죄와 치안에서는 사회위험과 그에 대한 대비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범죄율과 범죄피해율, 재범률,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를 정했는데, 범죄율은 집행기관에서 포착하는 범죄의 크기를, 범죄피해율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경험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범률은 효과적인 교정을 통한 범죄에 대한 통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리고 보조적인 지표로 범죄자수와 소년범죄자율,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를 살폈다. 아울러 치안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경찰관수 외에 인구 10만명당 민간경비원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한편, 살인범죄율과 경찰관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재해는 크게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표로 자연재해피해액과 화재피해액을 선정하였고, 자연재해의 보조지표로는 재해 주의보 및 정보 발효횟수를 이용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인 지표인데,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범죄의 두려움

을 주요지표로, 위험종류별 안전인식을 보조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주요국들과 범죄 두려움을 비교하였다.

<표 IV-15> 안전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범죄	범죄율	범죄자수 소년범죄자율	살인범죄율
	범죄피해율		
	재범률	교도관수대비1일평균수용자수	
치안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인구 10만명당 민간경비원수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재해	자연재해피해액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안전인식도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범죄두려움		범죄두려움

(9) 사회통합

사회통합 영역은 가장 복잡하고 또한 비교적 덜 발달된 영역으로서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많은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영역이다. 이 영역은 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성격을 잘 드러냄으로 해서 개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질(social qua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었는데, 정치 및 사회 참여, 신뢰와 투명성, 사회적 관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보장 등이 그것이다.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국민이 얼마나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선거투표율과 사회단체참여율을, 그리고 참여의 기회가 성별로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여성의원비율을 선정하였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했으며, 선거투표율과 여성의원비율은 국제비교지표까지 제시하였다.

신뢰와 투명성 영역은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부패인식지수를 주요지표로 구성하였다. 이 지표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가용한 비교수치들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주요지표로 자원봉사활동참여율과 사회적 고립도를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이타적이고 사회응집적인 태도와 활동,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후원 및 기부 참여율을 보조

지표로 하고, 사회적 고립 수준을 주요 국가들과 함께 제시하여 국제비교가 되도록 하였다.

삶의 기회와 만족 영역에서는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삶의 만족도, 그리고 자살률을 주요지표로 구성하였고, 주관적 계층인식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이동가능성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주관적 지표들이라면, 자살은 극단적인 형태로 삶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지표로 이용하였다.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은 국제비교지표로도 제시하였다.

사회보장은 넓게 보면 사회통합 영역에 포함되지만, 가족이나 건강 등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영역이다. 주요지표로는 공공복지예산, 공적연금수급률,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거시적 수준에서의 재정투입의 규모,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의 분포, 그리고 복지의 도움 정도 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공공복지예산과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국제비교지표로 제시하였다.

<표 IV-16> 사회통합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정치 및 사회 참여	선거투표율		선거투표율
	여성의원비율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여성의원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기관신뢰도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대인신뢰도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후원 및 기부 참여율	
	사회적고립도		사회적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주관적계층인식	
	삶의만족도		삶의만족도
	자살률		자살률
사회보장	공공복지예산		공공복지예산
	공적연금수급률		공적연금소득대체율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3. 환경지표

가. 환경지표의 개념 틀

환경은 과거의 사회지표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환경지표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다차원적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이 발전되는 추세다. 더욱이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나 자연자원의 고갈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진행이 인류 생존 문제로 다가오면서 생존기반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생태계와 자연자원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일상적 삶이 재생산되는 생활환경의 질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정도와 자연자원의 보호, 생태계 유지 등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환경 관련 질병을 야기하여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며, 이는 결국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오염이 심각할 경우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비용 발생, 자연자원의 감소, 생태환경의 파괴 등과 관련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적절한 환경조건이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3대축(three-pillars) 접근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시스템의 '동시적'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다. Drexhage와 Murphy(2010)에 따르면, 그동안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빈곤과 자원 문제에 있어 세대 내 및 세대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예방의 원칙에 대한 강조, 경제·사회·환경 요소 간 상호의존성과 통합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회·환경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이면서 통합되어 있는데 빈곤 문제는 사회와 경제 요소 간에 걸쳐 있으며, 자원 고갈은 환경과 경제 요소에 있어 공히 중요한 문제이다. 나아가 건강과 보전은 사회, 경제, 환경의 모든 요소에 걸쳐 있다. 이러한 통합성에 대한 강조는 UN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발간하는 지속가능지표 보고서의 2007년도 제3판에서 제2판과 달리 교육, 인구, 교통, 주택과 같은 개별 영역을 3대축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자원(resources) 혹은 자본(capital)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이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한 국가가 소유 혹은 창출해 내는 1인당 국가 자산의 총합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는 발전 경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기존의 경제적 자본, 즉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 기초 위에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자연자본(natural capital), 기술과 같은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더해서 지속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한다(Perman et al., 2003). 따라서 자본 접근은 3대축 중 경제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자본 총합의 동태적 비감소성에 관심을 두는데 이는 다양한 자본 형태 간에 대체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약한 지속가능성(weak sustainability)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들 중 녹색GDP, 경제후생지수, 조정된 순저축 등이 이러한 접근에 기초하여 제안된 지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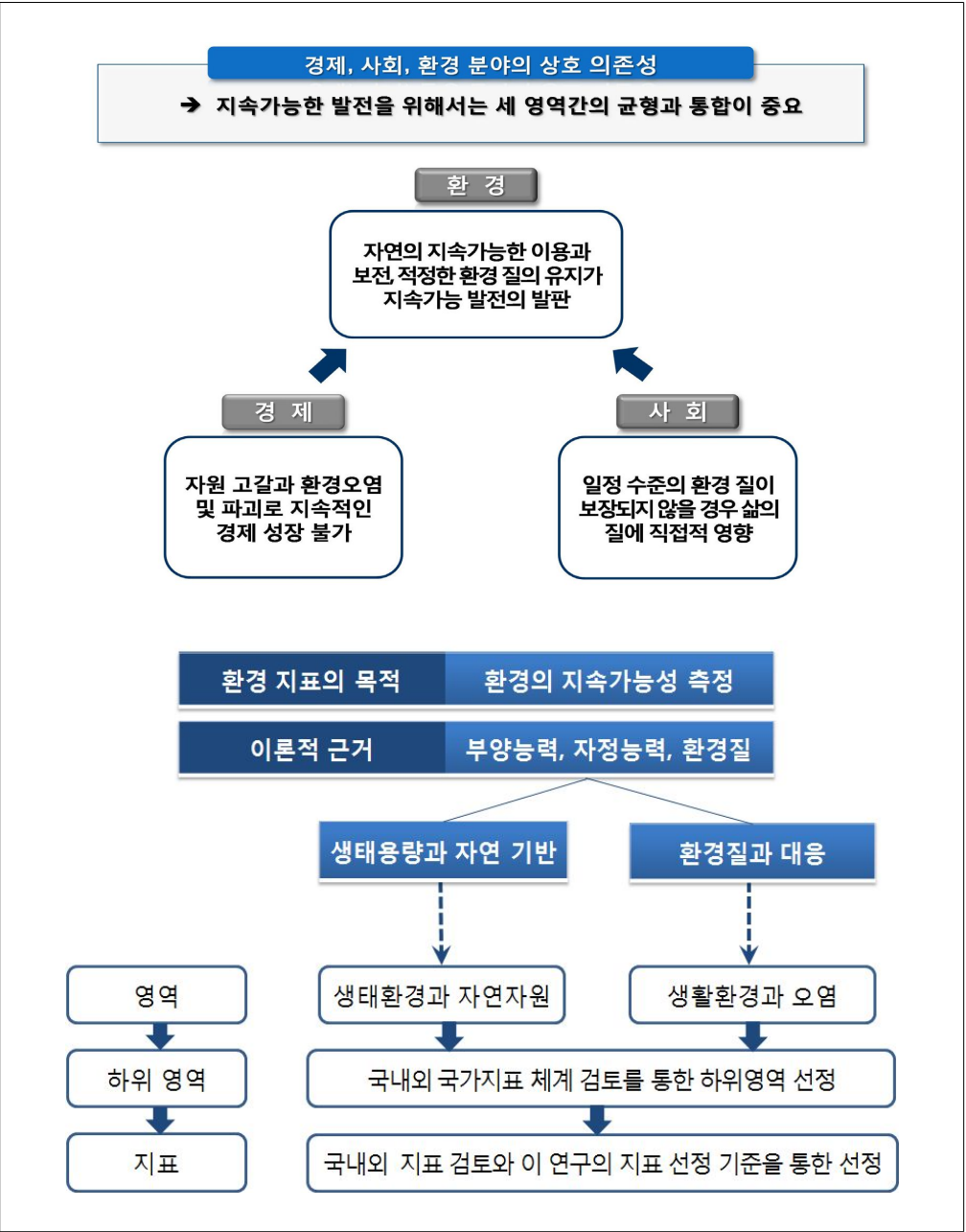
반면, 자본 접근을 취하면서도 보다 생태적,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연자본의 총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를 약한 지속가능성과 대비하여 강한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연자본과 인간이 창출한 자본(human-made capital) 간에는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대개 생태학자나 생태주의자들에게서 이러한 강한 지속가능성 인식이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전을 도외시하고 성장 일변도의 압축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심각한 환경파괴를 경험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온산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나 1990년대 초반 낙동강 페놀 사건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 국민은 환경문제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하여 왔다.

한국에서 환경과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을 국가 지표로 선정하고 이러한 지표의 현황과 추세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영역 간 상호의존성을 이해한 위에서 이들 간 균형과 통합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적정한 환경의 질의 유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이 된다면,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할 것이고, 일정한 수준의 환경의 질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인해 지금과 같은 속도의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고 한국 또한 이런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환경 없이는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충족되는 만족스러운 삶을 보장하기란 어렵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은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적절한 환경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림 IV-3]에 제시한 것처럼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간의 균형과 통합이 절실하며 환경영역은 각 영역이 지향하는 바를 이루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

[그림 IV-3] 환경지표의 개념 틀



나. 환경지표 분류체계

그러면 이러한 세 영역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 위에서 환경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 것인가? 환경부문의 지표들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예컨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산업 등)을 드러내면서 자연과 생활환경의 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환경지표 체계는 다분히 매체별 환경오염에 관련된 지표들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 확보에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환경지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대표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으로는 부양 능력(Carrying capacity), 자정 능력(Purifying capacity), 환경 질(Environmental quality)이 있다.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부양 능력이란 자원의 이용이 자연의 복원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자정 능력은 오염된 땅이나 물이 자연적 작용으로 인해 저절로 깨끗해질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환경 질은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삶의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수준을 뜻한다. 결국 환경지표는 자연이 갖고 있는 자원을 허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본래의 역량을 복원하여,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대표하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가주요지표」의 환경부문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환경부문 지표를 선정하고 측정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와 경제활동이 환경의 부양능력을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생태계의 자체적인 자정능력의 한도 안에 머물러야 하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지표를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부양능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과 자정능력과 그에 따른 환경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는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전자는 생존기반으로서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둔 반면, 후자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해 영향을 받는 환경의 질에 관심을 둔다. 아울러 환경 질의 훼손에 대한 사회적 대응 또한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에 포함하여 다룬다. 환경부문을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의 하위영역을 구분하였다. 하위영역은 국내외의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거나 대표성을 띤 것으로 구성하였고, 각 하위영역별 지표들 중 자료의 취득 가능성을 확인하여 개별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부문 개별 지표의 분류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위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국내의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 그 외 해외 지표인 OECD 핵심환경지표(CEI), OECD 요약환경지표(KEI), OECD 녹색성장지표, UNCSD 지속가능발전지표,

EU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독일,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검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하위영역별로 선정된 지표를 주요 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하였다. 주요지표는 해당 하위영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특징을 가진 지표이며, 보조지표는 주요지표를 보충 설명하거나 관련 있는 정보를 담았거나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약하지만 주요지표가 다루고 있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담은 지표이다. 셋째, 국제비교는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특성상 비교가 의미 있는 국가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들을 추가하였다. 넷째, 해외 지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도 발굴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의 특성을 반영,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연안습지 면적(갯벌)을 지표에 포함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섯째, 지표가 추세를 보여줄 수 있고 수치화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따라서 지표가 생태환경을 보여주기 적합하고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하더라도 경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누적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지표화하지 못하였다.

영역별 하위영역 체계는 <표 IV-17>에 제시한 것처럼 생활환경과 오염은 기후·대기·소음,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과 만족도 등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은 생물다양성, 토지산림, 해양수산, 수자원, 에너지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IV-17> 환경지표의 영역 및 하위영역 구성

영역	하위영역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환경개선노력·만족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토지산림, 해양수산, 수자원, 에너지

다. 영역별 지표 구성

(1) 생활환경과 오염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은 기후·대기·소음, 물환경, 폐기물·유해물질, 환경개선노력·만족도의 4개 하위영역과 9개의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기후·대기·소음 영역에는 기후, 대기, 소음을 대표하는 각각의 지표가 주요지표로 포함되었다. 기후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인 온실가스배출량을, 대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오염도를, 소음 역시 건강과 가장 밀접

한 환경소음도를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온실가스배출집약도,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소음·진동민원건수는 각 주요지표의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둘째, 물환경 영역에서는 하수를 대표하는 하수도보급률과 상수를 대표하는 상수도 보급률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하수의 경우, 보조지표로 선정된 하천 수질오염도가 개념적으로는 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수많은 지역에서의 수질 측정치를 모아서 전체의 수질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진 대표성이 있는 값(지수)이 없어서 선택할 수 없었다. 상수의 경우에도 먹는 물의 수질이 보조지표로 포함되었다.

셋째, 폐기물·유해물질 영역에는 폐기물을 대표하는 폐기물발생량과 화학물질을 대표하는 화학물질배출량이 주요지표로 포함되었다. 폐기물의 경우 발생뿐만 아니라 재활용과 최종처분(소각, 매립 등)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치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최종처분량과 반비례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 또한, 국가 간 비교에서 중요한 변수인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를 보조지표로 추가하였다. 유해물질의 경우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물질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발생량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넷째, 환경개선노력·만족도 영역에서는 환경개선노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환경보호 비용을, 주관적 만족도를 대표하는 지표로 환경향상체감도를 선정하였다. 환경보호 비용은 환경보호를 위해 국가 전체가 지불한 비용의 정도를 보여주며, 환경향상체감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얻는 정보로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환경개선노력의 보조지표로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환경예산비용을, 주관적 만족도의 보조지표로는 「사회조사」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시행한 설문조사(환경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내용 중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를 선정하였다.

<표 IV-18>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기후·대기·소음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집약도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집약도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대기오염도
	환경소음도	소음·진동민원건수	

(표 계속)

<표 IV-18> 계속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물환경	하수도보급률	하천수질오염도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상수도보급률
폐기물·유해물질	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화학물질배출량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노력·만족도	환경보호비용	환경예산	환경보호비용
	환경향상체감도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은 크게 생물다양성과 토지산림, 해양수산, 수자원, 에너지의 5개 하위영역과 12개의 주요지표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계는 주위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큰 그물과 같은데 여러 환경 변화에 생태계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적 특성이 필요하기에 생물다양성을 하위영역의 하나로 하였다. 생물다양성은 종, 유전자, 생태계 다양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먼저 주요지표인 멸종위기종과 자생생물종을 통해 종 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해 위협받고 있는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도록 야생생물유전자원, 농업종자유전자원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다만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하위영역인 토지산림 및 해양수산에서 세분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토지산림은 식량의 주요 생산기반이자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경지면적, 총 경작지 대비 유기농경작면적률, 산림면적, 생태경관보존면적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경지면적은 식량안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담수, 자연보존, 경관과 관련하여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유기농경작은 농약과 화학비료, 살충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 지력을 보전하면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훼손을 막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갈수록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농약이 환경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주목하여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산림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이나 숲을 말하는 것으로,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와 오염을 예방하는 허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환경지표

이다. 보조지표로 산지의 타용도 전환면적을 선정하였다. 토지산림 영역에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태경관보존면적을 주요지표로 채택하였다.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말하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양수산 영역에서는 해양 생태계 내의 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소진율과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보여주는 연안습지면적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총허용어획량이란 한 어종의 연간 총 어획량을 할당하고 그 한도 내에서 어획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 허용량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소진율)로 해양 자원이 부양 능력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주요지표인 연안습지면적과 보조지표인 해양보호구역면적은 해양 생태계가 생명력과 정화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넷째, 수자원 영역에서는 1인당 취수량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소비 증가로 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지하수의 보전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자연자원 가운데 시스템의 상호연관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1인당 취수량은 향후 생존과 직결되는 주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취수량은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취수량을 나타낸 값이다. 지하수의 함양과 유지가 중요하여 지하수량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하수이용량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에너지는 모든 사회경제활동의 동력으로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의 에너지 사용이라도 환경부하를 야기하기 때문에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의 하위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최근에는 화석연료나 우라늄의 고갈 위험과 생산의 정점 임박설에 비추어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에 환경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에너지 영역에서는 1차에너지공급량, 전력생산량, 1차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주요지표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1차에너지공급량과 전력생산량의 경우 각각의 1인당 소비량과 GDP 대비 소비량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였고,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용량과 공급량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였다.

<표 IV-19>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의 하위영역별 지표 구성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유전자원	멸종위기종
	자생생물종	농업종자유전자원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경지면적		1인당 경지면적
	생태경관보존면적		생태보호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유기농경작면적률
	산림면적	산지타용도전환면적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연안습지면적	해양보호구역면적	습지면적
수자원	1인당 취수량	지하수이용량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	1인당 에너지소비량 GDP대비에너지소비량	1차에너지공급량
	전력생산량	1인당 전력소비량 GDP대비전력소비량	전력생산량
	재생가능에너지비율	재생가능에너지시설용량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재생가능에너지비율

V. DB시스템 설계와 「e-나라지표」의 재분류

1. DB시스템의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DB시스템은 누구나 원하는 지표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DB시스템은 두 종류의 지표 DB, 즉 「국가주요지표」와 기존 「e-나라지표」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웹 서비스를 통해 부문 및 영역별 지표 검색과 국민의 웰빙이나 국가의 발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현 「e-나라지표」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의 요건에 맞춰 DB시스템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e-나라지표」 시스템의 운영 현황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는 국가정책 수립과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을 목적으로 38개 중앙행정기관이 선정하고 관리하는 국정지표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웹기반의 통계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정책입안자와 정책결정자에게는 한국의 현 위치를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고, 향후 국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여러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알기 쉬운 나라지표로 국가발전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e-나라지표」 시스템의 특징은 시계열 통계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그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수치와 함께 지표에 대한 의미 분석 및 관련파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지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야별 또는 부처별로 개별지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지표를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업무와 통계청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리체계에서 총괄 운영과 개선 및 시스템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는 통계청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관리시스템과 이용 시스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의 메뉴는 크게 사용자 관리와 홈페이지 및 지표 관리로 나누어져 있다.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는 기관 총괄담당자가 담당자별 또는 지표별로 사용자 관리를 하며, 홈페이지 관리 메뉴에서는 기관 총괄담당자 또는 지표담당자가 운영자 게시판과 홈페이지의 의견 및 질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지표 관리 메뉴에서는 기관 총괄담당자 또는 지표담당자가 지표 DB에 대한 구축·관리를 수행하는데, 이 메뉴는 기본정보, 통계표입력, 의미분석, 관련파일, 용어정의로 구분된 총 5개의 하위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기능을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의 지표 관리 기능

메뉴 Level 2	메뉴 Level 3	기능
기본정보		해당 지표의 소관부처, 지표담당자, 등록일, 주제별분류(대/중/소), 서비스여부, 최근서비스일, 관리주기, 입력예정일, 최근수정일, 생산주기, 생산기관, 자료출처, 작성방법, 유의사항, 관련지표 관리
통계표입력	통계표 기본정보	해당 지표 통계표의 통계표명(국/영문), 통계표구분(기본, 참고통계, 그래프용 중 선택), 서비스여부, 출처, 단위, 승인통계번호, 승인통계명, 주석 관리
	항목	통계표의 항목그룹, 항목 관리
	분류	통계표에서 사용되는 분류 및 자료코드(계, 비율 등은 입력자가 직접 코드 부여) 관리
	입력폼 구성	주기, 항목, 분류를 조합하여 통계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를 구성하는 기능(표두, 표측)과 조합된 항목과 분류에 대한 소수점 자리수 정보 등을 관리
	수치입력	통계표에 입력된 통계수치(입력 또는 붙여넣기) 관리
	출력폼 구성	통계표 서비스 화면에서 보여지는 시계열 형태(단순/혼합), 시계열종류(연속/불연속) 및 주기 범위(년도, 반기, 분기, 월, 다년) 지정 등 관리
	그래프정보	지표 서비스 화면에 나타날 그래프 타입(라인, 막대, 파이, 레이더, 혼합형 등), 그래프 제목, 축제목, 계열타입, 범례위치(라인, 막대, 파이, 레이더, 혼합형 등) 등 관리
의미분석		지표설명(지표개념, 의의 및 활용도, 수치해석 방법 등)과 지표해석(통계표의 최근 자료에 대한 설명) 관리
관련파일		관련파일(보도자료, 정책자료 등) 및 참조사이트 관리
용어정의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관리

(2) 이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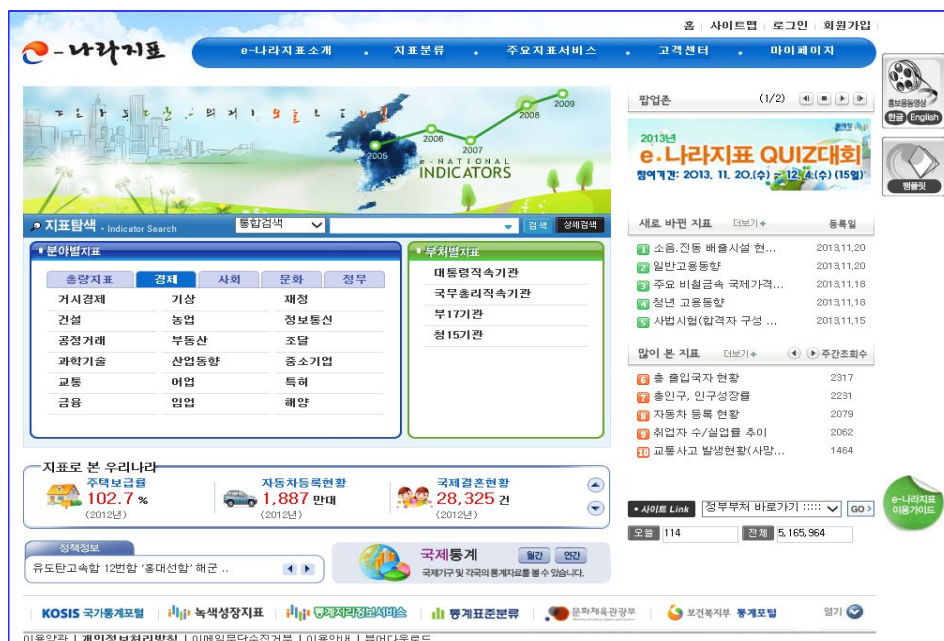
「e-나라지표」의 웹 서비스 메인화면은 [그림 V-1]과 같이 분야별 또는 부처별 지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고, 지표로 본 우리나라, 팝업존, 새로 바뀐

지표, 많이 본 지표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주요 메뉴는 e-나라지표 소개를 비롯해서 지표분류, 주요지표서비스, 고객센터, 마이페이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뉴별로 살펴보면, 지표분류 메뉴에서는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로 분류된 분야별 지표와 소관부처별로 분류된 부처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지표의 상세화면에서는 [그림 V-2]와 같이 그래프, 통계표, 의미분석, 이용 상 유의점, 관련 용어,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된 기본 메타데이터와 자료출처, 지표관리기관, 참고사항을 포함하는 지표정보 및 참고통계, 관련지표, 관련파일, 참고사이트를 포함하는 지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견 및 질문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메뉴에서는 별도의 페이지 이동이 없이 동일한 페이지에서 원하는 지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표탐색기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지표서비스 메뉴에서는 각 분야별로 이용도가 높은 주요 지표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도 지표분류 메뉴와 마찬가지로 지표탐색기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센터 메뉴에서는 공지사항, 개선사항, 지표활용사례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로그인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마이페이지에서는 나의관심지표, 참여내역, 최근 검색어목록 등을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그림 V-1] 「e-나라지표」의 메인화면



출처: 「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그림 V-2] 「e-나라지표」의 상세화면



출처: 「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6&bbs=INDX_001&clas_div=A).

나. 「국가주요지표」 DB시스템의 설계

DB시스템은 「국가주요지표」 DB와 기존 「e-나라지표」 DB가 함께 제공될 수 있는 방식, 즉 두 DB의 서비스 체제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어 윈스톱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국가주요지표」를 「e-나라지표」 시스템에 탑재하여 제공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 「e-나라지표」 시스템은 그 목적이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지표에 근거하여 국가 발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 시스템의 웹페이지는 복잡한 텍스트 위주의 화면구조와 직관적 설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전자정부 관련 또는 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등과 관련된 각종 표준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2013년 5월부터 「e-나라지표」 웹 서비스 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개편과 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개발 범위에는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되는 「국가주요지표」 DB도 탑재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을 개발하는 계획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로 종료되는 이 사업의 개발 기간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DB시스템의 설계 방안을 완전하게 적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DB의 통합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과 웹 서비스를 위한 이용시스템으로 나누어 DB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관리시스템

「국가주요지표」 DB의 관리시스템은 현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소요 예산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의 관리시스템으로 「국가주요지표」와 기존의 「e-나라지표」 DB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국가주요지표」 DB의 메타데이터 요소는 ID NO., 지표종류(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분류체계(부문, 영역, 하위영역), 지표명, 그래프명, 통계표명, 지표정의, 지표 측정방법, 지표 의의, 지표 해설, 키워드, 출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DB구축을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이 이러한 요소들을 완전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V-2>와 같이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되, 관리시스템의 지표 관리 하위 메뉴, 즉 기본정보와 의미분석 및 용어정의 메뉴의 구축 요소와 기능을 수정하는 범위에서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정보 메뉴에서는 지표의 종류를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 중에서 선택하여 입력 또는 연계하는 기능과 키워드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주제별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를 「국가주요지표」의 지표분류체계에 따라 부문, 영역 및 하위영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둘째, 기존 관리시스템의 의미분석 메뉴에서는 지표설명과 지표해석 요소를 별도의 구분 없이 나모 웹에디터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입력하거나 붙여넣기를 하는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이를 지표 정의, 지표 측정방법, 지표 의의, 그리고 지표 해설로 각각 구분, 분리하여 개별 단위의 기술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셋째, 용어정의는 단순한 비통제적 용어 관리의 기능에서 용어DB 관리로 기능을 개선하여 통제어 차원에서 지표 DB와 관련된 별도의 DB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 DB를 활용한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2> 「e-나라지표」 관리시스템에서 수정되는 「국가주요지표」 시스템 사항

메뉴 Level 2	메뉴 Level 3	기능	수정
기본정보		해당 지표의 소관부처, 지표담당자, 등록일, 주제별분류(대/중/소), 서비스 여부, 최근서비스일, 관리주기, 입력 예정일, 최근수정일, 생산주기, 생산 기관, 자료출처, 작성방법, 유의사항, 관련지표 관리	1) 추가 기능 ① 지표종류(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선택 및 연계 ② 키워드 입력 및 관리 2) 수정 기능 주제별분류(대/중/소) → 지표분류체계(부문/영역/하위영역)
통계표입력	통계표 기본정보	해당 지표 통계표의 통계표명(국/영문), 통계표구분(기본, 참고통계, 그래프용 중 선택), 서비스여부, 출처, 단위, 승인통계번호, 승인통계명, 주석 관리	
	항목	통계표의 항목그룹, 항목 관리	
	분류	통계표에서 사용되는 분류 및 자료 코드(계, 비율 등은 입력자가 직접 코드 부여) 관리	
	입력폼 구성	주기, 항목, 분류를 조합하여 통계표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형태를 구성하는 기능(표두, 표측)과 조합된 항목과 분류에 대한 소수점 자리수 정보 등을 관리	
	수치입력	통계표에 입력된 통계수치(입력 또는 붙여넣기) 관리	
	출력폼 구성	통계표 서비스 화면에서 보여지는 시계열 형태(단순/혼합), 시계열 종류(연속/불연속) 및 주기 범위(년도, 반기, 분기, 월, 대년) 지정 등 관리	
	그래프정보	지표 서비스 화면에 나타날 그래프 타입(라인, 막대, 파이, 레이터, 혼합형 등), 그래프 제목, 축제목, 계열타입, 범례위치(라인, 막대, 파이, 레이터, 혼합형 등) 등 관리	
의미분석		지표설명(지표개념, 의의 및 활용도, 수치해석 방법 등)과 지표해석(통계표의 최근 자료에 대한 설명) 관리	요소 분리 및 개별적 기술이 가능하도록 수정(에디터 기능 변경 필요) - 지표 정의, 지표 측정방법, 지표 의의, 지표 해설
관련파일		관련파일(보도자료, 정책자료 등) 및 참조사이트 관리	
용어정의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관리	용어DB로 운영

이상과 같이 수정한 관리시스템에서 「국가주요지표」의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는 지표관리의 하위 메뉴인 기본정보 메뉴에서 지표종류를 선택 또는 상호 연계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표의 분류방식을 따른 지표분류체계, 즉 부문과 영역 및 하위영역에 따라 DB를 구축하게 되는데, 「e-나라지표」 DB도 기존의 주제별 분류체계가 아닌 신규 지표분류체계에 따라 새롭게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두 개의 DB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 이용시스템

웹 서비스를 위한 이용시스템은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서비스 체계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묶은 형태의 윈스톱 포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설계는 메인 및 지표 UI 설계 측면과 서비스 구현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UI 설계 측면에서 메인 UI의 설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인화면은 위의 관리시스템에서 구축된 「국가주요지표」 DB와 신규 지표분류 체계에 따라 수정된 「e-나라지표」 DB에 대한 접근이 모두 가능하고, 서비스 이용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결하게 UI를 설계하였다. 특히, 접근성을 고려하여 [그림 V-3]과 같이 메인화면 양쪽에서 두 지표 DB를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였는데, 「e-나라지표」 DB는 명칭이 웹사이트 명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국정지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림 V-3] 「국가주요지표」의 메인 UI(1)



둘째, 메인화면 상단의 메인 메뉴는 e-나라지표 소개, 국가주요지표, 국정지표, 마이페이지, 참여마당, 안내마당 순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e-나라지표 소개 메뉴는 「국가주요지표」 DB와 「국정지표」로 명칭을 변경한 기존 「e-나라지표」 DB 등에 대한 전반적인 웹사이트 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인 메뉴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메인 화면 하단에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팝업존, 소식 및 공지, 최신 지표, 많이 본 지표를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치에 차례대로 배치한 후, 그 옆에 각종 이용 관련 안내 배너들을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부가 서비스들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메인화면의 중심에는 대시보드 방식의 ‘2012 국가 발전 현황’을 배치하여 UI를 구성하였다. 이 방식은 호주 통계청(<http://www.abs.gov.au>)의 MAP 등과 같은 해외 사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문별 핵심지표의 변화 양상을 ‘좋아짐(↗)’, ‘나빠짐(↘)’, ‘변화 없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도록 그래픽화하여 설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들 중에서 대시보드 지표로 제안하는 지표는 총 20개이다(표 V-3 참조). 대시보드 지표는 「국가주요지표」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시계열적 변화상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로 영역별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였다. 메인화면의 중심에는 이렇게 선정된 20개 지표들의 발전 방향이 그래픽화하여 제공될 것이다. 예컨대, 경제부문의 국내총생산 지표는 ‘좋아짐(↗)’ 표시로 제공되는데, 이를 해석하면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는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자살률 지표는 ‘나빠짐(↘)’ 표시로 제공된다. 이를 해석하자면, 지난 몇 년 간 한국의 자살률은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웰빙 차원에서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시보드 방식은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국민의 웰빙이나 국가의 발전 현황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이트 전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표 V-3> 「국가주요지표」의 대시보드 지표

부문(지표수)	영역	지표명	대시보드 방향
경제(7)	국민계정	1인당 국내총생산	↗
	재정과 금융	국가채무비율	↘
	산업과 생산	연구개발투자비율	↗
	고용과 노동	고용률	=
		근로시간	↗
	소득과 소비	지니계수	↘
		저축률	↘
사회(11)	인구	합계출산율	↘
	가구와 가족	혼인율	↘
	건강	기대수명	↗

(표 계속)

<표 V-3> 계속

부문(지표수)	영역	지표명	대시보드 방향
사회(11)	교육	공교육비	↗
		교육연수	↗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관람률	↗
		소득대비임대료(RIR)	↘
	주거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교통	범죄율	↘
	안전	부패인식지수	↗
	사회통합	자살률	↘
환경(2)	생활환경과 오염	온실가스배출량	↘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경지면적	↘

주: 대시보드 방향은 ↗는 좋아짐, =는 변화 없음, ↘는 나빠짐을 각각 의미하며, 통계수치의 증감이 아니라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각 지표의 현상이 좋아지는지 또는 나빠지는지를 나타냄.

넷째, [그림 V-4]와 같이 대시보드가 「국가주요지표」의 각 부문, 즉 경제와 사회 및 환경 부문의 지표체계로 순차적으로 전환되면서 부문의 영역별 지표를 곧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 아래에는 다음 장에서 제안된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지표와 정책지표, 즉 ‘삶의 질 지표’, ‘국가발전 지표’, ‘주요정책지표’를 차례대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메인 UI 우측에서 제공되는 「국정지표」는 분야별 또는 부처별 지표체계로 바로 이동하여 원하는 지표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는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전체 지표분류체계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림 V-4] 「국가주요지표」의 메인 UI(2)



이어서, 각 지표의 상세화면, 즉 지표 UI는 [그림 V-5], [그림 V-6]과 같이 주요 지표별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를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화면 설계에서 중점을 둔 것은 지표 UI의 구조인데, 호주 통계청이나 영국 통계청(<http://www.statistics.gov.uk>)의 사례와 같이 지표분류체계를 서브 메뉴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지표탐색기가 없더라도 해당 화면에서 영역을 펼쳐보면서 관심 있는 지표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표 UI의 세부적인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표 UI의 화면 상단에서는 해당 주요지표의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의 그래프와 통계표 및 메타데이터를 순서대로 보거나 탭 기능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그림 V-5]와 같이 주요지표는 그래프와 지표의 메타데이터, 즉 지표 정의와 측정방법, 지표 의의와 해설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통계표는 ‘상세통계표’로 제공하되 그래프 화면 상단의 위치에 실행버튼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의 경우는 [그림 V-6]과 같이 그래프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통계표와 지표의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지표정보’는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V-5] 「국가주요지표」의 지표 UI(1)



[그림 V-6] 「국가주요지표」의 지표 UI(2)



셋째, 그래프는 선 또는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래프 하단에 각주와 출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래프의 범례표기는 그래프 상단, 즉 그래프명 아래에 표기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e-나라지표」 DB, 즉 「국정지표」는 그래프에 출처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수정을 고려해야 하며, 그래프의 범례표기도 현재의 그래프 하단에서 상단으로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화면 구성을 통일감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지표 UI에서 관심지표 등록과 화면 인쇄 및 다운로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행버튼으로 처리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현 「e-나라지표」 UI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 다운로드와 통계표 엑셀저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국가주요지표」에 불필요한 시계열 조회 기능은 서비스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용시스템은 UI 설계 측면과 서비스 구현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이용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서비스의 구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구현이 이용자의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UI의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먼저 제안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UI의 설계가 우선시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배경에 전반적인 웹사이트 설계보다는 개발된 지표 DB를 기존의 「e-나라지표」 DB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하고 보급하는 방식의 설계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서 이용시스템의 설계가 최소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계된 DB시스템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모든 화면에서 동일하게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 상단에 전체검색 기능을 구현하여 설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검색 구현 방식은 「국가주요지표」와 기존 「e-나라지표」 DB, 즉 「국정지표」를 통합하여 검색하고, 그 결과를 한 화면에서 한꺼번에 보여주는 일반적인 통합검색 방식이 아니다. 지표 DB를 선택하여 검색을 실행하거나, 두 지표 DB를 동시에 검색하더라도 검색의 결과가 탭으로 구분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한 이유는 이 두 지표 DB의 검색 결과가 서로 섞여서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는 두 지표 DB가 성격이 전혀 다르고, 지표 DB의 구성 항목들도 크게 달라서 통합검색을 구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두 DB의 지표명이 동일한 경우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용자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 서비스들은 위의 UI 설계에서 설명하였듯이 메인 화면을 비롯한 마이페이지, 참여마당, 안내마당 등의 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대부분 현 「e-나라지표」 U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e-나라지표」 UI에서는 지표단위의 댓글과 질문기능, 시스템 개선의견란 등을 마련하여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즐겨 찾는 지표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접근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참여활동 내역과 최근 검색한 키워드를 관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구현으로는 정부 3.0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기조로 하는 쌍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DB시스템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지표 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관 기관인 통계청이 이용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연구 지원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설계 요건에 따라 「국가주요지표」와 기존 「e-나라지표」 DB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하나의 서비스 체제에서 이 두 지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DB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으로 서로 다른 복수의 지표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곧 이용자의 활용도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2. 「e-나라지표」의 재분류

앞 절에서 「e-나라지표」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주요지표」 DB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스템 설계는 기존의 「e-나라지표」 운영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 하되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를 구분하여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를 구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두 지표체계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데 기인한다. 「e-나라지표」는 체계적인 지표라기보다는 38개 정부 부처에서 생산한 행정통계들을 국정분야별로 제공하기 때문에 분류체계도 국정분야별로 되어 있고 공급 및 관리 중심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국가주요지표」는 이론적, 논리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부문, 영역, 하위영역 등의 지표분류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국면을 파악하게 해주는 주요 기초 통계들로 지표들을 구성하였다. 이에 「국가주요지표」는 공급자 중심보다는 정책의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당분간 같은 시스템 하에서 서비스 될 계획이므로 두 지표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하여 개별 지표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며, 어느 정도 재분류가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았다. <표 V-4>는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할 때 지표 일치도와 재분류 가능여부를 요약하고 있다.

<표 V-4> 기존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의 일치비율과 「e-나라지표」의 재분류 가능비율

		지표수	비율(%)
지표 일치도	일치	161	22.4
	불일치	558	77.6
	계	719	100.0
「e-나라지표」 재분류 가능여부	재분류 가능	522	72.6
	재분류 불가능	197	27.4
	계	719	100.0

주: 「e-나라지표」 웹사이트(<http://www.index.go.kr>)의 2013년 11월 7일 업로드 DB를 기준으로 분석함.

2013년 11월 7일 기준, 「e-나라지표」의 지표수는 총 719개이다. 이들 719개의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와 비교하여 지표 일치도와 「국가주요지표」 체계로의 재분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표 일치도를 살펴본 결과, 「e-나라지표」의 719개 지표들 중 161개 지표(22.4%)가 「국가주요지표」와 일치하여 두 지표 간의 호환성이 낮은

편이다.²⁾ 한편, 지표 수준에서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e-나라지표」의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 체계(부문, 영역, 하위영역 수준)로 재분류가 가능한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719개의 「e-나라 지표」들 중에서 약 522개 지표(72.6%)가 재분류 가능하였고 나머지 197개 지표(27.4%)는 분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나라지표」의 약 73%가 「국가주요지표」 체계와 연계 검색이 명목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로 연계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재분류는 지표 수준의 비교가 아니라 영역 수준의 분류이기 때문에 개별 지표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두 지표체계를 한 체계 안에 통합하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e-나라지표」의 재분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e-나라지표」를 개별 지표별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V-5>에는 분야별 재분류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개별 지표별 재분류 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2013년 11월 7일 기준 「e-나라지표」는 5개의 대분류, 42개의 중분류, 167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5개의 대분류는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로 구성되며 각각은 다시 중분류, 소분류의 하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e-나라지표」의 총량지표는 국토인구, 행정일반, 자치행정, 공동체 4개 부문의 49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 중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영역 수준에서 재분류 가능한 지표는 40개로 약 81.8%를 차지한다. 하위부문별로는 행정일반 부문에 속한 지표들의 재분류 수준이 68.2%로 타 부문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부문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경제부문은 18개의 중분류와 317개의 방대한 수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전체 「e-나라지표」의 44.1%를 차지한다. 경제부문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를 시도한 결과, 317개 지표 중 243개 지표(76.7%)가 영역 수준에서 재분류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표의 분류 가능성은 하위 부문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거시경제, 금융, 중소기업, 부동산, 과학기술 부문 등의 지표들은 모두 재분류 가능하였으나, 조달(12.5%), 특허(12.5%), 재정(32.7%), 공정거래(42.9%), 해양(64.3%) 부문의 지표들은 재분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e-나라지표」와 「국가주요지표」는 지표수가 각각 719개와 321개(국제비교지표 제외)로 지표수의 차이로 인해 지표 간의 호환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e-나라지표」의 모든 지표가 「국가주요지표」와 호환된다고 하더라도 지표 일치도는 44.5%에 불과하게 된다. 현재 지표 일치도가 22.4%인데, 이는 지표수의 차이를 감안할 때 약 50%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국가주요지표」를 「e-나라지표」로 재분류하였을 때 약 50% 정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지표 간의 일치도를 분석할 때는 지표수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부문의 지표들을 살펴보았다. 「e-나라지표」의 사회부문은 총 11개의 중분류와 224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한 결과, 224개 지표 중 189개 지표(84.4%)가 재분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부문별로는 환경, 노동 부문의 지표들이 모두 재분류 가능한 반면, 보훈(12.5%), 청소년(37.5%), 해양경찰(66.7%) 부문 등의 지표들은 재분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e-나라지표」의 문화부문은 4개의 하위부문과 38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를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한 결과, 22개의 지표(57.9%)만 분류가 가능하였다. 특히 문화부문의 하위부문 중 문화재 부문은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재 관련 지표들은 모두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분류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e-나라지표」의 정부부문은 외교, 통일, 국방, 병무, 법무의 5개 중분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총 91개의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를 시도한 결과, 전체 91개 중 28개의 지표(30.8%)만 재분류가 가능하였다. 하위부문별로 재분류 수준을 살펴보면, 법무 부문이 56.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외교와 국방 부문은 각각 6.3%와 5.9%로 매우 낮은 편이고, 통일이나 병무 부문의 지표들은 모두 분류가 불가능하였다.

이상에서 「e-나라지표」의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 체계로 재분류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e-나라지표」는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영역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4%의 지표들은 분류가 전혀 불가능하다. 나아가, 두 지표체계에 포함된 개별 지표들의 일치도는 22.4%로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두 지표를 기존의 「e-나라지표」 웹사이트에서 함께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이유는 비교적 많은 국민이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가주요지표」 이용자들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는 지표의 목적이나 성격, 분류체계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지표체계이기 때문에 이 두 지표를 통합하기보다는 독립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V-5>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를 적용한 「e-나라지표」의 분류(영역)별 재분류 가능비율

「e-나라지표」 분류체계			「국가주요지표」 체계로의 재분류 가능여부			
대분류	중분류	지표수	분류 가능		분류 불가	
			지표수	비율(%)	지표수	비율(%)
총량지표	국토인구	11	11	100.0	0	0.0
	행정일반	22	15	68.2	7	31.8
	자치행정	15	13	86.7	2	13.3
	공동체	1	1	100.0	0	0.0
	소계	49	40	81.6	9	18.4
경제	거시경제	23	23	100.0	0	0.0
	금융	33	31	100.0	2	0.0
	재정	49	16	32.7	33	67.3
	산업동향	30	28	93.3	2	6.7
	공정거래	7	3	42.9	4	57.1
	중소기업	12	12	100.0	0	0.0
	건설	25	18	72.0	7	28.0
	부동산	20	20	100.0	0	0.0
	교통	15	14	93.3	1	6.7
	해양	14	9	64.3	5	35.7
	농업	18	14	77.8	4	22.2
	임업	12	10	83.3	2	16.7
	어업	4	3	75.0	1	25.0
	과학기술	14	14	100.0	0	0.0
	정보통신	18	17	94.4	1	5.6
	조달	8	1	12.5	7	87.5
	특허	6	1	16.7	5	83.3
	기상	9	9	100.0	0	0.0
	소계	317	243	76.7	74	23.3
사회	복지	30	25	83.3	5	16.7
	보건	18	17	94.4	1	5.6
	환경	25	25	100.0	0	0.0
	노동	33	33	100.0	0	0.0
	교육	41	40	97.6	1	2.4
	보훈	16	2	12.5	14	87.5
	여성/가족	22	19	86.4	3	13.6
	청소년	8	3	37.5	5	62.5
	경찰	14	12	85.7	2	14.3
	해양경찰	6	4	66.7	2	33.3
	재난안전	11	9	81.8	2	18.2
	소계	224	189	84.4	35	15.6
문화	문화/예술/산업	16	11	68.8	5	31.3
	관광	7	5	71.4	2	28.6
	체육	7	6	85.7	1	14.3
	문화재	8	0	0.0	8	100.0
	소계	38	22	57.9	16	42.1
정무	외교	16	1	6.3	15	93.8
	통일	7	0	0.0	7	100.0
	국방	17	1	5.9	16	94.1
	병무	5	0	0.0	5	100.0
	법무	46	26	56.5	20	43.5
	소계	91	28	30.8	63	69.2
합계		719	522	72.6	197	27.4

VI. 「국가주요지표」 DB의 운영과 관리 방안

「국가주요지표」 사업이 유지, 발전하려면 지표체계는 시의에 맞게 개선되고 지표 DB는 부단히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표 체계의 개선 연구와 DB의 업데이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수행해야 하고 거버넌스 체계도 이러한 업무를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표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 체계와 구성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지표 DB의 업데이트는 해당 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해지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업의 실행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는 이러한 연구와 업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지표 DB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DB 개선 연구와 업데이트

가. 개선 연구

이 연구에서 「국가주요지표」의 DB는 불과 6개월 동안에 개발되었다. 기존의 지표 연구들과 주요 국가지표들의 검토를 통해서 개념 틀을 정립하고 지표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데 2개월, 정립된 지표체계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DB를 구축하는 데 2개월, 그리고 구축된 DB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정, 보완을 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 연구자들은 주요 연구과정을 거칠 때마다, 즉 지표체계의 구성, 지표의 선정과 DB 구축,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마다 부문별 또는 인접영역별로 검토회의를 하고 지표체계와 지표 DB를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기간이 짧기는 하였으나 지표 DB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모두 하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DB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지표영역의 분류와 영역별 주요 지표의 구성 및 주요지표 DB 구성에 미비점들이 있고,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및 국제 비교지표들의 측정방법이 모두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요지표이나 자료의 부실 내지 부재로 포함시킬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았고, 지표 DB에 대한 의견수렴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하는 지표들은 대부분 개발에만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리고 발표한 후에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한다. 예컨대, 영국의 대표적 국가지표가 될 *Measuring*

*National Well-being*도 2010년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표 개발에 장시간이 걸리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지표영역의 구성과 지표선정에 의견을 수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국가지표는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개발 후에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효용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미진한 것을 보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민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계속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지표인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는 2002년에 출범하였는데 지금의 지표체계는 출범 당시의 체계와 크게 다를 정도로 개편되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가주요지표」도 후속 연구를 통해 수정, 보완하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지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지표체계와 지표 구성을 재검토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고, 원자료가 부실하여 적절성과 정확도의 수준이 낮은 지표들을 가려내어 적절하고 정확한 지표들로 대체해야 하고, 국가지표 작성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주관적 웰빙지표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 작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수행할수록 좋을 것이다.

「국가주요지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국민의 웰빙 및 국가발전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지표체계와 지표 구성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된 체계와 지표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지표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체계와 DB를 개선하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도 영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의견수렴을 포함하는 지표개발 연구를 부단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나. 신규지표 개발

신규지표는 「국가주요지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용한 통계의 부재 또는 부실로 향후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는 지표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의 내·외부 회의를 통해서 신규지표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나아가, 최근 OECD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로 중시하는 주관적 웰빙 지표 개발에 대한 문헌검토와 논의를 하였다. 이러한 논의 및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신규지표 개발 방향과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신규지표 개발 방향

<표 VI-1>은 지표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되었으나 「국가주요지표」로 선정되지 않은 지표들을 요약하고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지표들은 신규지표라기보다는 추가해야 할 지표로 제안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지표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는 「국가주요지표」로서 갖는 의의, 통계의 신뢰도 또는 가용 여부, 지표수의 한계, 영역 간 조율 문제 등이 고려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표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물리적 여건이 부족했던 점도 있다. 주요지표로 추가 제안된 지표들 중에는 ‘학교 폭력’과 같이 아동의 웰빙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나 신뢰할만한 통계의 부재로 선정이 유보된 지표들도 있다. 또한 연구진 내부에서 제안된 신규지표로 건강 영역 연구자가 제안한 ‘신체 비활성자’³⁾ 지표와 안전 영역 연구자가 제안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⁴⁾ 지표가 있다. 이 두 지표 역시,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국민의 웰빙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가용 통계의 부재로 지표선정이 불가능하였다. 그 외,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영역 연구자가 제안한 지표로 ‘어족자원량’⁵⁾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해 중요하고, 특히 국제비교를 위해 필요한 지표이지만 가용 통계의 부재로 향후 신규 개발이 필요

-
- 3) ‘신체 비활성자’ 지표의 의의: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의미 크다. “매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숨이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지표는 특히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호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주당 150분 미만 걷기 비율’로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있다.
- 4)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지표의 의의: 치안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존의 검거율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하지만 간접적인 측정이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이 검찰과 경찰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평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표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절차적 정당성 이론에 따른 치안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중요하다.
- 5) ‘어족자원량’ 지표의 의의: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서는 주로 ‘어족자원량’(fish stock)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는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이 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개체군(subpopulation)을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 내 어족 자원의 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다. 한국은 어족자원량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어족 자원과 어업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의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속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이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지표들 중에는 사회조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들도 있었다. ‘일-가정 양립 수준에 대한 주관적 지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관련 지표’, ‘간접흡연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정치효능감’ 등 주관적 웰빙과 관련된 지표의 필요성으로 제안된 것들이다.

<표 VI-1> 「국가주요지표」 DB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추가 지표

부문	영역	추가 지표
경제	국민계정	-
	재정과 금융	기업부채비율
	산업과 생산	주요 식량 수입현황 중소기업 퇴출율
	고용과 노동	복합 고용형태 근로자 비율 최근 3년 간 해고율 또는 구조조정률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1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 휴일·휴가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소득과 소비	1인당 소득대비 세금납부비율
사회	인구	한국인의 해외이주
	가구와 가족	이상자녀수 일-가정 양립 수준에 대한 주관적 및 객관적 지표 양육비용 관련 지표 비혼 성년자녀 부모와 동거 비율 손자녀 돌봄 제공 비율
	건강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관련 지표 간접흡연율 신체적 비활성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관련 지표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의 입원율
	교육	학업중단 후 학교 복교율 학교폭력 관련 지표 빈곤아동 비율
	문화와 여가	문화예술 관련 교육 수혜 여가제약 지역 간 문화활동의 격차
	주거	주택 대출 관련 지표 주택의 질 관련 지표

(표 계속)

<표 VI-1> 계속

부문	영역	추가 지표
사회	교통	보도면적 비율 자전거도로 연장
	안전	사이버범죄 법칙금 납부 건수 검찰과 법원의 효율성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사회통합	정치효능감 소득대체율 최저생계비 대비 연금의 실질적 혜택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매립·처리 적절성 관련 지표 화학사고 관련 지표 위해성관리 수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어족자원량(fish stock)* 습지 면적 내 생태계 건전성 측정 지표 취수원의 수질오염등급 1차 에너지 수입비중

주: 1)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논의 또는 제안된 지표들을 요약한 것임.

2) *표시는 연구진 내에서 제안된 신규지표임.

신규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 개선을 위한 후속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지표 개발 방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신규지표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웰빙과 국가 발전 지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빈곤아동’과 같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삶의 질 파악, 그리고 ‘노인독거가구’와 같이 고령화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삶의 질 파악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특정 지표가 한국 사회의 현황을 나타내는 현황통계로서 아무리 중요한 지표라고 할지라도 「국가주요지표」의 의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국가주요지표」로서의 가치는 낮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이유로 인해서 「국가주요지표」 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표들이 상당히 많았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경우에 그 지표가 「국가주요지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 우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진의 환경부문에서 제안한 ‘어족자원량’ 지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 수준의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웰빙 측정에는 신뢰할만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객관적 지표들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관적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주요지표」가 국민의 웰빙과 국가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게 하는 지표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관적 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

(2) 주관적 웰빙 지표 제안

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주관적 웰빙 지표는 삶의 질 측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주관적 웰빙 지표를 최대한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가용 통계의 제약으로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향후 「국가주요지표」에 신규로 추가할 지표들 중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표는 주관적 웰빙 지표이다. 주관적 웰빙 지표의 구축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와 주요 국가지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되 한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주관적 웰빙 지표의 영역 구성은 보편적 이론에 바탕을 두되, 정서 경험 등 구체적인 지표의 선정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연구진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주요지표」에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주관적 웰빙 지표를 <표 VI-2>와 같이 제안한다.

<표 VI-2> 「국가주요지표」의 주관적 웰빙 관련 신규지표(안)

영역	신규지표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Life evaluation)	삶의 영역별 만족도 - 건강, 일·생활 균형, 개인관계, 사회관계, 자연환경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소득, 소비, 일, 가족관계 및 여가 만족도는 「국가주요지표」에 포함됨)
정서(Emotion) 경험	긍정적 경험: 행복, 평안 부정적 경험: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번영(Psychological flourishing)	미래에 대한 낙관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성취감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 웰빙 영역은 「국가주요지표」 사회부문의 별도 영역으로 구성하고, 하위영역은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정서 경험, 심리적 번영의 세 범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영역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영역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구체적 삶의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 지표들이 포함된다. 현재

「국가주요지표」에는 소득, 소비생활, 일, 가족관계 및 여가에 대한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신규지표로는 「국가주요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들이 우선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건강, 일-가정 균형, 개인관계, 사회관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지표이다. 그러나 만족도 지표들은 동일한 척도로 측정되는 것이 영역 간 비교를 위해 바람직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지표들을 동일한 척도로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인 ‘정서 경험’ 영역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 정서 경험과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정서 경험의 유형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 추세이다(보고서 II장 참조).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서 경험에 대한 표현이나 문화적 수용에 있어서 서양과 차이가 있고, 정서 경험에 관한 조사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범위에서 그리고 한국인에게 생소하지 않은 정서 유형을 선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경험 지표로 행복과 평안, 부정적 정서 경험 지표로 우울과 스트레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번영’ 영역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자율성, 그리고 성취감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다.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지표의 개발과 활용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지표란 「국가주요지표」의 지표들 중에서 몇 개의 주요 차원 내지 주제, 즉 크로스커팅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지표들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주요지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웰빙과 국가의 발전 수준을 파악하게 해 주는 지표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국가발전 등의 여러 차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는 이러한 특정 차원 내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로스커팅 주제들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들 간에 지표가 중첩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커팅 지표 개발의 예시로서 「국가주요지표」체계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주요 개념인 ‘삶의 질(quality of life) 지표’와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지표’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각 주제 내 영역 구분과 지표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개발, 운영해 온 삶의 질 내지 웰빙 지표, 그리고 국가발전 지표체계들을 검토하여 영역 및 지표들을 추려 내었다.⁶⁾ 또한 「국가주요지표」에서 대시보드 지표⁷⁾로 엄선한 지표들을 고려하여 이들

6) 주요 국가들의 관련 지표체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 II장 2절을 참조할 것.

7)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시보드 지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V장 1절을 참조할 것.

을 크로스커팅 지표에 가급적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였다.

<표 VI-3>은 크로스커팅 지표로서 각각 ‘삶의 질 지표’와 ‘국가발전 지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삶의 질 지표’는 건강, 일과 여가, 교육, 가구, 사회적 관계, 안전, 주관적 웰빙의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 지표로는 건강 영역의 기대수명을 비롯하여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거환경만족도 지표에 이르기까지 총 33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삶의 질 지표’는 대체로 개인 수준의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거시 지표(예: 대기오염도)일지라도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발전 지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련 지표체계와 유사하게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지표의 선정은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표들로 선정하였는데, 경제부문의 국내총생산 지표를 비롯하여 환경부문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에 이르기까지 총 28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안하는 크로스커팅 지표들은 완결성을 가진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향후 「국가주요지표」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연구와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국가주요지표」 체계의 개선 연구에서 크로스커팅 지표 개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표 VI-3> 「국가주요지표」의 크로스커팅 지표(안)

지표 주제	영역	지표
삶의 질 지표	건강	기대수명, 신체활동실천율, 흡연율, 비만율, 의료비, 암생존율
	일과 여가	고용률, 근로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교육	교육년수, 대학졸업자취업률, 평생교육참여율
	가구	가구소득, 소득대비임대료(RIR), 자가점유율, 1인당 주거면적
	사회적 관계	대인신뢰도, 자살률, 사회적고립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안전	범죄율, 범죄피해율,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대기오염도
	주관적 웰빙	삶의만족도, 소득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여가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국가발전 지표	경제	1인당 국내총생산, 국가채무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고용률, 가구소득, 지니계수
	사회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민의료비, 암생존율, 공교육비, 교육년수,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범죄율, 대인신뢰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자살률, 여성의원비율,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공공복지예산
	환경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오염도, 환경보호비용, 연안습지면적, 1차에너지공급량, 재생가능에너지비율

라. 정책지표의 개발과 활용

「국가주요지표」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크로스커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지표(policy indicator)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책지표는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 및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를 말한다. 「국가주요지표」는 그 자체로 정책 목표 또는 결과 지표가 아니지만 정책 활용도를 지표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포함시킬 정도로 지표들의 정책적 함의와 활용도를 중시한다. 이에 「국가주요지표」 중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주요정책지표’로 관리할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에는 국가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구집단에 대한 현황 통계, 대상별 삶의 질의 현황 통계,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별 주요 통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과 정책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도가 크다.

「국가주요지표」를 통해서 정책지표를 도출해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정책의 범위와 주제가 매우 광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지표 개발의 예시로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지표들을 정책지표로 우선 선정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는 4대 목표, 10대 전략, 87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4대 국정 목표는 아래 [그림 VI-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부흥(3대 전략, 42개 과제), 국민행복(4대 전략, 64개 과제), 문화융성(3대 전략, 10개 과제), 평화통일 기반 구축(3대 전략, 13개 과제)이며, 이러한 정책 목표 외에 정책 추진기반 강화(1대 전략, 7개 과제)가 별도 전략으로 선정되어 있다.

「국가주요지표」에서 정책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먼저,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11대 전략(추진기반 포함)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가주요지표」 중에서 국정 세부과제와 관련 지표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과제별로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의 11대 전략에는 「국가주요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4대 국정 목표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 관련 내용은 「국가주요지표」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지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들, 예컨대, 경제민주화나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기초통계도 적은 편이고, 「국가주요지표」에도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지표에서도 배제시켰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10개 정책과제에 걸쳐 82개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VI-4 참조).

정책과제의 주제는 창조경제, 경제안정, 생활안정, 일자리, 복지, 문화향유, 사회통합, 거버넌스,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 등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주요정책지표’는 우선적으로 현재 「국가주요지표」에 있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국정과제를 모두 지표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분야(예: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진흥)의 경우

새롭게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과제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요정책지표’는 「국가주요지표」를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통계청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후속 사업으로 국정과제와 연동되는 정책지표를 개발하여 「국가주요지표」와 함께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1]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출처: 청와대 웹사이트(www.president.go.kr).

<표 VI-4> 「국가주요지표」의 크로스커팅 주요정책지표(안)

정책과제	정책지표
창조경제(7)	IT산업생산비율,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외국인직접투자비율, 노동생산성, 중소기업임금비율,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출원증가율
경제안정(10)	1인당 국내총생산,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정부세입구성, 정부지출구성,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비율, 금융자산비율, 대외채무비율, 코스피주가지수, 환율
생활안정(13)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소득대비임대료(RIR), 자가점유율, 가구소득, 지니계수, 공교육비, 사교육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교통비, 통근 시간, 물가상승률, 저축률
일자리(5)	고용률,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임금격차, 저임금근로자비율, 근로시간
복지(14)	공공복지예산, 공적연금수급률,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한부모가구비율, 이혼율, 학업중단을, 어린이집이용률, 부양인구비, 체류외국인, 건강인지를, 비만을, 암생존율, 합계출산율, 고령화지수
문화향유(5)	문화재정, 문화여가비, 문화예술관람률, 독서율, 여가시간
사회통합(6)	삶의만족도, 대인신뢰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사회적고립도, 사회이동가능성 인지도, 자살률
거버넌스(4)	선거투표율, 여성의원비율, 기관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안전(8)	범죄율, 범죄피해율, 범죄두려움,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자연재해피해액, 화재피해액,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산재사망률
지속가능한 환경(10)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오염도, 환경소음도,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보호비용, 경지면적, 연안습지면적, 1차에너지공급량,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주: 괄호 안은 해당 과제별 지표수임.

마. 지표 DB의 업데이트

「국가주요지표」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내지 수정,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표 DB도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지표 DB는 언제라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자료가 이용가능해지는 대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주요지표」 DB는 주요지표의 통계, 해설,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지표의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보조지표와 국제비교

지표도 업데이트 하고 해설도 보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특히 주요지표의 해설은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e-나라지표」의 국정통계는 부처별로 담당자가 업데이트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지표가 제때에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주요지표」의 경우 지표의 원자료가 정부의 산출물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고 지표 구성이 「e-나라지표」보다 복잡하여 지표 DB의 업데이트도 DB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수행하지 않으면 잘못되거나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2. 운영조직과 거버넌스

「국가주요지표」는 주요 국가통계 사업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목표들을 제시해 주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 지표가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사업 거버넌스의 주체는 정부이어야 한다.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제대로 시행,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던 거버넌스 체계는 해당 사업의 업무 성격과 수행 방법에 적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표 DB의 지속적인 개선과 업데이트이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 방식이 거버넌스 체계 구상의 전제적 고려 사항이라면, 먼저 어떤 방식으로 업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가. 업무조직

국가지표는 단순한 행정통계나 조사통계가 아니다. 지표는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일의 통계 수치이다. 따라서 국가지표 작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지표를 포함하는 국가지표는 지표 영역이 광범하여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작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국가주요지표」는 일반 행정가들이 아니라 포함되는 모든 영역들의 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집단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e-나라지표」는 38개 정부부처의 통계 또는 기획 담당 행정가들이 지표를 선정하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지표라기보다는 행정통계인 것들이 대다수 포함되

어 있고 지표 정의와 해설도 미진하다. 더 나아가 지표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없고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표 체계와 DB를 개선 내지 수정, 보완할 역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지표는 또한 정해진 체계와 선정 기준이 없이 정부 각 부처들이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계는 정부조직과 동일하고 지표 DB는 국가지표라기보다는 행정통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국가지표는 그 작성 목적에 따라 지표체계가 설계되어야 하고, 개별 지표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실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선정된 지표들의 지표작성 목적과의 부합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 DB의 구축과 운영에 지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국가지표인 *Germ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는 민간연구기관인 Leibniz Institut für Sozialwissenschaften의 GESIS(German Social Science Infrastructure Services)가 주관하여 작성하고, 미국은 *Key National Indicators*를 민간기관의 주관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는 통계청이 주관하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주요 국가지표들을 구축, 관리하고 있다.

「국가주요지표」 연구는 민간연구기관인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24명의 지표 연구 전문가들과 20명의 연구보조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팀을 만들어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규모 연구진을 구성한 것은 포함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DB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된 지표의 DB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고 지표체계는 주기적으로 개선 내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지표 체계와 DB 구축에서 요구되었던 규모의 연구팀을 상시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표 DB의 운영도 그 개발에 참여하였던 전문가 집단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연구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연구기관으로는 정부산하의 기관보다 민간기관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부처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정부가 개입하면 지표 관련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중립성을 엄중히 지키기가 어려운 반면에, 민간연구기관들은 모든 영역의 전문 학자들로 지표연구 조직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민의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주요지표」 개발의 연구는 3개의 연구팀, 즉 경제지표 연구팀, 사회지표 연구팀 및 환경지표 연구팀을 구성하여 수행하였다. 경제지표 연구팀은 연구책임자 1명과 이 부문에 포함된 5개 영역 각각의 지표연구를 담당할 해당 영역의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지표 연구팀은 연구책임자 1명과 9개 영역 전공학자들로, 그리고 환경지표 연구팀은 나뉜 영역이 2개뿐이어서 2명의 학자들로 구성하였다. 이들과는 별도로 연구 조정 및 협력 업무를 맡은 학자 2명과 DB 시스템과 편집 전문가 3명이

참여하였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맡을 기관도 그 개발을 수행한 연구팀과 유사한 방식의 연구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지표의 개선 연구와 지표 DB의 업데이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조직은 개발의 경우와는 다르게 지표 DB를 개선 내지 유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연구팀보다는 전문위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국가지표 사업은 한정된 기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되는 사업이고 전문가들의 한정된 참여만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주요지표」 개발의 경우와는 다르게 영역별 연구보조원이 필요가 없고 부문별로 지표 DB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지표 DB 작성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

전문위원들은 지표 개발 연구팀과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다. 9개 영역이나 되어 영역 간 업무 조정이 어려운 사회부문은 영역 간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고 2개 영역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분과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환경부문의 영역들을 2개의 사회부문 분과위원회 중 관련성이 큰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조직된 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국가주요지표」 전문위원의 구성

경제지표 전문위원: 분과위원장과 국민계정, 재정과 금융, 산업과 생산, 고용과 노동 및 소득과 소비 등 5개 영역 업무를 담당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지표 전문위원: 분과위원장과 인구, 가족, 건강, 교육, 문화 및 사회통합 등 6개 영역 업무를 담당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

사회환경지표전문위원: 분과위원장과 주거, 교통, 안전,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 등 5개 영역 업무를 담당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

나. 거버넌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지표 DB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주요지표」 운영을 위한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국가정책지표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이 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청 등 다섯 곳을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및 민관협력 용이성 측면에서 비교하고 단기적으로는 국가통계위원회의의 분과위원회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장기적으로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적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결론은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실제로 관장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표 업무의 운영과 관리 능력보다는 일반적 행정력의 측면에서 강약점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비교 검토한 다섯 가지 대안을 「국가주요지표」 업무의 운영과 관리 능력 면에서 어떤 강약점이 있는지를 재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와대의 직속위원회로 설치하는 안부터 보자. 「국가주요지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나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관장해야 할 만큼 큰 국가적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일정한 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라 일단 제도화되면 일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청와대에 「국가주요지표」를 위한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은 전문성의 면에서 보나 청와대 역할의 면에서 보나 적절한 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주요지표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전문성의 면에서나 정부조직의 면에서나 모두 적합하지 않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현행 「e-나라지표」의 국정통계 사업과 통합하여 시행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e-나라지표」 사업은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에 의한 통합 관리가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주요지표」 사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기획재정부의 직할 위원회로 설치하는 안이고, 네 번째 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안이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정부통계의 모든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통계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따라서 「국가주요지표」에 관한 주요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기획재정부 산하에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네 번째 안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문인력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령 개정이 없이도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범부처적 구속력과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범부처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기는 하나 있어서 통계 관련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은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행법 상 국가통계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국가통계위원회이나 이 위원회는 국가통계의 일반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지 각 통계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 사항까지 심의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네 번째 안, 즉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관리할 기관을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은 통계청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지표 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이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가장 잘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통계청이다. 그러나 동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통계청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안은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강하나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및 민관협력 용이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추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주요지표」 사업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통계청 산하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법적통제력은 법령에 의해 행사되는 것이니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처럼 상위 기관이라고 해서 강한 것은 아니다. 통계청이 강한 법적통제력을 갖도록 「국가주요지표」 사업의 운영 규정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아니다. 범부처성과 민관협력 능력의 경우도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상급 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서 범부처성과 민관협력에 강한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범정부성과 민관협동 능력은 통계 이외의 업무에서는 약할 수 있으나 통계업무에서는 가장 강할 것이다. 「국가주요지표」 사업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중요하나 범부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범부처성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국가지표 사업은 국회나 정부에서 발의되거나 DB구축을 포함하는 관련 업무는 모두 통계청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한국도 이로부터 예외일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가지표는 민의를 수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 관련 사항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협의체로 가장 적절한 조직은 민간인과 관료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통계청장과 협력연구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계청과 협력연구기관 양측이 3-5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가칭 ‘국가주요지표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국가주요지표위원회의 구성

공동위원장: 통계청장과 연구협력기관장

위원: 통계청 국장급 이상 3-5명과 정교수급 사회과학자 3-5명 동수로 구성

다. 법제화

「국가주요지표」가 의도된 기능을 하면서 영속하려면 기능 수행과 영속이 가능하

도록 법제화되어야 한다. 통계청은 「국가주요지표」를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할 계획이나 두 지표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법제화할 수는 없다. 현행 「e-나라지표」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주요지표」는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에 사업 목적과 운영 방법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e-나라지표」와는 별도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주요지표」는 현행 「e-나라지표」와 작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도 다르다. 전자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그 체계는 웰빙지표와 국가발전지표 체계의 결합 방식으로 구축되었고, 후자는 국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계는 정부의 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지표 DB의 구성 방법과 주관자도 다르다. 전자는 주요지표와 주요지표의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로 구성되나, 후자는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표들의 나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자는 통계청의 주관 하에 지표 전문가들의 팀웍으로 작성, 관리될 것이나, 후자는 정부의 38개 기관 담당자들이 각각 작성, 관리한다. 따라서 두 지표는 단일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될지라도 통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통계청의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라 「e-나라지표」에 수록되어 있는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여 연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 두 지표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DB시스템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이 두 지표는 성격이 다르고 지표 DB의 구성 항목들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합 검색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지표를 기존의 「e-나라지표」 웹사이트에서 함께 제공하려는 이유는 비교적 많은 국민이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국가주요지표」 이용자들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서로 다른 복수의 지표들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주요지표」와 현행 「e-나라지표」는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두 지표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지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수 있다면 단일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가지표와 국정통계는 공유 내지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지표를 단일의 체계로 통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두 지표의 작성 목적뿐만이 아니라 DB 체계와 구성 및 작성 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석호. 2013. “삶의 질 연구 해외사례와 시사점.”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통계개발원.
- 박명호·이재열·전홍택·이영섭·오완근·장덕진·장용석·한상범. 2009. 『한국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II):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주언·심수진·이희길. 2012.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청 통계개발원.
- 석현호·이재열·한준·홍종호·김석호. 2012.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I: 기본체계의 개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이민호·이광희·윤수재·류현숙·윤광석. 2012.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재열. 2009. “사회 발전과 측정.” 『OECD 세계 포럼의 이해』. 통계청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 이희길·심수진. 2009. 『삶의 질과 사회지표 체계 연구』.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준·강석훈·김석호·서은국·홍종호. 2011. 『국민 삶의 질 측정 2011』. 한국사회학회.
- Allardt, Erik. 1993. “Having, Loving, Being: An Alternative to the Swedish Model of Welfare Research.”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3.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2013.”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mf/1370.0>
- Beham, Barbara, Sonja Drobnič, and Roland Verwiebe. 2006.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Concepts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of Quality of Life and Work.” *EU-Project Quality*. University of Utrecht.
- Bell, Simon, and Stephen Morse. 2008. *Sustainability Indicators: Measuring the Immeasurable?* Second Edition.
- Brundtland Commission. 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United Nations.
- Campbell, Angus. 1972. “Aspiration,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ited by A. Campbell, and P. Convers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bb, Clifford, and Craig Rixford. 1998. “Lessons Learned from the History of Social Indicators.” *Redefining Progress*. San Francisco.
- Diener, Ed.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d.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d., D. Wirtz, W. Tov, C. Kim-Prieto, D. Choi, S. Oishi, and R. Biswas-Diener.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 143–156.
- Drexhage, John, and Deborah Murphy.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Brundtland to Rio 2012." Background Paper prepared for consideration by the High 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 at its first meeting. United Nations.
- Duncan, O.D. 1969. *Toward Social Reporting: Next Steps*. New York: Russell Sage.
- Eckersley, Richard. 1998. "Perspectives of Progress: Economic Growth, Quality of Life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Measuring Progress: Is Life Getting Better?* Edited by R. Eckersley. Collingwood: CSIRO Publishing.
- Edwards, Andres R. 2005. *The Sustainability Revolution*. Gabriola Island, BC: New Society Publishers.
- Erikson, Robert. 1974. "Welfare as a Planning Goal." *Acta Sociologica* 17(3): 273–288.
- European Commission, 2009.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http://www.beyond-gdp.eu>.
- Hagerty, Michael R., Robert A. Cummins, Abbott L. Ferriss, Kenneth Rand, Alex C. Michalos, Mark Peterson, Andrew Sharpe, Joseph Sirgy, and Joachim Vogel.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Hagerty, Michael R., and Kenneth Rand. 2012. "Issues in Composite Index Construction: The Measurement of Overall Quality of Life."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Edited by Kenneth C. Land, Alex C. Michalos, and M. Joseph Sirgy.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V.
- Hall, John, Enrico Giovannini, Adolfo Morrone, and Giulia Ranuzzi. 2010. "A Framework to Measure the Progress of Societi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0/0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m4k7mnrkzw-en>.
- Henderson, Hazel. 1991. *Paradigms in Progress: Life Beyond Economics*. Indianapolis: Knowledge Systems.
- Land, Kenneth C., Alex C. Michalos, and M. Joseph Sirgy. 2012. "Prologue: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Research on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QOL)." *Handbook of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B.V.

- Noll, Heinz-Herbert. 2011. "The Stiglitz-Sen-Fitoussi-Report: Old Wine in New Skins? Views from a Social Indicators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 111–116.
- Noll, Heinz-Herbert. 2002a. "Social Indicators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Background, Achievements and Current Trends." *Advances in Sociological Knowledge over Half a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 Noll, Heinz-Herbert. 2002b. "Towards a European System of Social Indicators: Theoretical Framework and System Architectur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8(1–3): 47–87.
- Nussbaum, and A. Sen. 1993. *The quality of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 OECD.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shing. <http://www.oecd.org/dataoecd/37/42/42495745.pdf>
- Perman, R.J., Y. Ma, J. McGilvary, and M. Common. 2003.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Economics*. Third edition. Boston: Addison Wesley Longman.
- Pigou, A.C. 1929. "The Monetary Theory of the Trade Cycle." *Economic Journal* 39(154): 183–194.
- Ryff, C.D., and Keyes, C.L.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neider, Mark.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3): 297–305.
- Schuessler, K.F., G.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Self, Abigail, and Chris Randall. 2013.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Review of domains and measures, 2013." Published as part of the ONS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Programm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www.ons.gov.uk/ons/dcp171766_308821.pdf.
- Sen, Amartya. 1993. "Capability and Well-Being." *The Quality of Life*. Edited by Martha Nussbaum, and Amartya 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arpe, Andrew. 1999. "A Survey of Indicators of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Paper prepared for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 Canada.

- Starik, Mark, and Gordon P. Rands. 1995. "Weaving an Integrated Web: Multilevel and Multisystem Perspectives of Ecologically Sustainable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4): 908–935.
- Starik, Mark, and Patricia Kanashiro. 2013. "Toward a Theory of Sustainable Management: Uncovering and Integrating the Nearly Obvious."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26(1): 7–30.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and Jean–Paul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Stoll, Laura, Juliet Michaelson, and Charles Seaford. 2012. *Well–Being Evidence for Policy: A review*. New Economics Foundation. London.
- Trewin, Dennis, and John Hall. 2004.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A Case Study of A National Report Based on Ke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Indicators."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 United Nations. 1989. *Handbook on Social Indicators*. Studies in Methods Series F/49. 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al Office. New York.
- United Nations. 1987. *Our Common Future: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van der Maesen, Laurent J.G., and Alan C. Walker.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ISSUE 1/2): 8–24.
- Veenhoven, R.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Veenhoven, R. 1996. "Happy Life Expectancy: A Comprehensive Measure of Quality of Life in N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9: 1–58.
- Wackernagel, Mathis, and William Rees. 1996. *Our Ecological Footprint*. New Society Press.
- Wang, Lih–Rong. 2009. "Asian Social Quality Indicators: What is Unique?" *Development and Society* 38(2): 297–337.

부 록

부록 1.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 노동소득분배율	•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 투자율	• 건설투자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 투자율
		대외거래	•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 수출입비율	•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 수출입비율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정부세입구성		• 정부세입구성
			• 정부지출구성		• 정부지출구성
		재정안정성	• 국가채무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 공공부문채무비율	• 국가채무비율
			• 재정수지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 재정수지비율
		금융시장규모	• 금융자산비율	• 주식시가총액비율 • 기업공개실적 • 총여신비율	• 금융자산비율
		금융시장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BIS자기자본비율
			• 대외채무비율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비율	• 대외채무비율
		금융시장	• 국고채금리	• 기준금리 • 콜금리, 회사채금리	• 해외주요시장금리 • 해외주요정책금리
			• 코스피주가지수	• 코스닥주가지수	• 해외주요주가지수
			• 환율		• 해외주요통화환율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 산업구성	• 산업집중도 • 식량자급률 • 전력공급예비율 • 서비스업 산업구성	• 산업구성
			• IT산업생산비율	• 반도체생산 • 디스플레이생산 • 바이오산업생산 •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 노동생산성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노동생산성
			• 중소기업임금비율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투자비율
			• 특허출원증가율	• 연구개발지출대비특허출원수 • 한국의 세계기술혁신순위 •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순위	• 특허출원수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 고용률	• 고용률(OECD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비임금근로자비율	• 고용주비율 • 자영업자비율 • 무급가족종사자비율	• 비임금근로자비율
			• 취업자의 산업구성	• 서비스업취업자비율 • 취업자의 직업구성	• 제조업취업자비율 • 도소매·숙박업취업자비율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취업자비율
		임금	•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 한시적근로자비율 • 시간제근로자비율
			•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근로조건	• 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 취업자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산재사망률	• 산업재해율	
			• 일자리만족도	• 임금만족도 •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 노동조합조직률	• 근로손실일수	• 노동조합조직률 • 단체협약적용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 개인소득	• 소득만족도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가구소득변화인식	• 가구소득
			• 가구자산	•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 가구 자산과 부채 •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 소비지출	• 소득대비소비지출 • 가구 소비지출구성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지출
			• 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저축	• 저축률		• 가계저축률
사회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 인구	• 총인구 • 도시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조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인구비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 평균가구원수		• 평균가구원수
			• 한부모가구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조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조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이용률
			•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건강인지율		• 건강인지율
		건강결정요인	• 흡연율	• 간접흡연율 • 청소년흡연율	• 흡연율
			• 음주율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신체활동실천율	• 걷기실천율	• 신체활동실천율
			• 비만율		• 비만율
		보건의료서비스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교육	교육기회	•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 사교육비	• 사교육참여율 • 교육비	
			•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학업중단율	• 취학률
			• 평생교육참여율	• 평생교육참여시간	•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내용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습시간	•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 사교육시간	• 학습시간
		교육효과	• 교육년수	• 고등교육이수율	• 교육년수
			• 기초학력미달률	•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 대학졸업자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니트(NET)비율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 문화재정		
			• 문화여가비	•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문화여가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 독서율	• 서적종류별 독서율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경기관람률	
			• 여가시간	•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 휴가활동률	•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		
		미디어	•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주거	주택공급·관리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수 • 멸실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가격변동률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자가점유율	• 주거점유형태 •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 자가점유율
			• 1인당 주거면적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주거환경만족도	• 주택만족도	
	교통	교통공급	•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 도로연장 • 철도연장	•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교통수요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대중교통만족도 • 자동차평균주행속도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통근시간	• 통학시간 •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 통근시간
		교통환경	• 자동차에너지소비량	• 차종별 평균연비 •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 교통비	• 소비수준별 교통비	
			•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교통사고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안전	범죄	• 범죄율	• 범죄자수 • 소년범죄자율	• 살인범죄율
			• 범죄피해율		
			• 재범률	• 교도관수대비1일평균수용자수	
		치안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 인구 10만명당 민간경비원수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재해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인식도	•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 선거투표율		• 선거투표율
			• 여성의원비율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여성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 기관신뢰도		• 기관신뢰도
			• 대인신뢰도		• 대인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후원 및 기부 참여율	
			• 사회적고립도		• 사회적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관적계층인식	
			• 삶의만족도		• 삶의만족도
			• 자살률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예산		• 공공복지예산
			•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기초생활보장수급률	•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도
			• 환경소음도	• 소음진동민원건수	
		물환경	• 하수도보급률	• 하천수질오염도	•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 상수도보급률
		폐기물·유해물질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화학물질배출량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 환경보호비용	• 환경예산	• 환경보호비용
			• 환경향상체감도	•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종	• 야생생물유전자원	• 멸종위기종
			• 자생생물종	• 농업종자유전자원	•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 경지면적		• 1인당 경지면적
			• 생태경관보존면적		• 생태보호지역면적
			• 유기농경작면적률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 유기농경작면적률
			• 산림면적	•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연안습지면적	• 해양보호구역면적	• 습지면적
		수자원	• 1인당 취수량	• 지하수이용량	•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 1차에너지공급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 • GDP대비에너지소비량	• 1차에너지공급량
			• 전력생산량	• 1인당 전력소비량 • GDP대비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 재생가능에너지시설용량 •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부록 2. 「e-나라지표」의 재분류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1	총량지표	국토/인구	국토현황/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2	총량지표	국토/인구	국토현황/이용	국토현황(행정구역별, 소유자별, 지목별)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3	총량지표	국토/인구	수도권현황	수도권과 지방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4	총량지표	국토/인구	지역현황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사회	인구	인구규모
5	총량지표	국토/인구	지역현황	지역내총생산(GRDP)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6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구조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사회	인구	인구규모
7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구조	총인구, 인구성장률	사회	인구	인구규모
8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변동	출생 사망 추이	사회	인구	인구변화
9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변동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사회	인구	인구변화
10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변동	국내인구 이동	사회	인구	인구변화
11	총량지표	국토/인구	인구변동	국제인구 이동	사회	인구	인구변화
12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부조직	정부위원회수 현황	분류불가		
13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부조직	정부기구 추이	분류불가		
14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부조직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분류불가		
15	총량지표	행정일반	공직채용/지원	공무원단체 가입현황	분류불가		
16	총량지표	행정일반	공직채용/지원	공무원 보수 추이	경제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
17	총량지표	행정일반	공직채용/지원	공무원 개방형 임용 추이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18	총량지표	행정일반	공직채용/지원	공무원 채용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19	총량지표	행정일반	공직채용/지원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20	총량지표	행정일반	전자정부	공공정보 개방 현황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21	총량지표	행정일반	전자정부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이용현황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22	총량지표	행정일반	전자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	사회	사회통합	기타
23	총량지표	행정일반	전자정부	UN 전자정부 지수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24	총량지표	행정일반	전자정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	사회	사회통합	기타
25	총량지표	행정일반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조정합의 현황	사회	사회통합	기타
26	총량지표	행정일반	고충민원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사회	사회통합	기타
27	총량지표	행정일반	청렴/부패	부패인식지수(CPI)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28	총량지표	행정일반	청렴/부패	공공기관 청렴도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29	총량지표	행정일반	청렴/부패	부패 인식도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30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보공개	국가기록물 보유 현황	분류불가		
31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보공개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	분류불가		
32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보공개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분류불가		
33	총량지표	행정일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율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34	총량지표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사회	인구	인구규모
35	총량지표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	사회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36	총량지표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사회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37	총량지표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분류불가		
38	총량지표	자치행정	자치행정일반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분류불가		
39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40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41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자치단체 기금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42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43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교부세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44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45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자치단체 채무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46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채무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47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지방재정 규모(세외수입 포함)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48	총량지표	자치행정	지방재정	중앙정부의 지방이전 재원 규모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49	총량지표	공동체	사회참여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사회	사회통합	사회적 관계
50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서비스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51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전산업생산지수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52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소비동향	경제	소득과 소비	소비와 물가
53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54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설비투자 동향	경제	국민계정	투자
55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건설투자 동향	경제	국민계정	투자
56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노동생산성 지수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57	경제	거시경제	실물경제	광공업생산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58	경제	거시경제	경기동향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59	경제	거시경제	경기동향	경기종합지수	경제	국민계정	기타
60	경제	거시경제	경기동향	소비자동향지수(CSI)	경제	소득과 소비	소비와 물가
61	경제	거시경제	물가동향	생산자물가지수	경제	소득과 소비	소비와 물가
62	경제	거시경제	물가동향	소비자물가지수	경제	소득과 소비	소비와 물가
63	경제	거시경제	물가동향	수출입물가지수	경제	국민계정	대외거래
64	경제	거시경제	고용동향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65	경제	거시경제	대외거래	수출입 동향	경제	국민계정	대외거래
66	경제	거시경제	대외거래	10대 수출입 품목	경제	국민계정	대외거래
67	경제	거시경제	대외거래	해외직접투자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8	경제	거시경제	외환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69	경제	거시경제	외환	환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
70	경제	거시경제	외환	외환보유액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71	경제	거시경제	대외신인도	외평채 스프레드 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72	경제	거시경제	대외신인도	국가신용등급 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73	경제	금융	금융일반	어음부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74	경제	금융	금융일반	새마을금고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75	경제	금융	금융일반	신용카드 이용실적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76	경제	금융	금융일반	시장금리 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
77	경제	금융	금융일반	통화량 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78	경제	금융	대출시장	기업자금조달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79	경제	금융	대출시장	신용보증 규모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80	경제	금융	대출시장	가계신용 동향	경제	재정과 금융	기타
81	경제	금융	자본시장	주가지수-코스닥 종합지수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2	경제	금융	자본시장	회사채 발행규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3	경제	금융	자본시장	시가총액 대비 투신편입 주식, 채권 비중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4	경제	금융	자본시장	코스피 200 선물 거래 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
85	경제	금융	자본시장	소유자별 주식소유 분포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6	경제	금융	자본시장	채권발행/유통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7	경제	금융	자본시장	펀드 수탁고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8	경제	금융	자본시장	상장회사수, 시가총액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89	경제	금융	자본시장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90	경제	금융	자본시장	유상증자 실적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91	경제	금융	자본시장	기업공개실적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규모
92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Coverage Ratio)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3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4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자산운용회사 영업용 순자본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5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상호저축은행 고정이자 여신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6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 연체대출채권 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7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8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 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99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신용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100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은행 총자산이익율(ROA)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101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은행 고정이하여신비용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102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신탁순자본 비율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103	경제	금융	금융건전성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생보, 손보)	경제	재정과 금융	금융시장안정성
104	경제	금융	보험시장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규모	분류불가		
105	경제	금융	보험시장	보험회사 자산 현황	분류불가		
106	경제	재정	재정일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경제	국민계정	대외거래
107	경제	재정	재정일반	부담금 규모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08	경제	재정	재정일반	추경편성 추이	분류불가		
109	경제	재정	재정일반	투자기관 산하기관 경영정보(자산규모)	분류불가		
110	경제	재정	재정일반	공공기관 임직원 현황	분류불가		
111	경제	재정	재정일반	IMD, WEF 재정건전성 순위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112	경제	재정	재정일반	국가채권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113	경제	재정	재정일반	투자기관 산하기관 경영정보(손익)	분류불가		
114	경제	재정	재정일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분류불가		
115	경제	재정	재정일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116	경제	재정	재정일반	통합재정수지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117	경제	재정	재정일반	국유재산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18	경제	재정	재정일반	국가채무추이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안정성
119	경제	재정	분야별재정규모	정부재정 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20	경제	재정	기금/공적연금	연기금 투자율 수익률	분류불가		
121	경제	재정	기금/공적연금	연기금 투자율 수탁규모	분류불가		
122	경제	재정	기금/공적연금	기금 운용규모	분류불가		
123	경제	재정	민간투자	민간투자사업 현황	경제	국민계정	투자
124	경제	재정	국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분류불가		
125	경제	재정	국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분류불가		
126	경제	재정	국세	연도별 사업자 현황	분류불가		
127	경제	재정	국세	주류 출고량 현황	분류불가		
128	경제	재정	국세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현황	분류불가		
129	경제	재정	국세	외국법인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분류불가		
130	경제	재정	국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	분류불가		
131	경제	재정	국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현황	분류불가		
132	경제	재정	국세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현황	분류불가		
133	경제	재정	국세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분류불가		
134	경제	재정	국세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현황	분류불가		
135	경제	재정	국세	국세수입실적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36	경제	재정	국세	탈세제보자료 처리 현황	분류불가		
137	경제	재정	국세	주세 신고현황	분류불가		
138	경제	재정	국세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분류불가		
139	경제	재정	국세	세무조사 추이	분류불가		
140	경제	재정	국세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분류불가		
141	경제	재정	국세	양도소득세 부과현황	분류불가		
142	경제	재정	국세	법인세 신고현황	분류불가		
143	경제	재정	국세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분류불가		
144	경제	재정	국세	개별(특별)소비세 신고 현황	분류불가		
145	경제	재정	국세	조세부담률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46	경제	재정	국세	국세 및 지방세 비중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147	경제	재정	국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분류불가		
148	경제	재정	국세	근로소득세 신고(지급조서 제출)현황	분류불가		
149	경제	재정	관세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분류불가		
150	경제	재정	관세	외환사범 단속 현황	사회	안전	범죄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151	경제	재정	관세	밀수 등 관세·부정무역사범 단속 현황	사회	안전	범죄
152	경제	재정	관세	관세 환급실적(환급방법별)	분류불가		
153	경제	재정	관세	미약 밀수 검거 추이	사회	안전	범죄
154	경제	재정	관세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	분류불가		
155	경제	산업동향	무역투자일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56	경제	산업동향	무역투자일반	플랜트 수출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57	경제	산업동향	무역투자일반	무역구제제도 연도별 발생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58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59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산업기술인력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60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기술거래시장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161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한국산업규격(표준화)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162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석유화학분야)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3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철강분야)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4	경제	산업동향	산업일반동향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5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일반기계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6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7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항공우주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8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바이오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69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부품소재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0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철강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1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섬유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2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디자인산업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3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자동차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4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석유화학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5	경제	산업동향	개별산업동향	조선산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76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국내광업권 등록현황	분류불가		
177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원자력 발전량 현황 및 전망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78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석유수급 동향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79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전력수급 동향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80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가스(LNG)수급 동향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81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82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해외자원 개발현황	분류불가		
183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84	경제	산업동향	에너지/자원	에너지 수급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185	경제	공정거래	경쟁정책	기업결합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86	경제	공정거래	경쟁정책	시장집중도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87	경제	공정거래	대기업시책	지주회사 현황	분류불가		
188	경제	공정거래	대기업시책	채무보증 현황	분류불가		
189	경제	공정거래	대기업시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현황	분류불가		
190	경제	공정거래	중소기업보호시책	하도급거래관행 개선	분류불가		
191	경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시책	소비자 피해구제 상황(분쟁조정기구 운영)	사회	사회통합	기타
192	경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 신설법인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93	경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제조업 인력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94	경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제조업 경영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95	경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제조업 생산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96	경제	중소기업	중소기업일반	중소기업 일반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197	경제	중소기업	금융지원	자영업주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198	경제	중소기업	창업벤처지원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199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재래시장	소상공인경기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00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재래시장	소상공인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201	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재래시장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202	경제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현황	벤처기업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03	경제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금융지원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204	경제	건설	도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분류불가		
205	경제	건설	도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	분류불가		
206	경제	건설	도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분류불가		
207	경제	건설	도시	도시계획사업 현황	분류불가		
208	경제	건설	도시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209	경제	건설	도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분류불가		
210	경제	건설	도시	도시 일반현황	사회	인구	인구규모
211	경제	건설	도로	고속국도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2	경제	건설	도로	유료도로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3	경제	건설	도로	일반국도 관리연장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4	경제	건설	도로	도로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5	경제	건설	도로	도로보급률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6	경제	건설	도로	일 평균 도로교통량	사회	교통	교통수요
217	경제	건설	도로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8	경제	건설	도로	자전거도로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19	경제	건설	도로	고속국도 차량이용 현황	사회	교통	교통수요
220	경제	건설	수자원	수자원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221	경제	건설	수자원	광역상수도 및 공급용수도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222	경제	건설	수자원	댐 저수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223	경제	건설	수자원	지하수 이용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224	경제	건설	수자원	하천정비(제방)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수자원
225	경제	건설	건설경제/기술	해외건설수주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26	경제	건설	건설경제/기술	건설투자동향	경제	국민계정	투자
227	경제	건설	건설경제/기술	건설수주 동향	분류불가		
228	경제	건설	건설경제/기술	골재허가실적 및 채취실적	분류불가		
229	경제	부동산	건축	건축허가 및 착공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0	경제	부동산	건축	건축물 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1	경제	부동산	주택	택지공급/지정 실적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2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멸실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3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매매가격 동향	사회	주거	주택시장
234	경제	부동산	주택	공동주택 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5	경제	부동산	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6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 미분양 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7	경제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 재고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8	경제	부동산	주택	유형별재고주택현황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39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전세가격 동향	사회	주거	주택시장
240	경제	부동산	주택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	사회	주거	주택시장
241	경제	부동산	주택	자가점유비율	사회	주거	주거상황
242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보급률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43	경제	부동산	주택	인구 천명당 주택수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44	경제	부동산	주택	주택건설인허가실적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45	경제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 건설실적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46	경제	부동산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 실적	사회	주거	주택공급·관리
247	경제	부동산	토지	토지거래동향	사회	주거	주택시장
248	경제	부동산	토지	지가동향	사회	주거	주택시장
249	경제	교통	교통/물류	도로교통 혼잡비용	사회	교통	교통비용
250	경제	교통	교통/물류	국가물류비 현황	사회	교통	교통수요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251	경제	교통	교통/물류	수송량 및 수송분담율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2	경제	교통	철도	철도화물수송 추이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3	경제	교통	철도	철도사고	사회	교통	교통사고
254	경제	교통	철도	철도여객수송 추이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5	경제	교통	철도	KTX 여객 수송동향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6	경제	교통	철도	철도공사 경영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에너지
257	경제	교통	항공	항공노선 취항 추이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8	경제	교통	항공	항공 여객 수송(국내, 국제)	사회	교통	교통수요
259	경제	교통	항공	항공 화물 수송(국내, 국제)	사회	교통	교통수요
260	경제	교통	항공	인천공항 물동량 및 한적률	사회	교통	교통수요
261	경제	교통	육상교통	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사회	교통	교통수요
262	경제	교통	육상교통	수송수단별 여객 수송	사회	교통	교통수요
263	경제	교통	육상교통	자동차 등록 현황	사회	교통	교통공급
264	경제	해양	해운일반	해운 서비스 외화가득액 증가 추이	분류불가		
265	경제	해양	해운일반	국내여객수송실적	사회	교통	교통수요
266	경제	해양	해운일반	주요 해운 선진국의 지배선대 현황	분류불가		
267	경제	해양	해운일반	국적선원 취업현황	분류불가		
268	경제	해양	해운물류	컨테이너 화물 처리현황	분류불가		
269	경제	해양	해운물류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 현황	사회	교통	교통수요
270	경제	해양	해운물류	연안해송 물동량 현황	사회	교통	교통수요
271	경제	해양	해운물류	남북한간 해상수송 물동량 현황	사회	교통	교통수요
272	경제	해양	항만시설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	사회	교통	교통수요
273	경제	해양	해양환경안전	특별관리해역 수질(COD)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해양수산
274	경제	해양	해양환경안전	전국연안 수질(COD)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해양수산
275	경제	해양	해양환경안전	항만국 통제(PSC) 점검률	분류불가		
276	경제	해양	해양환경안전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해양수산
277	경제	해양	해양환경안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폐기물·유해물질
278	경제	농업	농업일반	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79	경제	농업	농업일반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0	경제	농업	농업일반	농어가 소득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1	경제	농업	농업일반	농림업 생산액 및 GDP대비 부가가치 비중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2	경제	농업	농업일반	농가부채, 자산, 부채상환능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3	경제	농업	농업일반	농가교역조건지수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4	경제	농업	농산물생산소비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5	경제	농업	농산물생산소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6	경제	농업	농산물생산소비	쌀 수급 추이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87	경제	농업	농업생산기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288	경제	농업	농업생산기반	경지면적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289	경제	농업	농업생산기반	직접지불금 현황	분류불가		
290	경제	농업	농업생산기반	농업 기계화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생산성
291	경제	농업	농산물위생/안전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292	경제	농업	농산물위생/안전성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분류불가		
293	경제	농업	농촌생활/지원	도농교류현황	분류불가		
294	경제	농업	농촌생활/지원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보급률	사회	주거	주거상황
295	경제	농업	농촌생활/지원	농어업인 복지지원현황	분류불가		
296	경제	임업	산림일반	목재수급 현황	분류불가		
297	경제	임업	산림일반	산림/국유림 면적 및 임목축적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298	경제	임업	산림일반	임산물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299	경제	임업	산림조성	해외조림 현황	분류불가		
300	경제	임업	산림조성	국내조림 및 숲가꾸기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301	경제	임업	산림관리·이용	전국 도시숲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302	경제	임업	산림관리·이용	자연휴양림 운영·이용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303	경제	임업	산림관리·이용	수목원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304	경제	임업	산림관리·이용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305	경제	임업	산림재해	산불피해현황	사회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재해
306	경제	임업	산림재해	산림 병해충 발생 및 방제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307	경제	임업	산림재해	산사태피해현황	사회	안전	재해
308	경제	어업	수산물생산/소비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09	경제	어업	수산물생산/소비	어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10	경제	어업	수산물생산/소비	수산물 소비량(연간 1인당)과 자급률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11	경제	어업	어업인지원	영어자급 지원현황	분류불가		
312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기관별 연구개발비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3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지역별 연구개발비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4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5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6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총 연구개발비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7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18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일반	기업부설 연구소 수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19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연구원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20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기관별 연구원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21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총 연구개발인력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22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과학기술 논문 현황(NSI)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23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기술무역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기타
324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IMD 과학·기술 경쟁력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25	경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	WEF 기술 경쟁력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26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인터넷 종독률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27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28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시내/이동전화 가입자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29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인터넷이용률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30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가구 인터넷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31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정보격차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32	경제	정보통신	정보화수준	ICT발전지수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33	경제	정보통신	IT산업	국내 SW 해외 매출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34	경제	정보통신	IT산업	IT산업 생산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35	경제	정보통신	IT산업	IT산업 수출입 동향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36	경제	정보통신	IT산업	방송서비스 시장 매출액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37	경제	정보통신	IT산업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338	경제	정보통신	정보보호	해킹사고 신고 건수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39	경제	정보통신	정보보호	1인 1일 스팸 수신량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40	경제	정보통신	정보보호	웜·바이러스 피해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341	경제	정보통신	정보보호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사회	안전	범죄
342	경제	정보통신	정보보호	개인정보 침해 건수	사회	안전	범죄
343	경제	정보통신	우정사업	1인당 우편이용 물량	분류불가		
344	경제	조달	조달사업	조달사업 실적	분류불가		
345	경제	조달	조달사업	나라장터 운영실적	분류불가		
346	경제	조달	조달사업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타
347	경제	조달	조달사업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록현황	분류불가		
348	경제	조달	원자재비축	비철금속 국내 수급현황	분류불가		
349	경제	조달	원자재비축	주요 비철금속 국제가격 동향	분류불가		
350	경제	조달	원자재비축	조달청 비축 원자재 판매 및 구매 현황	분류불가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351	경제	조달	시설사업	공사계약 실적	분류불가		
352	경제	특허	출원/등록	특허수수료 수입 현황	분류불가		
353	경제	특허	출원/등록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혁신
354	경제	특허	출원/등록	위조상품 단속건수	분류불가		
355	경제	특허	심사	특허 등 이의신청 건수	분류불가		
356	경제	특허	심사	특허 등 심사청구/처리 현황	분류불가		
357	경제	특허	심판	특허 등 심판청구/처리 현황	분류불가		
358	경제	기상	예보/관측	지진해일발생 현황	사회	안전	재해
359	경제	기상	예보/관측	황사발생 빈도	사회	안전	재해
360	경제	기상	예보/관측	지진발생 빈도	사회	안전	재해
361	경제	기상	지구대기	주요 온실가스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2	경제	기상	지구대기	에어러셀 연평균 농도 변화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3	경제	기상	기후	기온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4	경제	기상	기후	강수량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5	경제	기상	기후	일조시간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6	경제	기상	기후	평년값(과거 30년 통계) 추이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대기·소음
367	사회	복지	복지일반	보건복지부 예산현황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368	사회	복지	복지일반	의료급여 수급 현황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369	사회	복지	복지일반	소득 분배(Gini계수)	경제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
370	사회	복지	복지일반	내년 가구의 재정상태	경제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371	사회	복지	복지일반	현금 기부 인구	사회	사회통합	신뢰와 투명성
372	사회	복지	복지일반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경제	소득과 소비	소득분배
373	사회	복지	복지일반	국민영양 현황	사회	건강	건강결정요인
374	사회	복지	복지일반	사회복지 지출규모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75	사회	복지	복지일반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76	사회	복지	복지일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77	사회	복지	복지일반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	경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378	사회	복지	노인복지	노후준비방법	사회	가구와 가족	가족돌봄
379	사회	복지	노인복지	노인 취업률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380	사회	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81	사회	복지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및 노후생활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382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현황	분류불가		
383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 시설 및 사업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84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385	사회	복지	아동복지	요보호아동현황	사회	가구와 가족	가족돌봄
386	사회	복지	아동복지	아동 안전사고 현황	사회	안전	재해
387	사회	복지	아동복지	아동급식지원 현황	분류불가		
388	사회	복지	아동복지	학대아동 보호 건수	분류불가		
389	사회	복지	아동복지	국내입양아수 및 입양비용	분류불가		
390	사회	복지	연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재정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91	사회	복지	연금/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 및 급여율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392	사회	복지	연금/건강보험	공적연금 수급률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393	사회	복지	연금/건강보험	공무원연금기금 증식 및 운용 현황	분류불가		
394	사회	복지	연금/건강보험	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395	사회	복지	저출산고령화	노년부양비	사회	인구	인구구조
396	사회	복지	저출산고령화	합계출산율	사회	인구	인구변화
397	사회	보건	보건일반	의료인력 및 병상수 추이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398	사회	보건	보건일반	뇌사자 장기기증 현황	분류불가		
399	사회	보건	보건일반	현혈인구 및 개인현혈 비율	사회	사회통합	사회적 관계
400	사회	보건	보건일반	영아/모성 사망	사회	인구	인구변화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401	사회	보건	보건일반	GDP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402	사회	보건	보건일반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률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403	사회	보건	식품	식품검사 부적합률[국산, 수입]	사회	건강	기타
404	사회	보건	질병	집단 식중독 신고건수 및 환자수	사회	건강	기타
405	사회	보건	질병	정신질환 유병률	사회	건강	건강상태
406	사회	보건	질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수검률	사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407	사회	보건	질병	만성질환 현황	사회	건강	건강상태
408	사회	보건	질병	암 발생 및 사망 현황	사회	건강	건강상태
409	사회	보건	질병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	사회	건강	건강결정요인
410	사회	보건	건강증진	음주 및 흡연현황	사회	건강	건강결정요인
411	사회	보건	건강증진	평균수명(0세 기대여명) 및 건강수명	사회	건강	건강상태
412	사회	보건	건강증진	청소년 현재 흡연을, 청소년 현재 음주를	사회	건강	건강결정요인
413	사회	보건	건강증진	비만도 및 규칙적 중등도 운동실천율	사회	건강	건강결정요인
414	사회	보건	보건산업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실적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415	사회	환경	환경일반	환경오염방지 투자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개선노력·만족도
416	사회	환경	환경일반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동량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유해물질
417	사회	환경	환경일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개선노력·만족도
418	사회	환경	환경일반	환경오염 분쟁조정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19	사회	환경	환경일반	친환경상품구매실적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개선노력·만족도
420	사회	환경	환경일반	환경성상지수(EPI)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개선노력·만족도
421	사회	환경	자연보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 다양성
422	사회	환경	자연보전	국립공원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423	사회	환경	자연보전	생물종의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 다양성
424	사회	환경	대기보전	주요도시의 빗물의 산도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25	사회	환경	대기보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26	사회	환경	대기보전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27	사회	환경	대기보전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28	사회	환경	대기보전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29	사회	환경	대기보전	소음·진동 배출시설 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430	사회	환경	수질보전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물환경
431	사회	환경	수질보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물환경
432	사회	환경	수질보전	수질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물환경
433	사회	환경	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유해물질
434	사회	환경	폐기물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허가 및 재활용신고 업체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타
435	사회	환경	폐기물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유해물질
436	사회	환경	상하수도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물환경
437	사회	환경	상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물환경
438	사회	환경	상하수도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수자원
439	사회	환경	토지오염	토양오염도 현황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신림
440	사회	노동	사업체	내역별, 산업별, 규모별 노동비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41	사회	노동	사업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42	사회	노동	사업체	근로자 평균근속년수, 평균연령, 학력별 임금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43	사회	노동	사업체	산업별, 직종별, 사업체 규모별 노동력 수요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44	사회	노동	사업체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45	사회	노동	임금	임금 채권 및 체당금 지급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46	사회	노동	임금	임금결정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47	사회	노동	임금	최저임금 일반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48	사회	노동	임금	퇴직연금 도입 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449	사회	노동	고용	청년 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50	사회	노동	고용	여성 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451	사회	노동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52	사회	노동	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53	사회	노동	고용	국가기술자격 응시 및 취득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기타
454	사회	노동	고용	일반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55	사회	노동	고용	고령자 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56	사회	노동	고용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기타
457	사회	노동	고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458	사회	노동	고용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59	사회	노동	고용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기타
460	사회	노동	고용	비정규직 고용동향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61	사회	노동	노동보험	고용보험 지출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62	사회	노동	노동보험	산재보험 징수 및 지급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63	사회	노동	노동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실자, 취득자)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64	사회	노동	노동보험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65	사회	노동	노사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66	사회	노동	노사관계	노사분규 사업장 및 근로손실 일수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67	사회	노동	노사관계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68	사회	노동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69	사회	노동	노사관계	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70	사회	노동	노사관계	교원 노동조합 조직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71	사회	노동	노사관계	조정 및 심판사건 처리 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노사관계
472	사회	노동	산업재해	산업재해현황	경제	고용과 노동	근로조건
473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사회	교육	기타
474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교원 1인당 학생 수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475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취학을 및 진학을	사회	교육	교육기회
476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학령아동 변동 추계	사회	인구	인구규모
477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인력수급 전망	사회	교육	기타
478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	사회	교육	교육기회
479	사회	교육	교육/인적자원일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사회	교육	교육기회
480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UNDP 인간개발지수(HDI) 순위	사회	교육	교육효과
481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	사회	교육	교육효과
482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학력별 임금 격차 및 교육투자 수익률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483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유학생 현황	사회	교육	기타
484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	사회	교육	교육효과
485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SCI 논문 발표수	분류불가		
486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IMD 교육경쟁력 순위	사회	교육	교육효과
487	사회	교육	교육경쟁력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사회	교육	교육효과
488	사회	교육	유아교육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사회	교육	교육기회
489	사회	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 규모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0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초중등 교육시설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1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 규모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2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 체격/체력검사 현황	사회	건강	건강상태
493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사회	교육	교육효과
494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학교정보화 수준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495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6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학교급식 실시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497	사회	교육	초중등교육	중고등학교 장학금, 학비감면 수혜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8	사회	교육	특수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499	사회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	사회	교육	교육효과
500	사회	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규모	사회	교육	교육기회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501	사회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사회	교육	교육효과
502	사회	교육	고등교육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사회	교육	기타
503	사회	교육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504	사회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 규모	사회	교육	교육기회
505	사회	교육	고등교육	산학협력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506	사회	교육	고등교육	고등교육시설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507	사회	교육	고등교육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사회	교육	교육기회
508	사회	교육	평생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509	사회	교육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학위수여자 현황	사회	교육	기타
510	사회	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참여율	사회	교육	교육기회
511	사회	교육	평생교육	학교도서관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512	사회	교육	평생교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513	사회	교육	평생교육	e-러닝 활용 현황	사회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514	사회	보훈	보훈일반	보훈대상자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515	사회	보훈	보훈일반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현황	분류불가		
516	사회	보훈	보훈일반	현충시설 현황	분류불가		
517	사회	보훈	보훈일반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현황	분류불가		
518	사회	보훈	보훈일반	보훈심사 현황	분류불가		
519	사회	보훈	보훈일반	장례 보훈대상자 년도별 추계	분류불가		
520	사회	보훈	보훈일반	제대군인 현황	분류불가		
521	사회	보훈	보훈일반	국외안장선열 유해봉환 현황	분류불가		
522	사회	보훈	보훈일반	보훈 보상금 지급 현황	분류불가		
523	사회	보훈	보훈일반	국가유공자 평균 연령 현황	분류불가		
524	사회	보훈	보훈일반	독립유공자 포상자 현황	분류불가		
525	사회	보훈	보훈일반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분류불가		
526	사회	보훈	보훈복지	보훈대상자 지원 현황	사회	사회통합	사회보장
527	사회	보훈	보훈복지	제대군인 지원 현황	분류불가		
528	사회	보훈	보훈복지	국가유공자등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분류불가		
529	사회	보훈	보훈복지	보훈대상자 의료지원실적	분류불가		
530	사회	여성/가족	여성일반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531	사회	여성/가족	여성일반	총사상 지위별 여성취업자 구성비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532	사회	여성/가족	여성일반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533	사회	여성/가족	여성일반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경제	고용과 노동	임금
534	사회	여성/가족	가족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및 이용자 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35	사회	여성/가족	가족	모자보호시설수 및 생활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36	사회	여성/가족	가족	한부모 가구 비율	사회	가구과 가족	가구구성
537	사회	여성/가족	가족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사회	가구과 가족	가구구성
538	사회	여성/가족	가족	가족의 형태별 분포	사회	가구과 가족	가구구성
539	사회	여성/가족	가족	국제결혼 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형성
540	사회	여성/가족	가족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관계
541	사회	여성/가족	가족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형성
542	사회	여성/가족	가족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형성
543	사회	여성/가족	보육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44	사회	여성/가족	보육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45	사회	여성/가족	보육	장애평가단,통합시설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46	사회	여성/가족	양성평등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사회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547	사회	여성/가족	양성평등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사회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548	사회	여성/가족	양성평등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사회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549	사회	여성/가족	여성권익	가정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분류불가		
550	사회	여성/가족	여성권익	성매매피해자지원 현황	분류불가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551	사회	여성/가족	여성권익	성폭력관련시설 운영실적	분류불가		
552	사회	청소년	청소년일반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사회	인구	인구규모
553	사회	청소년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악물경험 실태	분류불가		
554	사회	청소년	청소년보호	전국 청소년 상담 내용 및 대상현황	분류불가		
555	사회	청소년	청소년보호	청소년 가출실태	분류불가		
556	사회	청소년	청소년보호	1388 청소년 전화 접수현황	분류불가		
557	사회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58	사회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현황	분류불가		
559	사회	청소년	청소년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사회	가구과 가족	가족돌봄
560	사회	경찰	경찰일반/수사	총범죄 발생 및 검거	사회	안전	범죄
561	사회	경찰	경찰일반/수사	즉결심판 청구건수	사회	안전	치안
562	사회	경찰	경찰일반/수사	경찰 인력 현황	사회	안전	치안
563	사회	경찰	경찰일반/수사	국과수 감정처리(유형별) 현황	사회	안전	치안
564	사회	경찰	경찰일반/수사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사회	안전	범죄
565	사회	경찰	생활안전/경비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관 부상자 발생	사회	안전	치안
566	사회	경찰	생활안전/경비	실종아동발생 및 처리현황	사회	안전	치안
567	사회	경찰	생활안전/경비	112신고접수 현황	사회	안전	기타
568	사회	경찰	생활안전/경비	충기등 허가현황	분류불가		
569	사회	경찰	교통	운전면허소지자현황	분류불가		
570	사회	경찰	교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사회	교통	교통사고
571	사회	경찰	교통	교통사고 발생현황(사망, 부상)	사회	교통	교통사고
572	사회	경찰	외사	최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사회	안전	범죄
573	사회	경찰	외사	국외도피사범 송환현황	사회	안전	범죄
574	사회	해양경찰	해양경비	중국어선단속현황	분류불가		
575	사회	해양경찰	해양범죄	밀입국자, 밀출국자 단속 추이	분류불가		
576	사회	해양경찰	해양범죄	해양범죄 발생건수 및 처리현황	사회	안전	범죄
577	사회	해양경찰	해양범죄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추이	사회	안전	범죄
578	사회	해양경찰	해양환경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사회	안전	재해
579	사회	해양경찰	해양안전	해상 조난사고 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0	사회	재난안전	재난	해양사고 통계	사회	안전	재해
581	사회	재난안전	재난	승강기 보유 및 사고현황	분류불가		
582	사회	재난안전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3	사회	재난안전	재난	민방위대 편성현황	분류불가		
584	사회	재난안전	재난	자연재난 복구비 추이	사회	안전	재해
585	사회	재난안전	재난	자연재난 발생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6	사회	재난안전	재난	인적재난 발생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7	사회	재난안전	소방	화재발생 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8	사회	재난안전	소방	소방인력 현황	사회	안전	재해
589	사회	재난안전	소방	구조활동 현황	사회	안전	재해
590	사회	재난안전	소방	구급활동 현황	사회	안전	재해
591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분류불가		
592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공연/전시 횟수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593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594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독서인구	사회	문화와 여가	미디어
595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분류불가		
596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일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597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인프라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598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인프라	공연장/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추이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599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인프라	공공도서관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600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산업	주요 영화산업국가의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분류불가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601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산업	문화산업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602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분류불가		
603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분류불가		
604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광고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05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출판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06	문화	문화/예술/산업	문화미디어	방송영상 전문인력 배출 추이	사회	문화와 여가	기타
607	문화	관광	관광일반	해외여행자수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608	문화	관광	관광일반	국제회의 개최 현황	분류불가		
609	문화	관광	관광일반	외래관광객수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610	문화	관광	관광일반	국민여행 총량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611	문화	관광	관광일반	관광사업 등록 및 지정 현황	분류불가		
612	문화	관광	관광일반	관광지 방문객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613	문화	관광	관광산업	관광수지 실적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614	문화	체육	생활체육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615	문화	체육	생활체육	체육동호인클럽 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616	문화	체육	생활체육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분류불가		
617	문화	체육	생활체육	생활 체육참여현황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활동
618	문화	체육	스포츠산업	프로스포츠 운영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19	문화	체육	스포츠산업	체육시설업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20	문화	체육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현황	경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621	문화	문화재	문화재일반	세계유산 현황	분류불가		
622	문화	문화재	문화재일반	문화재지킴이 위축 현황	분류불가		
623	문화	문화재	문화재일반	등록문화재 현황	분류불가		
624	문화	문화재	문화재일반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분류불가		
625	문화	문화재	문화재보존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분류불가		
626	문화	문화재	문화재보존	궁능원 관람객 수	분류불가		
627	문화	문화재	문화재보존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분류불가		
628	문화	문화재	문화재보존	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분류불가		
629	정무	외교	외교일반	우리나라 조약발효현황	분류불가		
630	정무	외교	외교일반	재외공관 규모/분포	분류불가		
631	정무	외교	외교일반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분류불가		
632	정무	외교	외교일반	우리나라의 PKO 참여현황	분류불가		
633	정무	외교	외교일반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분류불가		
634	정무	외교	통상협력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WTO 분쟁 현황	분류불가		
635	정무	외교	통상협력	주요국가별 RTA(지역무역협정) 현황	분류불가		
636	정무	외교	재외국민/영사	재외동포 추이	분류불가		
637	정무	외교	재외국민/영사	여권발급 추이	분류불가		
638	정무	외교	재외국민/영사	해외이주현황	사회	인구	기타
639	정무	외교	국제협력	양자간 원조의 지원 분야별, 지역적 배분	분류불가		
640	정무	외교	국제협력	유엔정규분담금 분담률 현황	분류불가		
641	정무	외교	국제협력	ODA 원조규모	분류불가		
642	정무	외교	국제협력	APEC관련 수출입투자현황	분류불가		
643	정무	외교	국제협력	GNI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분류불가		
644	정무	외교	국제교류	인적교류/문화교류 추이	분류불가		
645	정무	통일(남북)	통일일반	북한이탈주민관련 추이	분류불가		
646	정무	통일(남북)	통일일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추이	분류불가		
647	정무	통일(남북)	남북교류	남북 인적교류 및 물동량 추이	분류불가		
648	정무	통일(남북)	남북교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	분류불가		
649	정무	통일(남북)	남북교류	남북 교역 추이	분류불가		
650	정무	통일(남북)	남북교류	개성공단 생산액 및 근로자 현황	분류불가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651	정무	통일(남북)	남북교류	대북지원 현황	분류불가		
652	정무	국방	국방일반	군 사망사고 현황	분류불가		
653	정무	국방	국방일반	계급별 사병보급 추이	분류불가		
654	정무	국방	국방일반	국방예산 결산현황	분류불가		
655	정무	국방	국방일반	국방예산 추이	분류불가		
656	정무	국방	국방일반	예비군 교육훈련 현황	분류불가		
657	정무	국방	방산/군수	방산업체 경영실태	분류불가		
658	정무	국방	방산/군수	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	분류불가		
659	정무	국방	방산/군수	방산물자 수출현황	분류불가		
660	정무	국방	방산/군수	군수품 조달집행 추이	분류불가		
661	정무	국방	군인복지	군병원 외래/입원환자 현황	분류불가		
662	정무	국방	군인복지	병영 생활관 개선사업 예산추이	분류불가		
663	정무	국방	군인복지	군인연금 예산규모 및 수급자 추이	사회	사회통합	기타
664	정무	국방	국제협력	해외파병 현황	분류불가		
665	정무	국방	국제협력	남북군사회담 개최현황	분류불가		
666	정무	국방	국제협력	남북군사회담합의서 체결현황	분류불가		
667	정무	국방	국제협력	대외군사 교류협력 현황	분류불가		
668	정무	국방	국제협력	방위비분담금 현황	분류불가		
669	정무	병무	병무일반	병역자원 현황	분류불가		
670	정무	병무	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현황	분류불가		
671	정무	병무	입영	현역병 입영현황	분류불가		
672	정무	병무	입영	각 군 현역병 모집 입영 현황	분류불가		
673	정무	병무	입영	징병검사 결과 현황 추이	분류불가		
674	정무	법무	송무/공판	피의자 보상금 지급 현황	분류불가		
675	정무	법무	송무/공판	1심, 2심 무죄 현황	분류불가		
676	정무	법무	송무/공판	구속영장 청구 발부 현황	분류불가		
677	정무	법무	송무/공판	전체사건 접수/처리 현황	분류불가		
678	정무	법무	송무/공판	국가배상 사건수	분류불가		
679	정무	법무	송무/공판	항고 재항고 접수/처리 현황	분류불가		
680	정무	법무	송무/공판	국가소송사건수	분류불가		
681	정무	법무	송무/공판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분류불가		
682	정무	법무	송무/공판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분류불가		
683	정무	법무	송무/공판	역대사면실시현황	분류불가		
684	정무	법무	송무/공판	행정소송 사건수	분류불가		
685	정무	법무	법조인력	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	분류불가		
686	정무	법무	법조인력	사법시험(합격자 구성 등) 현황	분류불가		
687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출소자 취업·창업 현황	사회	사회통합	기타
688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연도별 분류심사, 상담조사, 대안교육 실시인원 현황	분류불가		
689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분류불가		
690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	분류불가		
691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사회	안전	범죄
692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사회	안전	기타
693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사회	안전	범죄
694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보호소년, 위탁소년 현황	사회	안전	기타
695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사회	안전	기타
696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보호관찰 현황	사회	안전	기타
697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보호관찰 조사 현황	분류불가		
698	정무	법무	보호/관찰/교정	수형자 학과교육 현황	분류불가		
699	정무	법무	범죄	고발사건 접수/처리 추이	사회	안전	범죄
700	정무	법무	범죄	범죄유형별公安사건 처리현황-선거사범	사회	안전	범죄

(표 계속)

부록 2. 계속

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국가주요지표」 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701	정무	법무	범죄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사회	안전	범죄
702	정무	법무	범죄	고소사건 접수/처리 현황	사회	안전	범죄
703	정무	법무	범죄	신분별 사건처리 현황-외국인사건 등	사회	안전	범죄
704	정무	법무	범죄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학생사범	사회	안전	범죄
705	정무	법무	범죄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사회	안전	범죄
706	정무	법무	범죄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범역사범)	사회	안전	범죄
707	정무	법무	범죄	5대 강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사회	안전	범죄
708	정무	법무	범죄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교통사범)	사회	안전	범죄
709	정무	법무	범죄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흉악사범)	사회	안전	범죄
710	정무	법무	범죄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폭력사범)	사회	안전	범죄
711	정무	법무	범죄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경제사범)	사회	안전	범죄
712	정무	법무	범죄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환경사범	사회	안전	범죄
713	정무	법무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분류불가		
714	정무	법무	출입국	체류 외국인 현황	사회	인구	인구변화
715	정무	법무	출입국	국적통계 추이	사회	인구	인구변화
716	정무	법무	출입국	결혼이민자 현황	사회	인구	인구변화
717	정무	법무	출입국	난민 통계 현황	분류불가		
718	정무	법무	출입국	외국국적동포 현황	사회	인구	인구변화
719	정무	법무	출입국	총 출입국자 현황	사회	인구	인구변화

부록 3. OECD의 *How's Life Index*

부문	영역	지표
물질적 생활조건	소득과 부	가구가처분소득
		가구 금융자산
	일자리와 소득	고용률
		장기실업률
		1인당 연평균 소득
	주거	1인당 방수
		기초설비를 결여한 가구
삶의 질	건강상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일가정 양립	장시간 노동자
		여가 및 개인 시간
		유자녀 여성근로자수
	교육과 기술	교육성취
		학생 인지 능력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시민적 참여와 거버넌스	투표율
		법제정 시 자문
	환경의 질	대기오염
	개인적 안정	살인율
		강도피해
	주관적 웰빙	생활만족도
		정서적 균형

출처: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부록 4. EU의 *Quality of Life Indicators*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Material living conditions	Income		Mean and median income by age and sex
			At-risk-of-poverty rate by poverty threshold, age and sex
			At-risk-of-poverty rate anchored at a fixed moment in time (2008) by age and sex
			S80/S20 income quintile share ratio by sex and selected age group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ituation of the household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Consumption	Constrained consumption	Basic expenses to total household budget ratio higher than 75% (to be developed)
		Non-market consumption and government provided services	Consumption of government services (to be developed)
			Non-market services (to be developed)
	Material conditions	Material deprivation	Severely materially deprived people Inability to make ends meet
		Housing conditions	Share of total population living in a dwelling with a leaking roof, damp walls, floors or foundation, or rot in window frames or floor
			Satisfaction with accommodation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Productive or main activity	Quantity of employment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by sex Long-term unemployment rate, by sex
		Underemployment, quantity	People living in households with very low work intensity: – by age and sex – by income quintile and household type
			Involuntary part-time employment as percentage of the total part-time employment, by sex and age (%)
			(To be developed)
		Underemployment, quality	(To be developed)
	Quality of employment	Income and benefits from employment	Low wage earners as a proportion of all employees (excluding apprentices): – by age – by sex – by educational attainment
		Health and safety at work	Work related accidents, health problems and hazardous exposure: – Persons reporting an accident at work in the past 12 months by sex, age and education – Persons reporting one or more work-related health problems in the past 12 months, by sex, age and education – Persons reporting exposure to factors that can adversely affect physical well-being, by sex, age and education – Persons reporting exposure to factors that can adversely affect mental well-being, by sex, age and education
			Accidents at work: standardised incidence rate

(표 계속)

부록 4. 계속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Productive or main activity	Quality of employment	Work/life balance	Average number of usual weekly hours of work in main job by economic activity (NACE Rev. 2)
			People working more than the ILO/OECD threshold of 49 hours (to be developed)
			Population in employment working during unsocial hours: – Shifts, Saturdays, Sundays, Evenings, Nights
			Satisfaction with commuting time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Temporary work	Temporary contracts (To be developed)
		Assessment of quality of employment	Job satisfaction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Satisfaction with current work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placeholder from EQLS)
			Possibility to influence content and order of tasks (under development in LFS 2015)
	Goo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to be developed)		
	Other main activity		Good relationship with direct supervisor (under development in LFS 2015)
(To be developed)			
Health	Outcomes	Life expectancy	Number of remaining years expected to live
		Morbidity & health status	Healthy Life Years
			Self-perceived health: – by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 by sex, age and income quintile
			People having a long-standing illness or health problem: – by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 by sex, age and income quintile
			Self-reported limitation in activities because of health problems: – by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 by sex, age group and income quintile
			Self-reported mental health (To be developed)
			Psychological distress during the past 4 weeks
			Drivers: healthy and unhealthy behaviours
	Regular smokers: – Daily smokers of cigarettes by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 Daily smokers of cigarettes by sex, age and income quintile		
	Hazardous alcohol consumption (To be developed)		
	Practice of physical activity (Under development in EHIS 2014)		
	Access to healthcare		

(표 계속)

부록 4. 계속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Education	Competences and skills	Educational attainment	Education attainment: – Lower primary, Upper secondary, Tertiary Early leavers from education and training by sex
		Self-reported skills	N/A (to be developed)
		Assessed skills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PIAAC Tables
	Life-long learning		People that participated in education or training in the four preceding weeks
	Opportunities for education		N/A (to be developed)
Leisure and social interactions	Leisure	Quantity of leisure: availability and time use, including personal care: satisfaction with time to do the things that people like	Satisfaction with time use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Quality of leisure	N/A (to be developed)
		Access to leisure	Self-reported access to activities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to be developed) Access to cinema, theatre or cultural centre (to be developed)
	Social interactions	Activities with people (including feelings of loneliness)	Frequency of contacting or meeting socially with friends, relatives or work colleagues (to be developed; Data from SILC 2006) – Frequency of getting together with relatives (PS050) – Frequency of getting together with friends (PS060) – Frequency of contacts with relatives (PS070) – Frequency of contacts with friends (PS080)
			Satisfaction with personal relationship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Activities for people	Involvement in voluntary and charitable activities out of paid work (to be developed; Data from SILC 2006) – Participation in informal voluntary activities (PS100) –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charitable organisations (PS150)
		Supportive relationships	Proportion of people indicating they have someone to rely upon for help (to be developed; Data from SILC 2006) – Ability to ask any relative, friend or neighbour for help (PS090)
			Ability to get help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Ability to discuss on personal matter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Social cohesion (interpersonal trust, perceived tensions, inequalities)	Trust in other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표 계속)

부록 4. 계속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Economic and physical safety	Economic security and vulnerability	Wealth (assets)	Population unable to face unexpected financial expenses
		Debt	Population in arrears
		Income insecurity (including job)	Likelihood of losing the job (to be developed)
	Physical and personal security	Crime	Age-standardized homicide rate / 100,000 people Crime, violence or vandalism in the area
		Perception of physical safety	Population feeling safe when walking alone in their area after dark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Governance and basic rights	Institutions and public services	Trust and/or satisfaction in institutions	Trust in institution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Trust and/or satisfaction in public service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to be developed)
	Discrimination and equal opportunities		Experienced discrimination (to be developed) Gender pay gap in unadjusted form in %: – NACE Rev. 2 – NACE Rev. 2, B–S excluding O
	Active citizenship		Voice and accountability (to be developed)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Pollution (including noise)		Pollution, grime or other environmental problems Noise from neighbours or from the street Outdoor particulate matter (to be developed)
	Access to green and recreational spaces		Satisfaction with recreational and green area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Landscape and built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Overall experience of life	Life satisfaction		Overall life satisfaction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Placeholder: EQLS 2011)
	Affects		Negative affect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Positive affects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Meaning and purpose		Assessing whether life is worthwhile (under development in SILC 2013; Placeholder: EQLS 2011)

출처: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quality_life/data).

부록 5. UN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영역	하위영역	핵심지표	확장지표
빈곤	소득 빈곤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하루 소득 1불 이하 인구비율
	소득 불평등	국가소득5분위별 점유율	-
	위생	개선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	-
	식수	개선된 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비율	-
	에너지 접근	현대 에너지 서비스를 보급받지 못하는 가계비율	취사를 위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인구 비율
	거주실태	슬럼에 살고 있는 인구비율	-
거버넌스	부패	뇌물 지급 인구비율	-
	범죄	10만명당 발생한 흉악범죄 건수	-
건강	사망율	5세미만 영아 사망률	-
		기대수명	기대건강수명
	보건의료 전달체계	주요 보건시설 접근 인구	피임보급률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영양상태	유소년 영양 상태	-
	건강상태 및 위험	질병률(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흡연율
-		자살률	
교육	교육수준	초등교육 총 입학률	평생학습
		초등교육 순 등록률	-
		성인 중등·고등교육 달성 수준	-
	문맹	성인 비문맹률	-
인구	인구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부양비	-
	관광	-	주요 관광지의 지역주민 비율
자연재해	자연재해 취약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
	재난준비 및 대응계획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경제손실
대기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오존층 파괴	오존파괴물질 소비	-
	대기질	도시 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
토지	토지이용 및 현황	-	토지이용변화
		-	토지황폐화
	사막화	-	사막화 영향을 받은 토지
	농업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비료사용 효율성
		-	농약사용
		-	유기농 경작 지역
	산림	산림지역 비율	고엽에 인한 산림 파괴 비율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역	
해양/연안	연안지역	해양지역 총 인구비율	수영구역 수질
	어업	생물학적 안전 기준 내의 어자원량	-
	해양환경	해양보호구역 비율	해양 영양 인덱스
		-	산호초 생태지역 및 서식지 비율

(표 계속)

부록 5. 계속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확장지표
담수	수량	수자원 총사용 비율	-
		경제활동별 수자원 이용 집약도	-
	수질	담수 내 대장균 밀도	수역 BOD
		-	폐수처리
생물다양성	생태계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	선택된 주요 생태계 지역
		-	서식지 단편화
	종	위협종 변화	주요 다양한 종
경제성장	거시경제성과	1인당 GDP	총 저축
		투자분	국민총소득(GNI) 비율
		-	인플레이션
	지속가능 공공 금융	부채/GNI	-
	고용	취업률	취약고용
		단위노동임금과 생산성	-
		비농업부문에서의 여성 임금	-
	정보·통신기술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100명당 주 전화선수
		-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R&D	-	GDP대비 R&D에 대한 지출
대외 경제협력	무역	GDP 대비 경상수지적자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수출품에 부과 되는 평균 관세 장벽
	외부금융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원액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 및 순유출액
		-	GNI 대비 송금액
소비/생산	물질소비	경제 물질 집약도	국내물질소비량
	에너지 사용	주요 업종별 연간 에너지 소비	신재생에너지원 점유율
		경제 활동별 에너지 사용집약도	-
	폐기물 발생 및 관리	유해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사선 폐기물 관리
	운송	이용객 교통수단	화물수송 교통수단
		-	수송부문 에너지집약도

출처: 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html>).

부록 6. EU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영역	주요지표	세부지표
사회·경제 발전	1인당 GDP 증가율	경제개발
		혁신, 경쟁, 환경효율성
		고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원생산성	자원사용 및 폐기
		소비 패턴
		공급 패턴
사회통합	빈곤위험율	빈곤률
		고용시장의 접근
		교육
인구변화	고령층 고용률	인구
		고령층 소득적절성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공공보건	성별 건강생활기간 및 기대수명	건강 및 건강불평등
		건강 결정요소
기후 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배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률 주요에너지 소비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GDP대비 교통 에너지 소비	교통과 이동
		교통영향
자연자원	조류지수 어획량(안전한 생물학적 한계이상)	생물다양성
		수자원
		해양생태계
		토지이용
국제협력	공적개발원조	국제적 무역
		지속가능개발 금융
		국제적 자원의 관리
좋은 거버넌스	-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성
		개방 및 참여
		경제적 요소

주: 환경 주제와 거리가 먼 경우 설명지표를 생략함(‘-’로 표시).

출처: Eurostat, 2012.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di/indicators>).

부록 7. 캐나다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생활수준	-	-	순(세금공제 후) 중위소득
			소득분포(소득5분위 대비 소득1분위의 비)
			빈곤율(Incidence of Low Income, LICO)
			CSLS(Centre for the Study of Living Standards)의 경제안정성 지수
			장기 실업률
			취업률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CSLS)의 고용 질 지수
			주택구입능력지수
			부의 분배
			저임금의 지속성
			식량불안정성
건강인구	기대수명/사망	-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비의도적 상해 사망
	기능적 건강	-	건강수명
	개인적 웰빙	-	건강자각도
	육체적 건강 조건	-	당뇨
			비만
			저체중 출생
			천식
	정신 건강	-	우울증
			정신건강자각도
	생활양식 및 행위	-	흡연
			육체적 활동
	건강관리서비스	-	환자만족도
			일반 가정주치의 수
	공공보건	-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공동체 활력	사회 참여	사회 참여	집단활동 참여
			자원봉사
			자선기부
		시민 참여	민주적 참여 영역에 포함
		경제적 참여	생활수준 영역에 포함
	사회적 지원	사회연결망 규모	가까운 친척의 수
			가까운 친구의 수
			가까운 이웃의 수
			독거 여부
		호혜성	타인 돕기
			도움 수혜여부

(표 계속)

부록 7. 계속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공동체 활력	지역사회 안전	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약물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안전에 대한 인식	밤에 혼자 걷기
	지역사회 안전	신뢰	사람들에 대한 신뢰
		다양성 존중	연결 유대
			차별 경험
		이타주의	타자에 대한 배려
		소속감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고립감
민주적 참여	개인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선거 참여	투표율
		정치적 견해	정치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율
		정치적 지식/자각	정치에 대한 관심
		태도	투표의 중요성
	정부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참여	잠재투표자 대비 투표등록자의 비율
			여성국회의원의 비율
		정당성	정부결정에 대한 견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
		신뢰	국회에 대한 신뢰
	국제적 수준의 민주적 참여	-	국제주의에 대한 참여정도
			GNI 중 국제원조 비율
레저 및 문화	시간이용	-	하루 중 사회 레저활동 참여한 시간의 비율
			하루 중 예술 및 문화활동에 참여한 시간의 비율
			문화 및 레크레이션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한 연평균 시간
	활동/참여	-	15분 이상 육체활동에 참여한 월평균 빈도
			예술공연을 관람한 연평균 횟수
			국립공원 및 유적지를 방문한 연평균 횟수
			80km이상 떨어진 곳에 휴가를 보낸 연평균 일수
	지출	-	전체 가구지출 중 문화 및 레크레이션 지출의 퍼센트
시간 이용	근로연령기 성인	-	비정기적 근로시간에 고용된 성인의 비율
			장기근로시간(초과근무 등)에 고용된 성인의 비율
			시간압박이 높다고 말하는 근로연령기 성인의 비율
			고령층 간병해야 하는 근로연령기 성인의 비율
	아동/청소년	-	시정시간기준을 초과하는 청소년(12-17세)의 비율
			체계적 특별활동(스포츠 포함) 참여 아동/청소년(6-15세) 비율
			미취학아동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빈도
			10대(15-17세) 내에서 집에서 부모와 식사하는 빈도
	은퇴 고령층	-	여가활동시간
			자원봉사시간

(표 계속)

부록 7. 계속

영역	하위영역	세부영역	지표
교육	-	-	유아 교육 및 보육
			초등학교 진학률/발달건강
			학생 대 교사 비율
			사회적/감성적 기능
			기초 교육지식 및 기술
			평등
			고교졸업률
			대학진학률
환경	공기	-	지표면 오존량
			기준 대기 오염 배출지수
			온실가스 배출지수
	에너지	-	1차 에너지 생산
			최종 수요 에너지 사용
	담수	-	수질 지수
			캐나다 남부의 물의 양
			생활용수 사용
	비재생 물질	-	지속적인 비재생 에너지 보존지수
			금속 보존 지수
			폐수처리 및 전용률
	생물자원	-	살아있는 지구 지수
			해양영양지수
			수목 지속성 지수

출처: *Canadian Index of Wellbeing*(<http://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부록 8. 영국의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영역	주요지표	
Personal well-being	Rating of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Rated their happiness yesterday Population mental well-being	Rating of how worthwhile the things Rated their anxiety yesterday
Our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Has a family member or friend to rely on if they have a serious problem	Satisfaction with social life
Health	Healthy life expectancy at birth Satisfaction with their health	A long term illness and a disability Psychological disturbance or mental ill health
What we do	Unemployment rate Satisfaction with amount of leisure time Engaged with/participated in arts or cultural activity at least 3 times in last year	Satisfaction with their job Volunteered in the last 12 months Adult participation in 30 mins of moderate intensity sport, once per week.
Where we live	Crimes against the person Accessed natural environment at least once a week in the last 12 months Households with good transport access to key services or work	How felt walking alone after dark How they felt they belonged to their neighborhood Fairly/very satisfied with their accommodation
Personal finance	Individuals in households with less than 60% of median income after housing costs Median household income Report finding it quite or very difficult to get by financially	Median wealth per household, including pension wealth satisfied with the income of their household
The economy	Real net national income per head Inflation rate	UK public sector net debt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Education and skills	Human capital – the value of individuals' skills, knowledge and competences in labor market UK residents aged 16 to 64 with no qualifications	Five or more GCSEs A* to C including English and Maths
Governance	Registered voters who voted	Those who have trust in national Government
The natural environment	Total green house gas emissions Energy consumed within the UK from renewable sources	Protected areas in the UK Household waste that is recycled

출처: www.ons.gov.uk/ons/guide-method/user-guidance/well-being/index.html.

부록 9. 뉴질랜드의 *Quality of Life Project*

영역	주요지표	
People	Population growth	Ethnicity
	Age	Families and households
	Disability	Maori well being
Economic Standard of Living	Income	Work life balance
	Cost of living	Social deprivation
	Net worth(assets and liabilities)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growth	Employ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building consents
	Local business	Tourism
	Skilled migrants	Retail sales
Knowledge and Skills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chool participation
	Qualification levels	Skills and job match
	Career training	
Housing	Housing tenure	Housing costs and affordability
	Household crowding	Government housing provision
	Urban housing intensification	Housing accessibility
Health	Life expectancy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Low birth weight babies	Self-reported health status
	Infant mortality	Modifiable risk factors
	Diseases	Addictions
	Access to GPs	Recreation and leisure
Built Environment	Look and feel of the city	Land use
	Traffic and transport	Public transport
	Access to services	Density
Natural Environment	Local natural environment issues	Beach and stream/lake water quality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Drinking water quality
	Biodiversity	Water conservation
	Energy use	Air quality
Safety	Perceptions of safety	Child safety
	Injuries	Road safety
	Workplace safety	Crime levels
Social Connectedness	Overall quality of life assessment	Diversity and identity
	Local community and strength and spirit	Electronic communication
	Arts and culture	
Civil and Political Rights	Treaty of Waitangi	Community involvement in council decision-making
	Voter turnout	Representation on local decision-making bodies

출처: *Quality of life in New Zealand's Cities*(<http://www.qualityoflifeproject.govt.nz/report.htm>).

부록 10. Wang의 *Social Quality Indicators of Europe and Asia*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Socio-economic security							
Financial resources	Income sufficiency	1	Household income spent on health, clothing, food, and housing (in the lower and median income households)	Income sufficiency	1	Subjective perception of income inadequacy	
					2	Objective indicator of income sufficiency	
	Income security	2	How certain biographical events affect the risk of poverty at the household level	Income security	3	Income replacement ratio	
		3	Proportion of total population living in households receiving entitlement transfers (means-tested, cash and in-kind transfers) that allow them to live above EU poverty level		Income inequality	4	Income inequality
Housing and environment	Housing security	4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certain of keeping their home	Housing security		5	Percentage of home ownership
		5	Proportion of hidden families (i.e., several families within the same household)		6	Housing afford ability	
	Housing conditions	6	Number of square meters per household member	Housing conditions	7	Number of square meters per household member	
		7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houses without basic amenities (water, sanitation, and electricity)		8	Proportion of population living in houses without basic amenities (water, sanitation, and electricity)	
	Environmental conditions	8	People affected by criminal offences per 10,000 inhabitants	Crime and safety	9	People affected by criminal offences per 10,000 inhabitants	
		9	Proportion of households in neighborhoods with above average pollution rate (water, air, and noise)		Social and environmental risks	10	No. of deaths due to disasters per 100,000 people
						11	Subjective perception of threats from environmental risks/natural disasters
						12	Subjective perception of political stability, armed conflicts, and terrorist attacks
	Health and care	Security of health provisions	10	Proportion of people covered by compulsory/voluntary health insurance (including qualitative exploration of what is and what is not covered by insurance)	Security of health provisions	13	Proportion of people with access to free health services
		Health services	11	Number of medical doctors per 10,000 inhabitants	Health services	14	Number of medical doctors/nurses [significant paramedics] per 10,000 inhabitants
			12	Average distance to a hospital, measured in minutes, not in meters		15	Average distance to a hospital, measured in minutes, not in meters
			13	Average response time of ambulance		16	Average response time of ambulance
Care services		14	Average number of hours spent on paid and unpaid care		17	Proportion of in-patient treatment fee paid by patients/government	

(표 계속)

부록 10. 계속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Work	Employment security	15	Length of notice before employer can change terms and conditions of labor relation/contract	Employment Security	18	Length of notice before labor contract termination
		16	Length of notice before labor contract termination		19	Proportion employed workforce with temporary and non-permanent job contract
		17	Proportion employed workforce with temporary job contract		20	Proportion of illegal workforce
		18	Proportion of illegal workforce		21	Proportion of workforce covered by unemployment insurance
	22				Unemployment rate	
	Working conditions	19	Number of employees with reduced work time due to interruption (parental leave, medical assistance of a relative, palliative leave) in proportion to employees who are entitled to these kinds of work time reduction.	Working conditions	23	Number of accidents (fatal/non-fatal) at work per 100,000 employees (if possible, per sector)
		20	Number of accidents (fatal/non-fatal) at work per 100,000 employees (if possible, per sector)		24	Number of hours a full-time employee typically works per week
		21	Number of hours a full-time employee typically works per week (actual working week)			
Education	Security of education	22	Proportion of pupils quitting school without finishing compulsory education (early school leavers)	Security of education	25	Proportion of pupils quitting school without finishing compulsory education (early school leavers)
		23	Education fees as proportion of national mean net wage		26	Age of completion of compulsory education
	Quality of education	24	Proportion of students who, within a year of leaving school with or without certificate, are able to find employment	Quality of education	27	Proportion of students who, within a year of leaving school with or without certificate, are able to find employment
Social cohesion						
Trust	General trust	25	Extent to which “most people can be trusted”	General trust	28	Extent to which “most people can be trusted”
	Specific trust	26	Trust in the government, elected representatives, political parties, armed forces, legal system, the media, trade unions, police, religious institutions, civil service, and economic transactions.	Specific trust	29	Trust in the government, civil servants, elected representatives, political parties, armed forces, legal system, police, the media, trade unions, religious institutions, economic transactions
		27	Number of cases being referred to European court of law		30	Importance of family, friends, leisure, politics, respecting parents. Parents’ duty to children
			28	Importance of family, friends, leisure, politics, respecting parents. Parents’ duty to children	Corruption	31

(표 계속)

부록 10. 계속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Other integrative norms and values	Altruism	29	Volunteering: number of hours per week	Altruism	32	Volunteering: number of hours per week
		30	% of population voluntarily donating blood		33	Percentage of people involved in volunteer activities
	Tolerance	31	Views on immigration, pluralism, and multiculturalism	Acceptance	35	Acceptance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ism
		32	Tolerance of other people's self-identity, beliefs, behavior, and lifestyle preferences		36	Acceptance of other people's self-identity, beliefs, behavior, and lifestyle preferences
	Social contract	33	Beliefs in causes of poverty: individual or structural	Social contract	37	Beliefs in causes of poverty: individual or structural
		34	Willingness to pay more tax if it would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poor		38	Willingness to pay more tax if it would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poor
		35	Intergenerational: willingness to pay 1 percent more tax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of elderly people in the country		39	Intergenerational: willingness to pay 1 percent more tax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of elderly people in the country
		36	Willingness to actually do something practical for the people in the community/neighborhood like picking up litter, doing some shopping for the elderly/disabled/sick people in the neighborhood, assisting neighbors/community members fill out (tax/municipal/etc.) forms, cleaning the street/porch/doorway		40	Willingness to actually do something practical for the people in the community/neighborhood like picking up litter, doing some shopping for people in need [elderly/disabled/sick people] in the neighborhood, assisting neighbors/community members fill out (tax/municipal/etc.) forms, cleaning public areas such as street/porch/doorway
		37	Division of household tasks between men and women: Do you have an understanding with your husband/spouse about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raising children, and earning household income?			
	Social networks	38	Membership (active or inactive) in political, voluntary, charitable organizations, or sport clubs	Networks	41	Membership (active or inactive) in political, voluntary, charitable organizations or sport clubs
		39	Support received from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42	Support received from family, friends, neighbors
		40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and colleagues		43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and colleagues
Identity	National/Euro pean identity	41	Sense of national pride	National/ Asian identity	44	Sense of national pride
		42	Identification with national symbols and European symbols		45	Identity as Asian
	Regional/ community/ local identity	43	Sense of regional/community/local identity	Regional/ community/ local identity	46	Sense of local identity
	Interpersonal identity	44	Sense of belonging to family and kinship network	Interpersonal identity	47	Sense of belonging to family and kinship network

(표 계속)

부록 10. 계속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Social inclusion						
Citizenship rights	Constitutional /political right	45	Proportion of residents with citizenship	Political right	48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46	Proportion having the right to vote and exercising it in local elections and		49	Proportion of population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Social rights	47	Proportion with the right to a public pension (i.e., a pension organized or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ocial rights	50	Proportion of eligible population actually covered by public pension
		48	Women's pay in proportion to men's pay		51	Women's income in proportion to men's pay
	Civil rights	49	Proportion with the right to free legal advice	Civil rights	52	Proportion of residents (or citizens) with the right to free legal advice
		50	Proportion experiencing discrimination		53	Proportion of population experiencing discrimination [age, racial, gender]
	Economic and political network	51	Proportion of ethnic minority groups elected or appointed to parliament, boards of private companies and foundations	Economic and political network	54	Proportion of women elected or appointed to parliament, boards of private companies and foundations
		52	Proportion of women elected or appointed to parliament, boards of private companies and foundations			
	Access to paid employment	53	Long-term unemployment (12+ months)	Access to paid employment	55	% of long-term unemployment (i.e., 12+ months) of total unemployment
		54	Involuntary part-time or temporary employment		56	% of involuntary casual [i.e., part-time and temporary] employment
Services	Health services	55	Proportion entitled to and using public primary health care	Education	57	Secondary school participation [enrolment] rate
	Housing	56	Proportion homeless, sleeping rough		58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enrolment] rate. Average waiting time for elderly institutional care services. Secondary school participation [enrolment] rate
		57	Average waiting time for social housing			
	Education	58	School participation rate and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Social care	59	Higher education participation [enrolment] rate
		59	Proportion of people in need of receiving care services		60	Average waiting time for elderly institutional care services
	Social care	60	Average waiting time for care services (including childcare)	Civic/cultural services	61	Number of public sport facilities per 10,000 people
		61	Proportion denied credit, differentiated by income groups			
	Financial services	62	Access to financial assistance/advice in case of need	Civic/cultural services	62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civic & cultural facilities (e.g., cinema, theater, concert halls, museum) per 10,000 people. Frequency of contact with neighbors. Frequency of contact with friends. Level of feeling lonely/alienated
		63	Proportion of people with access to the public transport system			
	Transport	64	Density of public transport system and road density			
		65	Number of public sport facilities per 10,000 inhabitants			
	Civic/cultural services	66	Number of public and private civic & cultural facilities (e.g., cinema, theater, concerts) per 10,000 inhabitants			

(표 계속)

부록 10. 계속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Social network	Neighborhood participation	67	Proportion in regular contact with neighbors	Neighborhood participation	63	Frequency of contact with relatives
	Friendship	68	Proportion in regular contact with friends	Friendship	64	Perceived quantity [or adequacy] of entitlement transfer received from family
	Family life	69	Proportion feeling lonely/alienated	Family life	65	Number of public sport facilities per 10,000 people
		70	Duration of contact with relatives (cohabiting and non-cohabiting)		66	Number of public civic & cultural facilities (e.g., theatre, concert halls, museum) per 10,000 people
		71	Informal (non-monetary) assistance received by different types of family		67	Frequency of contact with neighbors
Social empowerment						
Knowledge-base	Application of knowledge	72	Extent to which social mobility is knowledge-based (formal qualifications)	Availability of information	68	Literacy rat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73	Percent of literate and numerate population		69	Availability of free media
		74	Availability of free media		70	Access to the internet [internet user, or % of internet user] or internet access rate per household
		75	Access to the internet	User-friendliness of information	71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User-friendliness of information	76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information in multiple languages		71*	Right to access public information
		77	Availability of free advocacy, advice, and guidance centers		72	Availability of free advocacy, advice, and guidance centers
Labor market	Control over employment	78	Percent of labor force as member of a trade union (differentiated into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Control over employment contract	73	Percent of labor force as member of a trade union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79	Percent of labor force covered by a collective agreement (distinguished into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74	Percent of labor force covered by a collective agreement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Prospects of job mobility	80	Percent of employed labor force receiving work-based training	Prospects of job mobility	75	Percent of labor force accessing publicly provided training
		81	Percent of labor force accessing publicly provided training (not only skills-based). (Please outline cost of such training, if any)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work/life balance)	83	Percent of organizations operating a work-life balance policy		76	Percent of organizations operating a work-life balance policy
		84	Percent of employed labor force actually making use of work/life balance measures (see indicator above)			
Openness and supportiveness of institutions	Openness and supportiveness of political system	85	Existence of processes of consultation and direct democracy (e.g., referenda)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work/life balance)	77	Percent of employed labor force actually making use of work/life balance measures
	Openness of economic system	86	Number of instances of public involvement in major economic decision-making (e.g., public hearings about company relocation, inward investment, and plant closure)			
	Openness of organizations	87	Percent of organizations/institutions with work councils			

(표 계속)

부록 10. 계속

Domain	Europe			Asia		
	Subdomain	No	Indicators	Subdomain	No	Indicators
Public space	Support for collective action	88	Percent of the national and local public budget reserved for voluntary, not-for-profit citizenship initiatives	Cultural enrichment	78	Proportion of local and national budget allocated to all cultural activities
		89	Marches and demonstrations banned in the past 12 months in proportion to total marches and demonstrations (held and banned)		79	Number of self-organized cultural groups and events
	Cultural enrichment	90	Proportion of local and national budget allocated to all cultural activities			
		91	Number of self-organized cultural groups and events			
		92	Proportion of people experiencing different forms of personal enrichment on a regular basis			
Personal relationships	Services supporting physical and social independence	93	Percentage of national and local budgets devoted to disabled people (physical and mental)			
	Personal support services	94	Level of pre- and post-school childcare			
	Support for social interaction	95	Extent of inclusiveness of housing and environmental design (e.g., meeting places, lighting, layout)			

출처: Wang, 2009. "Asian Social Quality Indicators: What is Unique?" *Development and Society*.

부록 11. 독일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부문	영역	지표
Intergenerational Equity	Resource Conservation	Energy productivity
		Primary energy consumption
		Resource productivity
	Climate protec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Renewable energy sources	Shar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final energy consumption
		Shar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electricity consumption
	Land use	Increase settlement
	Biodiversity	Biodiversity and landscape quality
	Government debt	General government deficit
		Structural deficit
		Government debt
	Provision for future economic stability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in relation to GDP
	Innovation	Private and public spending on research and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18–24 year olds with no degree
		18–24 year olds men without degree
		18–24 year olds women without degree
		30–34 year olds with tertiary degree
		30–34 year olds men with terti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degree
		30–34 year olds women with tertiary or post-secondary, non-tertiary degree
		Student rate(men/females)
Quality of Life	Economic output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Mobility	Intensity of goods transport
		Intensity of passenger transport
		Share of rail transport in goods transport performance
		Share of inland freight water transport in goods transport performance
	Land management	Nitrogen surplus
		Organic farming
	Air quality	Air pollution

(표 계속)

부록 11. 계속

부문	영역	지표
Quality of Life	Health and nutrition	Premature mortality of men under 65 years
		Premature mortality in women under age 65
		Adults smoking rates (15 years and older)
		Smoking rate for men (15 years and older)
		Women smoking rate (15 years and older)
		Smoking rates youths (12- to 17-year-olds)
		Proportion of adults suffering from obesity (18 years and older)
		Men with obesity
		Women with obesity
	Crime	Criminal offences
Social cohesion	Occupation	Employment rate (15–64 year-olds)
		Employment rate of males (15–64 year-olds)
		Employment rate of women (15–64 year-olds)
		Employment rate (55–64 year-olds)
		Employment rate of males (55–64 year-olds)
		Employment rate of women (55–64 year-olds)
	Perspectives for families	Day care provision (0–2 year olds)
		Day care provision (3–5 year olds)
	Equality	Pay gap between women and men
	Integration	Foreign school leavers with a university degre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Development Cooperation	Share of public development expenditur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gross national income
	Open markets	German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of Germany.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https://www-genesis.destatis.de>).

부록 12. 미국의 *Sustainable America*

분야	영역	지표
경제지표	경제적 번영	자본재
		노동생산성
		국내생산(Domestic Product)
	재정상책임	인플레이션
		GDP 대비 연방부채
	과학적·기술적 진보	GDP당 R&D 투자
	고 용	실업
	주 택	자가 보유율
		문제주택거주가구비율
	소 비	1인당 에너지소비 및 GDP당 에너지소비
		1인당 원료소비 및 GDP당 원료소비
		1인당 소비지출
	형평성	소득분포
환경지표	천연자원상태	농경지의 용도 변경
		토양 침식률
		취수량 대비 재생가능 수자원 공급비율
		어업이용
		벌채 대비 목재성장 균형정도
	대기 및 수질	지표수 수질
		대도시 대기질
	오염 및 유해물질	생물군 내 오염물질
		슈퍼펀드(Superfund) 지역의 확인 및 관리
		핵연료 소비량
	생태계 보전	주요 육상 생태계 면적
		침략적 외래 생물종
	지구 기후변화	온실가스배출
		지구온난화 기후 반응 지수
	성층권 오존파괴	성층권 오존상태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사회지표	인구	미국인구
	가족구조	이혼가정 유소년수
		미혼모에 의한 출산
	지역사회발전	자선활동에 투입된 시간 및 자금
	교육	교사의 훈련수준 및 자격제의 적용
		수준별 교육 달성
		교육 성취율
	공공안전	범죄율
	인류건강	출생 시 평균여명
	평등	빈곤자수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참여

출처: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6, *Sustainable America*.

부록 13. 영국의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지표구분	부문	지표	세부지표
주요지표 (Headline measures)	Economy	Economic prosperity	GDP
			GDP per head
			Median income
		Long term unemployment	Proportion of adults unemployed over 12 months
		Poverty	Proportion of children in relative low income households(before housing costs)
			Proportion of children in absolute low income households(before housing costs)
		Knowledge and skills	Human capital (£) stock
			Human capital per head
	Society	Health life expectancy	Heathy life expectancy at birth: males
			Heathy life expectancy at birth: females
		Social capital	Proportion of people engaging in actions addressing issues of public concern
			Proportion of people who have a spouse, family member or friend to rely on if they have a serious problem
			Proportion of people engaging in any volunteering activity
			Proportion of people agreeing that people in their neighbourhood can be trusted
		Social mobility in adulthood	Proportion of adults from less advantaged groups in managerial or professional positions
		Housing provision	Net additional dwellings
	Environment	Greenhouse gas emissions	UK greenhouse gases emissions
			Greenhouse gas emissions associated with UK consumption
		Natural resource use	Raw material consumption of non-construction materials
			Raw material consump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Wildlife: bird population indices	Farmland birds,
			Woodland birds
			Seabirds
			Water and wetland birds
		Water use	Abstractions for non-tidal surface waters and ground waters

(표 계속)

부록 13. 계속

지표구분	부문	지표	세부지표
보조지표 (Supplementary measures)	Economy	Population demographics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Household estimates and projections
		Debt	Public sector net debt and public sector net borrowing as proportions of GDP to 2017/18
		Pension provision	Percentage of eligible workers in a workplace pension
		Physical infrastructure	Total non-financial assets net worth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on R&D performed in UK business
			Expenditure on R&D rela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Environmental goods & services sector	Value of the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sector
	Society	Avoidable mortality	Mortality from deaths considered avoidable
			Mortality from deaths considered amenable
			Mortality from deaths considered preventable
		Obesity	Proportion of children overweight and obese(2-15 year olds)
			Proportion of adults overweight and obese
		Lifestyles	Prevalence of smoking in adults
			Proportion of adults doing 150 minutes of exercise per week
			Proportion of urban trips under 5 miles taken by walking or cycling
			Proportion of urban trips under 5 miles taken by public transport
			Average daily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s
		Infant health	Incidence of birth weight less than 2,500g in full term live births in England
		Air quality	Number of air pollution days classed as moderate or high-urban
			Number of air pollution days classed as moderate or high-rural
		Nois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ffected by noise
		Fuel poverty	Number of households in fuel poverty

(표 계속)

부록 13. 계속

지표구분	부문	지표	세부지표
보조지표 (Supplementary measures)	Environment	UK CO2 emissions by sector	Energy supply
			Transport
			Business
			Residential
			Other
		Energy consumed in the UK from renewable sources	Proportion of gross energy consumption from renewable sources
		Housing energy efficiency	Mean SAP ratings of existing housing
			Mean SAP ratings of new housing
		Waste	Proportion of household waste recycled
			Proportion of construction and demolition waste recovered
		Land use & development	Land use by type
		Origins of food consumed in the UK	The origins of food consumed in the UK by region
		River water quality	Proportion of rivers with biological quality classed as good or high
			Proportion of rivers which pass on chemical status
		Fish stocks	Proportion of fish stocks harvested sustainably
		Status of species & habitats	Number of priority species that are stable or increasing
			Number of priority habitats that are stable or increasing
		UK Biodiversity impacts overseas	To be developed in line with biodiversity indicators

출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le-development-indicators-sdis>).

부록 14. 캐나다의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영역	No	지표
Population	1	Population
		(1) Person (2)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3) Aged 65 and over (4) Density
		(5) Census-metropolitan areas and census agglomerations
Economy	2	GDP
		(1) GDP (2)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3) Per capita
Social	3	Consumer Price Index
	4	Unemployment rate
	5	Average household spending
		(1) Water and sewage (2) Electricity
		(3) Food (4) Gasoline and other motor fuels
Energy	6	Personal expenditure on consumer goods and services
	7	Residential waste
		(1) Production per capita (2) Disposal (3) Diversion
	8	Distance driven by light vehicle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9	Asthma
	10	Primary energy availability
	11	Primary and secondary energy
		(1) Exports (2) Residential consumption (terajoules)
Energy	12	Established reserve
		(1) Crude bitumen (2) Crude oil (3) Natural gas
	13	Recoverable reserves
		(1) Coal (2) Uranium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14	Electricity generation
		(1) Hydro-electric (2) Nuclear
		(3) Fossil fuel and other fuel combustion
	15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16	GHG emissions per capita
	17	GHG emissions by final demand
	18	Annual temperature departures
	19	Value of selected natural resources
		(1) Land (2) Timber
		(3) Subsoil resource stocks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20	Average farm pesticide expenditures
	21	Air quality
		(1) Ozone (2) PM2.5

출처: Statistics Canada. *Canadia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http://www.statcan.gc.ca/pub/16-002-x/2010004/part-partie5-eng.htm>).

부록 15. 뉴질랜드의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영역	No	지표
Population	1	Population size and growth
	2	Fertility rate
	3	Dependency ration
	4	Ethnic diversity
	5	Regional population change
Biodiversity	6	Number of threatened species
	7	Distribution of selected native species
	8	Area of native land cover
	9	Proportion of assessed fish stocks below target levels
	10	Distribution of selected pest animal and weed species
Air and atmosphere	11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12	Greenhouse gas emission by sector
	13	Annual surface temperature
	14	Greenhouse gas intensity of the economy
	15	Stratospheric ozon levels
	16	Air pollution
Water	17	Population with drinking water
	18	Nitrogen in rivers and streams
	19	Biological heath of rivers and streams
	20	Lake water quality
	21	Groundwater quality
	22	Bacterial pollution at coastal swimming spots, rivers and lakes
	23	Water allocation compared with total water resource
Land use	24	Area of land used for farming
	25	Soil heath
	26	Nitrogen and phosphorus content in soil
	27	Contaminated soil sites
	28	Versatile soil extinction
	29	Hill country erosion
Energy	30	Total primary energy supply per person
	31	Energy intensity of the economy
	32	Percentage of electricity on energy used in the home, by income group
	33	Household expenditure on energy used in the home, by income group
	34	Energy dependency
	35	Energy-related greenhouse gas emissions

(표 계속)

부록 15. 계속

영역	No	지표
Transport	36	Vehicle-kilometres travellers by road, by vehicle type
	37	Road freight transport intensity of the economy
	38	Public transport intensity of the economy
	39	Number of international flights per week
	40	Proportion of population in employment walking or cycling to work
Waste	41	Solid waste disposed to landfill
	42	Proportion of population with access to kerbside recycling
	43	Proportion of packaging waste recycled
	44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Innovation	45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proportion of GDP
	46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by purpose
	47	Personnel involv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48	Rate of innovation by type
Work, knowledge, and skills	49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50	Unemployment rate
	51	Pay equality by ethnicity
	52	Labour productivity
	53	Educational attainment of the adult population
	54	Participation in tertiary education
	55	Literacy skills
	56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ethnicity
Economic resilience	57	Real net stock of total assets per person
	58	Real net of infrastructure per person
	59	Real investment in fixed capital per person
	60	Ratio of debt services to export earnings
	61	Diversity of exports
	62	Government debt
Living conditions	63	Real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person
	64	Real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per person
	65	Income inequality
	66	Population with low incomes
	67	Housing affordability
	68	Household satisfaction with material standard of living

(표 계속)

부록 15. 계속

영역	No	지표
Health	69	Health expenditure at birth
	70	Prevalence of Health lifestyles
	71	Childhood immunisation coverage
	72	Suicide rate
	73	Avoidable hospital admissions
	74	Cancel-survival probabilities
Social connection and governance	75	Formal unpaid work outsides the home
	76	Rate of death from assault
	77	Impact of fear of crime on quality of life
	78	Voter turnout at general and local elections
	79	Representation of women in Parliament and local government
	80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Culture and identity	81	Speakers of tereo Maori
	82	Children attending Maori language immersion schools
	83	Number of historic places
	84	Local content on New Zealand television

주: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conomic Efficiency, Social Cohesion의 세 가지 범주로 대상을 구분한 후 각 범주에 따른 원칙에 따라 세 범주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합적 지표를 생성함.

출처: Statistics New Zealand. *Measuring New Zealand's Progress Us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Approach* (http://www.stats.govt.nz/browse_for_stats/environment/sustainable_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aspx).

부록 16. 스위스의 *MONET Indicator System*

영역	세부지표
Living conditions	Equivalent disposable income
	Persons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Housing costs
	Life satisfaction
	Suicide rate
	Violent offenses
Health	Life expectancy in good health
	Psychological well-being
	Health-related behavior: Physical Activity
	Overweight
	Health expenditure
Social cohesion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Volunteering
	Women in National
	Reading ability of 15 year olds by socio-economic background
	Early school leavers / students by Nationality
	Different financial resources of the cantons
International cooperation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the poorest countries
	Attitude to foreign aid
	Multilateral agreements
	Duty-free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emittances from migrant / inside
Education and Culture	Reading ability of 15 year olds
	Early school / inside
	Participation in training activities
	Regular use of a second language
	Internet use by income group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Own cultural activities
Research and Technology	Patent applications
	Human Resourc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Expens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표 계속)

부록 16. 계속

영역	세부지표
Working	Unemployment rate based on ILO
	Youth unemployment according to ILO
	Wage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Occupational status by sex
Economic system	Investment to GDP
	Labor productivity
	Debt to GDP ratio
	Tax to GDP ratio
	Environmentally related taxes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tal material requirement
	Material intensity
	Cost of materials abroad for imports
	Consumption of organic products
	Fairtrade
	Municipal waste
	Waste recycling rate
Mobility and Transport	Final energy consumption in transport
	Breakdown of passenger
	CO2 intensity of motorized
	Modal split in freight transport
	Intensity of goods transport
	Arrivals and departures
	People affected by noise
Energy and Climate	Final energy consumption
	Energy intensity
	Energy dependence
	Renewable Energy
	Greenhouse gas emissions
	CO2 emissions
	CO2 intensity
Natural Resources	Ecological footprint
	Settlement area
	Settlement area per capita
	Landscape fragmentation
	Eligible arable soils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zone concentration
	Nitrate content in groundwater
	Phosphorus content in the lake water
	Breeding bird populations
	Ecological quality of the forest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1. *Sustainable Development—A Brief Guide 2010* (<http://www.bfs.admin.ch>).

부록 17. 호주의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

부문	영역	영역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Society	Health	Life expectancy at birth	Physical	Disability free life expectancy at birth
			Mental	Levels of psychological distress
			Service	—
			Lifestyles	Proportion of adults who are overweight or obese Smoking rates
			Environments	Average air quality index for capital cities
	Close relationships	Proportion of people who have family members living elsewhere that they can confide in	Positive	Proportion of people who feel they are able to have a say with family and friends on important issues all or most of the time
			Caring	Proportion of people that have a source of support in a time of crisis from persons outside the household
			Children	Proportion of children who are developmentally vulnerable due to their physical health and wellbeing
			Time	Proportion of people who feel rushed or pressed for time often or always
			Support	—
	Learning and knowledge	Proportion of people aged 25–64 years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Early	—
			Schooling	Attainment rate of Year 12 or Certificate III qualification for people aged 20–24 years
			Education	Proportion of people aged 25–64 years with a vocational or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Learning and Skills	—
			Research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higher education organisations
			Generational	—
	Home	Homelessness rate	Adequate housing	Proportion of households living in overcrowded conditions
			Affordable housing	Rental costs as a proportion of household income for low income rental households
			Tenur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own their own home
			Belongings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recognise an area as homelands or traditional country
	Safety	Physical assault victimisation rate	Crime	Malicious property damage victimisation rate
			Environments	—
			Regulations	—
			Refuge	—
			Feelings	—

(표 계속)

부록 17. 계속

부문	영역	영역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Society	Community connections and diversity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d no involvement in social and community groups in the 12 months prior to being interviewed	Relationship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had no involvement in social and community groups in the 12 months prior to being interviewed
			Support	–
			Respect	–
			Cultural	–
			Aboriginal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identify with a clan, tribal group, language group, mission or regional group
			Identity	Proportion of overseas-born Australian residents (who have lived here for five years or more) who are Australian citizens
	A fair go	–	Needs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have low economic resources and have experienced one or more financial stressors
			Services	–
			Edu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rates for people aged 18–24 years
			Employment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in work or want to work
			Income	Average real equivalised disposable household income for low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Infrastructure and Assistance	–
	Enriched lives	–	Feelings	–
			Giving	Proportion of people that provided unpaid help to others living outside the household
			Time	Average time spent on recreation and leisure, and social and community interaction
			Recreation	Participation rate in sport and physical recreation
			Culture	Attendance rate for cultural events and venues, Participation rate for selected cultural activities
			Spirituality	–
Economy	Opportunities	Proportion of persons with a Certificate III or above, or employed in a skilled occupation	Employment	Employment as a proportion of people who are in work or want to work
			Business	New business entry rate
			Standard of living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Capabilities	Proportion of persons with a Certificate III level qualification or above
			Reduced complexity	–

(표 계속)

부록 17. 계속

부문	영역	영역의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의 주요지표
Economy	Jobs	Unemployment rate	Income	Proportion of non-managerial jobs that are low paid
			Satisfaction	Average level of job satisfaction
			Flexible	Proportion of employees with an agreement with their employer to work flexible hours
			Safe	Proportion of employees with an agreement with their employer to work flexible hours
			Effective	Total number of industrial disputes and working days lost per thousand employees
	Prosperity	Net saving plus other changes in real net wealth per capita	Efficient workforce	Labour force underutilisation rate
			Resources	Multifactor productivity
			Access	Real unit labour costs
			Innovation	—
			Completion	—
			Regulation	—
	A resilient economy	Multifactor productivity	Flexibility	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Insurance	—
			Stability	Consumer Price Index
			Prudent finance	Total capital base ratio
			Information	—
	Enhancing living standards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Buying power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Government	General government saving ratio
			Economic	Non-financial assets per capita
			Environmental	—
			Huma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Innovation	Product expansion by innovative businesses rate
	Fair outcomes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Living standards	Real net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Equity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Disadvantage	Ratio of income received by low income households relative to middle income households
			Contribution	Resident taxation rate
	International economic engagement	International trade rate	Trade relationships	International trade rate
			Migration	Net overseas migration per capita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
			Knowledge	International short-term movements for education, business and conferences per capita

(표 계속)

부록 17. 계속

부문	영역	영역의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의 주요지표
Environment	Health natural environment	-	Biodiversity	-
			Land	-
			Island waters	-
			Oceans	-
			Air and atmosphere	Average air quality index for capital cities
			Forest	-
	Appreciating the environment	Number of domestic trips involving nature activities per capita	Intrinsic value	-
			Economic value	-
			Access	Number of domestic trips involving nature activities per capita
			Cultural	-
			Aboriginal	Proportion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people who recognise an area as homelands or traditional country
			Information	-
	Protecting the environment	-	Protect	Total terrestrial and marine area protected
			Prevent damage	Proportion of native vegetation and wetlands on agricultural holdings being protected for conservation purposes
			Restore	-
			Programs	-
	Sustaining the environment	Australia'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Resources	Natural capital per capita, chain volume measures
			Land use	-
			Water use	-
			Waste	Amount of waste disposed per capita
			Technology and Strategies	-
			Climate	Australia's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Healthy built environment	Proportion of capital city residents who feel that their city has a good road network and minimal traffic congestion	Quality	-
			People friendly	Proportion of capital city residents who feel that their city has a good road network and minimal traffic congestion
			Culture	-
			Natural	-
			Ecological	-
			Amenities	-
	Working together	-	Participation	-
			Alignment	-
			Collaboration	-
			Shared responsibility	-
			International	-

(표 계속)

부록 17. 계속

부문	영역	영역의 주요지표	하위영역	하위영역의 주요지표
Governance	Trust	Level of generalised trust	Integrity	–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
			Process and systems	Informal votes in Australian federal elections
	Effective governance	–	Effective	–
			Interactions	–
			Protection	–
			Interactions	–
			Balance	–
			Resilience	–
	Participation	Proportion of eligible Australians enrolled to vote	Involvement	Voter turnout at federal elections
			Awareness	
			Access and opportunity	Proportion of persons active in civic or political groups
			Responsibility	Proportion of overseas-born Australian residents
	Informed public debate	–	Open and informed	–
			Freedom	–
			Free Media	–
			Regulation	–
	People's rights responsibilities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Laws	–
			Justice	Time on remand for unsentenced prisoners
			Freedom	Proportion of people that feel they are able to have a say within the community on important issues
			International	–

출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1370.0~2013~Main%20Features~Homepage~1>).